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우리이웃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2월 2일(음력12월 24일) 수요일 (주간) 제511호

불교성지순례전문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3월2일, 16일, 30일 649,000원
야호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 / FAX(02)725-7923
E-Mail : yahotour21@hanmail.net



"열쇠는 정부에… '약속' 지켜라"

1월 21일 자취 감춰 긴장·우려 속 각 단체 결속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 대안제시 촉구 이어져

조계종, 1주일간 '참회 발원 정진기도' 봉행

지율 스님의 생명이 위태롭다. 1월 28일 현재 단식 94일째로 접어들면서 지율 스님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만일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전향적 태도만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율 스님은 1월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정부의 대책만이 단식을 푸는 열쇠임을 못 박았다. 다음날인 21일 지율 스님은 행방을 감춘 채 단식을 계속하고 있고, 불교계는 물론이고 정부와 환경단체 등이 지율 스님의 신상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렇게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정부의 대책제시를 요구하는 사회 각계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천성산 관통터널 백지화 공약을 정부가 어겨서 생긴 문제인만큼 정부가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 역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율 스님이 단식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면서 정부 대책이 문제해결의 열쇠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도롱뇽 소송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전교조 김범열 부위원장은 "지율 스님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정부당국이 하루 빨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지율 스님이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후퇴한' 내용을 제시했으면 정부도 이에 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지율 스님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곁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은 "정부가 설득력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생명과 평화를 위해 참회해야 한다"며 사회전체의 각성을 촉구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도 "정부는 천성산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1월 24일부터 지율 스님과 생명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문규현 신부와 성공회 신현교회 신기호 신부, 기독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양재성 목사 또한 "정부도 지율 스님이 보여준 생명사랑에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당국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환경운동연합, 불교포럼, 대불청, 대불련 등 종교시민사회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터널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각계각층이 정부의 결단을 추구하고 나서면서 조계종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법장)은 1월 27일부터 조계사에서 일주일간 '지율 스님과 자연환경을 위한 참회발원 정진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불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기도정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율 스님과 자연환경을 위한 참회발원 기도정진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지원)는 1월 27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당국이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 왼쪽부터 진원 도법 지원 세영 진관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스님은 "지율 스님의 고행은 뭇생명과 했던 약속을 지킴으로서 우리 사회 원칙과 신뢰,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을 회복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이 먼저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지율 스님의 소속사찰인 천성산 내원사 주지 혜등 스님도 "지율 스님은 너와 나, 인간과 자연이 한몸 한생명 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생명을 함부로 취급해온 우리사회와 국가도 지율 스님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남아시아 위한 공동추모재 연다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고아원 건립도 결의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 7대 종단이 지진.해일로 숨진 남아시아인들을 위한 공동추모재를 추진한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백도웅)는 1월 27~28일 이틀간 열린 '제5회 종단교역자대화캠프'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실무차원의 논의를 거쳐 조만간 추모재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또 △피해지역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동으로 건립하고 △구호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종교적 갈등이나 문화적 갈등을 야기치 않도록 할 것 등을 결의했다.

이번 대화캠프에서는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구호활동에 대한 각 종교별 현황보고와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이에앞서 기조강연에서 스리랑카 피해지역을 다녀온 백도웅 대표회장은 스리랑카 불교대학원장 다마스리 스님을 만나 고아들을 위한 그룹홈 건설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日 매장 징용자 유골 모셔온다

한·일 불교문화교류협, 6월 1차 송환키로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이듬해인 1966년 한국인 징용자의 무연고 유골을 일본 땅에 항구적으로 매장하도록 일본측에 요청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유해봉송작업에 적극 나선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28일 서울 하림각에서 총회를 갖고 6월경 1차로 한국인 징용자의 유해를 송환키로 결의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이종진 사무차장은 "지난해 6월 8~12일 일본 가나까와껜 가마쿠라시 고메이지(光明寺) 등지에서 열린 2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서 양국 불교계가 결의한 대로 올해 한국인 징용자의 무연고 유골을 봉환할 것"이라며 "이는 이미 한일 정부는 물론 태평양전쟁 유가족 단체와도 얘기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한국인 징용자 무연고 유골봉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 도쿄(東京) 유텐지(佑天寺)에 보관 중인 유골 1천136위 가운데 남한출신 705위를 조속한 시일내에 봉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수덕사에서 '자연환경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제26차 한일불교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협회는 한일 여성불교인 전통문화교류행사도 10월경 도쿄에서 열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동산불교대 '대학원대학' 추진

2월에 추진위 구성

동산불교대학이 초기불교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동산불교대학원대학은 초기경전과 근본불교에 초점을 맞춰 인도철학과, 포교학과, 선학과(또는 선명상학과) 등의 학과를 개설할 계획이다.

동산불교대학은 2월까지 졸업생·재학생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학원대학 설립추진위원회 를 발족할 예정이다.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이사장은 "현재 교육부 대학원대학 설립 인준 요건인 건평 200평이상 건물소유, 전임교수 3인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이사회가 구성되는 대로 적극적인 모금을 통해 운영자금 15억원 마련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737-8881(대)

'할'



그림·조태호

지옹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신문사 Let's KT
아이벗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이며, BUD는 Buddy(친구)를 뜻합니다

'아이벗'으로 만나는 – 불자들의 유비쿼터스 세상


스마트폰 아이벗

1월 31일부터 뉴스·법문 등 실시간 서비스 개시

뉴스 불교계의 다양한 기사가 종합, 신행, 문화, 생활, 영상 뉴스로 나누어 실시간 제공.
법문 큰스님의 법문을 문자, 영상 등으로 서비스.
교양대학 영상과 문자를 통해 집에서도 전국의 유명 강사와 스님의 명강의를 청취.
사이버 법당 불자로서 가져야 할 예절과 기초 교리, 경전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
엔터테인먼트 찬불가, 주말정보, 불교계 일정 등이 상세히 제공되며 향후 벨소리, 게임 등 다양한 재미거리를 제공.
E-Book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불서 정보를 한눈에.
커뮤니티 아이벗 단말기의 필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 (향후 사이버기자, 문화지킴이 등 자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
불교문화삽 온라인 불교 쇼핑몰인 마하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불교 문화상품들의 정보 제공.

http://ibud.buddhapia.com

단한번의 기회!
현대불교신문사가 드리는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최저가 특별보급 2가지

1 현대불교 영구독자 선착순 신청 1,000분께만 특별한 혜택
현대불교신문 평생구독을 신청하시면 89만 1천원의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 을 무료로 드립니다. (평생구독료 62만5천원)
부모님은 평생구독 + 자녀는 스마트폰 아이벗 무료제공, 가입비 3만원 별도, 영구독자료 일시납, 18개월 의무사용

2 초기수납금 없는 최저가 24개월 무이자 할부 보급(월 평균 할부금 24,291)
현대불교신문 기존 독자와 신규독자 그리고 일반가입자분께는 24개월 의무 사용조건으로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 의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MP3·카메라폰과 PDA를 하나로
휴대폰 위의 휴대폰
HP iPAQ rw61 '아이벗'


특별보급가 아이나비 일체형 세트 880,000원 (사은품 1GB SD메모리카드 증정)
일반 구입시, 스마트폰 HPRW6100(891,000원) + 스마트폰용아이나비(484,000원)

구입문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아이벗(I-BUD)사업단 전 화 : 02)735-3034, 737-8881 / 팩스 : 02)738-3034

한글의식집간행…신행혁신

‘자유로운 나 평화로운 세상’ 위한 수행전략 등 발표

조계종 포교원 10년대계, 단계별 계획도

“향후 10년의 포교는 불자 신행혁신과 조계종 핵심신도 양성에 달려 있다.”

‘자유로운 나 평화로운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건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지난 10년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포교 10개년 계획을 1월 26일 발표했다.

별원 10주년을 맞은 포교원이 향후 10년 동안 가장 주력할 일은 불자 신행혁신과 조계종 핵심신도 양성. 이를 위해 수행 플러스 포교전략을 세우고 14개 핵심 포교과제와 단·중·장기 사업 계획을 준비했다. 포교원이 제시한 각종 사업은 총무원 문화·사회부 등과 협력 진행하는 것도 있어 주목된다.

포교원이 내세운 14개 핵심 포교과제는 △신도 정체성 확립 △핵심신도 양성 △신도 교육·수행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법회 의례의식의 개선 및 한글화 △종단 포교 행정 시스템 활성화 △계층·단체간 네트워크 시스템 구현 △포교전문인력의 네트워크화 등이다. 또 △분야별 포교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미디어 포교 활성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청년) 포교 활성화 △중·장년층 포교 전략 강화 △사회·문화 포교 종책 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 △전략지역(신도시, 농어촌 등) 포교 활성화 △국제 포교 활성화 등이다.

포교원이 단기간(1~2년) 전력투구할 과제에서 눈에 띄는 사업은 한글 다비 천도 상용의식집 간행. 2월 중 발간을 앞두고 있는 한글의식집 제작으로 전통의식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개발해 대중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사찰에서 신도 기본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 교육 실시 여부를 주지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신도 기본교육 강화 계획도 밝혔다.

중기(3~5년) 사업에는 신도 정체성 확립방안, 신도 교육 수행 체계화와 위계제도화, 의제 정비, 핵심신도 양성방안, 사부대중 신행공동체 결사 운동, 신도임원 연수교육 체계화와 프로그램 개발, 신도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신도 정체성 확립에서부터 수행 교육체계 정립에 이르기까지 신도 중심의 사업들이 포진하고 있다.

장기(5년 이상) 사업에는 각 분야별 인력 네트워크 구축과 신행형태 연구 등 좀더 깊고 전문적인 연구사업들이 있다. 특히 인터넷 중앙-교구본말사·단체 정보서비스 인력, 언론·방송인, 해외 주요 포교거점 및 인력, 신행상담실 등을 네트워크로 구축,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찰의 유아·어린이·청소년·청년·신도의 평생 귀의체계 연구, 종단 중앙연수원(간화선센터) 운영 등도 포교원의 장기 계획이다.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포교원은 종책을 세우고 교구본사 말사 신도단체가 네트워크를 이뤄 조직적으로 포교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1월26일 열린 제42회 동학사강원 졸업식. 사진=박재완 기자

“배움의 바다 한발 더 나가리…”

전국강원 졸업식 이어져

청암사 강원 졸업식(1월 19일)을 필두로 조계종 교육원 산하 승가교육기관들의 졸업식이 일제히 시작됐다

운문사강원과 운문승가대학원은 21일, 동학사는 26일에 졸업식이 치러졌다. 또 봉녕사 강원과 금강율원, 삼선 강원도 28일에 졸업식을 치렀다.

통도사 화엄사는 2월 21일, 해인사(율원포함) 송광사(율원포함) 백양사 수덕사 법주사는 22일, 범어사 직지사 쌍계사는 23일, 동화사 강원은 24일, 파계사는 3월 5일 졸업식을 연다.

이밖에 통도사 영산율원이 2월 22일, 은해사 승가대학원이 25일, 어산작법학교가 26일에 졸업식을 봉행한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4급 승가고시 3월25일 중앙승가대

조계종 4·5급 승가고시가 오는 3월 25일과 4월 6일 각각 실시된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법산)는 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일정을 확정했다. 고시 장소는 4급의 경우 중앙승가대에서 치러지며, 5급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고시위원회는 또 4·5급 승가고시 예상문제집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지적에 따라 개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명우 기자

올봄부터 3년과정 전문어산학과 신설

조계종 교육원, 이수자에 ‘선원4안거’ 특전

조계종에 불교의식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1월 25일 교육원 회의를 열고 현 2년 과정인 어산작법학교 내에 3년 과정의 전문어산학과를 신설하고 3월부터 수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조계종이 전문어산학과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어산작법학교만으로는 불교의식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어렵고 불교문화를 계승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어산전문학과가 설치됨에 따라 어산작법학교 교육은 2년 기간의 본과과정과 3년 기간의 전문과정으로 강화된다. 불교어산작법학교는 본과(어산과), 작법과, 불전의식과가 있으며, 본과는 2년 과정에 범패, 신중작법, 산주권공 등을, 작법과와 불전의식과는 각각 6개월 과정으로 바라무, 도량석, 각종 시식, 예경 등 제반 의식을 배운다.

이 세 종류의 학과 중 본과는 조계종 스님만 입학이 가능하며, 작법과와 불전의식과는 다른 종단 스님이나 재가자의 수강이 가능하다.

여기에 새로 생기는 전문어산과는 상주권공을 주로 가르치며, 본과를 마친 사람에게만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사실상 불교의식 대학원인 셈이다.

따라서 전문어산학과 졸업자에게는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인 ‘선원 의무 4안거’를 면제받는 특전이 주어진다.

사실 조계종과 태고종을 합쳐 불교의식을 가르치는 공식 기관이 서너 곳에 불과하고 또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배우기도 쉽지 않았던 현실을 감안하면 전문어산학과 설치는 의미가 크다.

현재 불교의식을 가르치는 종단의 공식기관은 조계종의 경우 어산작법학교 한 곳 뿐이고, 태고종에는 국가무형문화재 50호인 영산재보존회 부설교육기관인 범음불교대학과 동방불교대학 범패과, 옥천 범음대학 등 세 곳에 불과하다. 사설학원과 같은 형태의 불교의식 교육기관이 20~30여 곳 정도 되지만 공식기관은 아니다.

태고종 범음불교대학 사무차장 법해 스님은 “적어도 10년은 공부해야만 다소간의 깊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불교의식은 가르치기도 배우기도 쉽지 않다”며 “불교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차원에서 의식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행자교육 최대 2년 연장하자”

조계종 승개추, 여론수렴해 결정키로

현행 6개월의 행자교육 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늘리는 조계종 승가교육제도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조계종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종범·이하 승개추)는 1월 2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기초교육과정(행자교육) 1년-기본교육과정(사미교육) 4년 ▲기초교육과정 2년-기본교육과정 4년의 두 가지 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각종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승개추가 기초교육과정에 대해 두 가지 안을 확정했다는 것은 조계종 승가교육제도 개선방향이 설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안은 현행 행자교육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눈여겨 볼만 하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역시 행자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행자교육을 상설행자교육원에서 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한명우 기자

“화엄사 지킨 선친에 감사”

조계종, 신기남의원에 감사패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사진)이 부친인 故 신상묵씨가 한국전쟁 당시 구례 화엄사를 전소 위기에서 구한 공로로 1월 26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감사패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故 신상묵씨에 대해 “창건주보다 더 큰일을 하신 분”이라고 칭송하며 “후대에게 역사를 바로 인식시키기 위해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주한 교황대사 체릭대주교 법장스님 예방



법장 스님이 체릭 대주교를 반갑게 맞고 있다.

제9대 주한 교황 대사 에밀 폴 체릭(Emil Paul Tscherrig · 57) 대주교가 1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이 “모든 종교는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지만 시비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부처님은 욕심을 버리라고 가르쳤다. 욕심을 버리면 모두가 자유스러워진다”며 불교와 가톨릭이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체릭 대주교도 “예수님도 같은 가르침을 가르쳤다”며 인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남동우 기자

‘성탄트리’ 재발방지 촉구

종평위, 논평발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 이하 종평위)는 ‘서울시 성탄 트리’와 관련해 1월 28일 논평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종평위는 논평에서 “시청광장의 관리는 시청이 하고 사용 허가는 서울시장에게 있지만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서울시민과 국민이 사용해야 하는 사회적 공간”이라며 시청광장 시설물 설치와 허가 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종평위는 또 “이명박 시장과 서울시는 앞으로 시정에 의혹과 의구심이 유발되지 않도록 더 신중하고 공정하게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종평위는 1월 14일 서울시에 ‘성탄 트리 설치’와 관련한 규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서울시는 1월 21일 1월말 이전에 설치물을 철거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었다. 유철주 기자

조직활성·지도자 양성 주력

파라미타 2005년 사업 밝혀

(사)파라미타(회장 원택)가 조직활성화, 지도자양성, 연합캠프 내실화, 특성화 전문화 프로그램 마련, 온라인 사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05년 사업계획을 1월 19일 발표했다. 올해 파라미타는 서울지부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 지역 활동을 고양시키고, 경남 및 강원지부를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파라미타 캠프의 지도자양성을 위해 1월 11일 지도자양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수, 이하 특위)를 구성 발족시키고 지도자 교육 과정 및 단계별 교범 제작에 들어갔다. 일반 지도자용 교범은 상반기, 전문 지도자용 교범은 하반기, 최고 지도자 교범은 내년 상반기 중에 작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파라미타 연합캠프도 내실을 꾀해 불교신행과 관련된 필수과정과 각종 모험활동 등이 포함된 선택과정으로 프로그램을 대상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포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고침 510호 1면 초삼 스님 입적기사 중 다비식이 열린 하동군 ‘낙양면 건봉암’을 ‘악양면 금봉암’으로 바로잡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영산재보존회 옥천범음대학 2005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어 불교 교역자로서 의전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종단을 초월하여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 실기강의

학 년	강의내용	교 수 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과(일용의식)	전수교육조교 이기봉	50명
2학년	각배과	준보유자 김구해	50명
3학년	영산과	전수교육조교 마일운	50명
이 론	불교의식각론	교 수 심만춘	-

2. 응시자격
승려 · 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제출서류 (1)입학원서
(2)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3)증명사진 3매(반명함)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5년 2월 10일 ~ 3월 4일까지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옥천 범음대학 교무처

6. 합격자 발표
2005년 3월 5일

7. 입학일
2005년 3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봉원사 설법전)

8. 특 전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9. 문 의 처
120 - 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옥천범음대 02) 392-3234
종 무 소 02) 392-3007~8 / 팩 스 02) 393-9450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옥천범음대학

“NGO 활동으로 세상 밝힌다”

능인선원 3월 ‘새희망 네트워크’ 발족… 구룡사 ‘붓다월드’ 올 상반기 출범

도심포교에 진력해 온 서울 능인선원과 구룡사가 신도들의 역량을 모아 사회에 기여하는 사찰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을 일주문 밖으로 내딛는다.

능인선원은 빠르면 올 가을 진보와 보수, 인사를 아우르는 시민사회단체 ‘새희망 네트워크(New Dream Network, NDN)’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능인선원(선원장 지광)은 1월 27일 ‘새희망 네트워크’ 관련 간담회를 열고, 3월 중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정 · 재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2백여 명이 참가하는 창립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능인선원과 산하 복지법인이 주도하게 될 새희망 네트워크는 이사회와 정보법률 문화 노동 환경 통일 국제협력 등 12개 상임집행위원회, 아동 · 청소년 · 인종차별 등 10개 전문센터와 총괄사무처를 두고 각 위원회별로 해당 정책 연구 및 개발, 교육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특히 능인선원은 새희망 네트워크의 슬로건을 ‘서로서로 하나로’로 정해 종교를 초월한 ‘범시민사회단체’로 집중 육성해나간다는 운영 밑그림도 완성했다.

능인선원은 이외에도 △불교 NGO단체 재정 지원 △참여연대, 경실련 등과 연대 활동 △관변단체화된 시민단체 감시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우선 기존 능인선원 장학회를 확대 개편, ‘새희망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시민운동가 양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능인선원은 새희망 네트워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재정 · 인력도 지원한다. 자립기반이 없는 창립초기 운영 · 사업 추진비를 전액 부담하고, 후원회원 모집과 수익사업 전개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지광 스님은 “최근 민주화보상심의원회로부터 출가 전 민주화운동경력을 인정받아, 그간 구상만 했던 시민단체 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며 “새희망 네트워크를 사회 갈등을 중도사상으로 해결하는 시민사회단체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룡사(주지 정우)도 올 상반기 중 NGO ‘붓다월드’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해외구호활동에 나선다.

지난해 초부터 해외구호활동을 펼쳐온 구룡사는 이를 전담할 NGO ‘붓다월드’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 1월초 문화관광부에 NGO 등록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붓다월드’는 지난해부터 인도, 네팔, 티베트, 북한 등에 대한 구호활동을 진행해왔다. 공식 출범만 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조직 구성은 물론 기금을 조성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붓다월드’는 구룡사에 사무처를 두고 의료팀을 비롯해 건설팀, 봉사팀, 문화팀 등 팀단위를 기본골격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도들을 중심으로 모집된 회원들을 각 팀에 배치하는 등 조직으로서의 형태를 이미 갖췄다. 또 구룡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와 인터넷방송국, 잡지사, 극단 신시 등도 붓다월드에 귀속시킬 계획이다.

‘붓다월드’는 2003년말부터 구룡사를 비롯해 14개 국내 · 외 구룡사 포교당에 NGO기금 전용 불전함을 설치하는 등 기금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박봉영 · 김철우 기자

스리랑카에 유치원 개원

진각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효암)은 1월 10일 스리랑카 네곰보에 위치한 JGO센터 내에 유치원을 개원하고 지역의 만 6세미만 미취학 아동 50여명을 입학시켰다.

이번에 개원한 유치원은 2000년 7월 진각종이 설립, 컴퓨터 직업훈련을 진행해온 JGO센터강당 중 일부를 개조해 만든 것으로 네곰보 지역 어린이들이 한달에 250루피(한국화 2500원)정도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강진 기자

평불협, 대규모 방북 추진 이사회서 사업계획 확정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회장 법타, 이하 평불협)가 올해 대규모 방북단을 구성해 북한사찰 성지순례에 나선다. 또 재북 작가인 김기만 화백의 작품전시회도 개최한다.

평불협은 1월 28일 오후 6시 서울 성북동 통일법당에서 상반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2005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평불협은 이외에도 금강국수공장 운영을 지속하고 생필품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평불협은 또 결식아동과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통일음악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12월에는 대한민국 통일서예 미술대전을 진행한다. 유철주 기자

“상담자는 바로 보살” 불교상담개발원 세미나

불교상담개발원은 1월26일 공주 마곡사에서 ‘상담자, 내면의 붓다를 만나다’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에서 바라보는 상담자’를 발표한 용타 스님(동사섭 이사장)은 “상담은 이고득락(離苦得樂)을 돕는 불교적인 행위이며, 상담자는 바로 보살이다”라고 주장했다.

윤호균 교수(가톨릭대 심리학과)는 “상담을 통한 자비의 경험은 참 존재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지율스님 단식 일지

지율 스님의 생명이 위태롭다. 지율 스님의 단식은 1월 28일 현재 93일째로 100일 가까이 진행되면서 정신적 육체적인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 지율 스님의 어머니 임옥달(71)씨도 1월 27일부터 청와대 앞에 나와 도롱뇽을 접으면서 “내 딸이 죽으면 함께 죽겠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지율 스님의 천성산 지키기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짚어본다.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 금정산 천성산 구간 노선백지화 및 재검토 공약**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민정수석 등과 함께 부산을 찾아 경부고속철도의 금정산 천성산 관통을 전면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제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것은 불교계 10대 공약에도 명기돼 전향적인 해결이 가능한 듯 보였다.

2003년 2월 5일 **공약이행 촉구 부산시청 앞 1차 단식 돌입(38일간 진행)**

그러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아무런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지율 스님은 부산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38일간 단식을 진행했다. 3만 명이 넘는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범불교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청와대는 문재인 수석을 보내 재검토를 약속했다.

2003년 9월 **정부 천성산 관통 노선 확정**

정부의 약속은 계속 파기됐다. 재검토 약속은 사라지고 정부는 천성산 노선 확정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2003년 10월 5일 **부산시청 앞 2차 단식 돌입(45일간 진행)**

지율 스님은 또 시청 앞에 자리를 잡았다. 주위의 우려와 비난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꿋꿋하게 단식을 이어갔다. 조계종과 정토회 등이 20만 명의 도롱뇽 소송인단을 모집하기로 하고 2차 단식을 회향했다.

2004년 6월 30일 **청와대 앞 3차 단식 돌입(58일간 진행)**

공사가 계속되자 지율 스님은 청와대 앞으로 왔다.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58일간 계속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도롱뇽 시민행동’을 결성해 지율 스님을 외호했다.

2004년 8월 27일 **정부 천성산 공사 중단 및 환경영향 재조사 약속, 지율 스님 단식 해제**

문재인 민정수석과 곽결호 환경부 장관이 지율 스님을 찾아와 천성산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을 재조사하기로 약속했다. 지율 스님은 이에 단식을 해제 하고 천성산으로 돌아갔다.

2004년 10월 27일 **환경부 환경영향공동조사 약속 번복에 4차 단식 진행, 1월 28일 현재 94일째.**

그러나 ‘천성산 공사중단, 환경영향 재조사’를 담은 합의서에 서명하기 무섭게 환경부는 딴 짓을 하기 시작했다. 전문가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환경부는 3일간 독자적으로 천성산을 둘러본 뒤 “문제없다”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율 스님은 다시 단식을 시작해 1월 28일 현재 94일에 이르고 있다. 유철주 기자

전국서 ‘자비의 탁발’

남아시아 돕기 부산 · 대구 등서 잇따라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민들을 돕기 위한 ‘자비의 탁발’이 계속되고 있다.

속초 신흥사(주지 마근)는 강원도내 불우이웃 및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민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운동을 1월 26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전개했다. 신흥사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모금활동을 벌여왔으며, 올해는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민 돕기도 겸해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 범어사 본말사 사찰과 신도회도 1월 26일 ‘자비의 탁발’을 실시했다.

이날 탁발에 앞서 부산역 광장에서 가진 법회에서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서로 나누며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성금모금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예산 수덕사(주지 법정)도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돕기를 위한 자비의 탁발 행사에서 모은 7000만원을 1월 28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전달했다.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은 “견성암 선방 스님을 비롯해 대중 스님들이 가가호호 직접 방문해 탁발을 했다”며 “탁발을 하면서 지역 인심이나 지역 내 불교계 단결력을 알 수 있는 계기도 됐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도 지진해일 피해민을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졌다.



대구 파계사 사부대중이 칠성시장에서 거리탁발을 하고 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스님과 신도 3,000여명은 1월 22일 3개조로 나눠 대구 백화점앞, 칠성시장, 대구역 등 대구도심에서 자비의 탁발을 실시했다.

영남불교대학 신도들은 자비의 백등 모금함을 저마다 들고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남아시아 지진피해 구호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파계사 율원장 철우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불자 50여명도 1월 24일 대구 칠성시장 앞에서 반야심경과 발원문을 봉독한 뒤 칠성시장 곳곳을 다니며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을 전하며 남아시아 피해민 돕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한명우 · 천미희 · 남동우 · 배지선 기자

회원 중심 대불청 만들자

중장기 계획 수립 등 2005 사업 발표

대한불교청년회가 ‘불청의 현실적 비전과 좌표 설정’ ‘단위 조직 활성화를 통한 불청의 미래 개발’ ‘불청 중흥을 위한 역량 강화’ ‘회원이 중심이 되는 불청 건설’을 2005년 목표로 선언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사업계획을 1월 23일 조계사 교육관 4층에서 열린 제4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발표했다.

분야별 사업을 살펴보면 불청TFT워크숍을 통한 ‘불청 중장기 계획’ 수립, 불청 정체성 진단 포럼 개최, 중앙사무국 조직개편, 제24차 전국불교청년대회, 정관 개정, 전국순회법회, 신규 지회 발굴, 사고지구 복원, 1지회 1문화재보호활동, 불청인 집중 거리포교의 날 제정, 청소년 지도사 지원 및 교육, 통일 템플스테이, 만해문화대학, CMS 회원 500명 확보, 불청 100주년 기념관(회관) 건립 추진위 창립 등이다.

강지연 기자

연구소 개소·노인취업 주력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노인복지센터가 고령화 사회 노인문제의 학술적 방안을 모색하는 ‘(가칭)활기찬미래연구소’를 5월에 개소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는 1월 25일 3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활기찬 미래 연구소 개원을 비롯해 빈그릇 운동, 노인식단 레시피 발간, 시니어 수첩 발간 등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활기찬미래연구소(가칭)는 현장경험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연구 결과를 도출해 사회복지 자료제공과 네트워크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연구진은 2월 중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자문교수들 10여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김강진 기자

‘내 안의 부처님을 보라’ 봉은사 을유년 선지식 초청법회


지관스님 성우스님 정락스님 활안스님 정무스님 월운스님 혜인스님 정념스님 혜남스님 명진스님 고우스님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혜)에서는 정초를 맞이하여 ‘내 안의 부처님을 보라’ 라는 주제로 을유년 선지식 초청법회를 봉행합니다.

선지식(善知識)이란 수행자들의 스승을 이르는 말이며, 중생에게 나쁜 업을 버리고 선한 업을 쌓게 하는 이를 가리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을 인도하여 지혜의 문으로 들게하는 수레이며 배이며 횃불이며 길이며 다리’가 되는 선지식을 초청하여 중생들을 섭수하여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선지식 : 《화엄경》에 나오는 선재동자(善財童子)는 문수보살을 선지식으로 삼고 53선지식을 만나, 결국 자신도 보살이 되었다. 선재동자가 여러 선지식을 만나는 이유는 선지식이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실천하는데 본보기가 되고, 수행자의 모범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53은 인간이 성불하는 단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초청법회 일정

회차	일시	음력	초청법사	이력	비고
1	1월 16일(일)	12. 7	지관스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성도재일주간
2	1월 23일(일)	12. 14	성우스님	불교텔레비전 회장	일요법회
3	1월 30일(일)	12. 21	정락스님	용주사 주지	일요법회
4	2월 11일(금)	1. 3	활안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정초 7일
5	2월 12일(토)	1. 4	정무스님	안성 석남사 회주	정초 7일
6	2월 13일(일)	1. 5	월운스님	동국역경원장	정초 7일, 일요법회
7	2월 14일(월)	1. 6	혜인스님	단양 광덕사 회주	정초 7일
8	2월 15일(화)	1. 7	정념스님	월정사 주지	정초 7일
9	2월 16일(수)	1. 8	혜남스님	전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정초 7일
10	2월 20일(일)	1. 12	명진스님	조계종 민추본 본부장, 봉은사 선원장	일요법회
11	2월 27일(일)	1. 19	고우스님	봉화 각화사 선덕	일요법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 / 문의 : Tel (02)3218-4811~5 대한불교조계종 봉 은 사

경전 읽는 시간 일주일 평균 19분

한미준 · 한국갤럽 공동 조사결과

최근 6년간 불교 인구는 다른 종교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포교 및 신행활동은 오히려 상당히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대표 이동원 지구촌교회 목사 · 이하 한미준)'이 1월 25일 발간한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두란노)〉에서 밝혀졌다.

한미준이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1개월간 6대 도시 만18세 이상 개신교 · 비개신교인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신교인 및 비개신교인 조사'와 지난해 7~10월 전국(제주 제외)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6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 현황 파악을 위한 옴니버스 조사' 등을 종합 정리한 결과, '불교' 26.7%, '개신교' 21.6%, '가톨릭' 8.2%로, 한국 사회에서 불교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자 6년 전 비해 3.2% 증가

98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불교는 대폭 증가(+3.2%)한데 비해 개신교는 0.9%, 가톨릭은 0.7%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불교는 20대 이하와 50세 이상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개종/믿음 의향을 밝힌 응답자들이 밝힌 희망 종교도 '불교'가 35.6%로 가장 높았다. 비종교인의 희망 종교 또한 불교 36.6%, 개신교 35.0%, 가톨릭 24.4% 순이었다. 98년 조사와 비교에 보면 불교(-4.7%)와 가톨릭(-11.6%)으로의 개종/믿음 의향이 감소한 반면, 개신교(+11.8%)는 대폭 상승했다.

특히 개종/신앙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16.4%)가 남자(10.0%)보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14.7%), 가정주부(16.7%), 무직/기타(17.8%)에서,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27.3%)에서 높았다.

포교로 법회 참석시킨 경험 8.2%

하지만 지난 1년간 누군가에게 포교 · 전도해 종교 예식에 참석시킨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불교인은 8.2%로 개신교인(26.4%)과 가톨릭인(11.6%)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히 98년에 비해 불교의 최근 1년간 포교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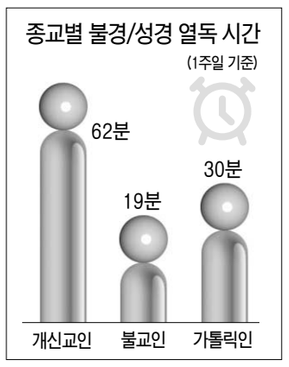
또 지난 1주일 법회/예배/미사 참석률은 불교인 17.5%로, 개신교(81.4%)와 가톨릭(59.8%)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개신교인은 월평균 12만5600원, 가톨릭인은 5만9700원을 교회/성당에 기부하는데 비해, 불교인은 3만1400원을 법당에 기부했다.

불교인 83.9%는 평소 불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일주일 평균 불경 열독 시간도 개신교인 1시간 2분, 가톨릭인 30분에 비해, 불교인은 19분이었다. 98년에 비해서도 불경 열독 시간은 10분 감소됐다. 불교인 54.0%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없었고, 1일 평균 기도 시간 또한 개신교인 27분, 가톨릭인 18분에 비해 불교인은 13분에 머물렀다.

불자 59.0% "나는 보수적"

불교인은 현재 다니는 사찰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가족이 다닌다(37.6%)' '거리가 가깝다(19.2%)' '설법이 좋아서(11.9%)'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9.9%)' '크고 유명하다(4.5%)' 순으로 꼽았다. 개신교 및 가톨릭과 비교하면 '거리' 요인은 매우 낮았으며, '종교 지도자' 요인은 개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크고 유명한' 법당을 찾는 경우는 개신교와 가톨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불교 인구 증가 불구 불교 활동은 뒤쳐져
타종교 비해 불교 기복성향 강해
'하루중 기도시간 없다' 불자 54%



불교인 15.8%가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개신교 7.1%, 가톨릭 4.5%)고 답해 기복적 요소가 타 종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 결과 불교인 59.0%가 보수적이라고 답해, 개신교 52.5%, 가톨릭 58.0%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57%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98년 조사(52.8%)에 비해 4.2% 증가했다. 98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남자 18~24세 연령층(+11.7%)과, 여자 25~29세의 연령층(+8.7%)에서 10% 내외로 종교인구 비율이 증가해 젊은층에서 종교인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청불회장? 나는 곤란한데…"

새 집행부 구성 못해 고민중
'어렵고도 고된 감투' 회장직 꺼려
청와대 안 불자 적어 '인재난'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주 영국 대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회장이 공석이 된 청와대불자회가 새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청불회는 1월 26일 서울 길상사에서 조윤제 회장의 송별회를 겸한 정기법회를 열고 새 집행부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차기 회장감을 찾지 못해 집행부 구성도 2월 중순께로 미뤄졌다.

청불회는 지금까지 전임과 후임 회장이 나란히 이 · 취임식을 갖는 일이 한번도 없었다. 박준영 前 공보수석과 김상남 前 복지노동수석이 대표적인 예다. 조윤제 前 경제보좌관도 새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청불회장직을 물러났다.

이는 갑작스런 인사발령 탓도 있지만, 청불회장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주위의 시각이다. 청불회장이 청와대와 불교계를 연결하는 비공식적인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장이 갖는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불교계 사정에 밝은 청불회장이 불교관련 현안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청와대의 구조적인 문제도 청불회장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불회장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식적인 직책 외에 또 하나의 짐(?)을 떠 안을 수 밖에 없고, 청와대 내에서 '청불회장은 어렵고도 고된 감투'라는 인식이 은연중에 자리잡아 회장직을 꺼리는 한 원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청와대 안에 불자 직원이 소수인 것도 인재난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한 청불회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알찬 활동을 하고 있는 청불회의 활동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서 불교문화 진수 선보인다

세계적 출판박람회인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직지심경〉과 〈팔만대장경〉 '북지장사 지장도' 등의 빼어난 한국불교 문화의 아름다움과 인쇄문화의 진수를 선보인다.

올해 10월 19~23일 열리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조직위원회(위원장 김우창 · 고려대 명예교수)는 1월 26일 주빈국전시관 행사를 비롯해 25가지의 주요 문화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주빈국을 맡은 이번 도서전에는 '조선시대 불교회화전-영혼의 여정' '한국의 옛 인쇄문화' 등 불교문화를 이용한 문화행사들이 다양하게 마련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북지장사 지장도' 등을 비롯한 3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는 '조선시대 불교회화전'은 불교회화에 나타난 종교적 이상과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주관하는 이 전시는 프랑크푸르트 시립 공예박물관에서 열린다.

특히 청주 고인쇄박물관과 독일 쿠텐베르크 박물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의 옛인쇄문화'는 〈직지심경〉과 〈팔만대장경〉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인쇄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 전시는 프랑크푸르트 통신박물관에서 열리며 전통한지 제작과정 소개와 관련 심포지엄도 함께 개최된다. 이밖에도 조직위원회는 '선(禪) 체험관' 등 우리나라 선 수행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여성불자 교육 · 네트워크 강화

불교여성개발원, 2005 사업계획 발표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 여성불자들의 교육과 네크워크 형성을 통해 여성 지도자 발굴과 육성, 발전기금 조성 등에 적극 나선다.

1월 25일 불교여성개발원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불교여성학 논문공모와 불교여성아카데미 설립, 행복한 가정 지원센터 등을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1차 불교여성학관련 논문공모는 1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원고를 모집하며 11월 10일 당선작을 발표한다. 공모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당선자에게 최대 240만원의 연구비가 주어진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이밖에도 10월에 제4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해 종교 간의 정보교류와 불교여성학의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불교여성아카데미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지속적으로 펼친다. 7월까지 다양한 분야의 여성불자 108명을 선정하는 한편, 이들이 지속적으로 여성불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여성불자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불교여성개발원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불교의 여성관, 역사속의 여성불자, 승만경 등의 강좌와 불교여성지도자의 리더십 개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한편,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해 왔던 '혼인준비교실'은 올해부터 여성부의 지원으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올해부터는 혼인에서 노년까지 창가 대상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인숙 원장은 "문화공연을 포함하는 후원행사 등을 통해 불교여성개발원의 사업을 널리 알리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새만금 법정 공방 불가피

정부, 법원에 이의신청 방침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이 제시한 새만금 사업 조정권고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거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위원회 구성과 토지이용계획 마련에만 2, 3년이 걸려 사업 자체가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거부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녹색연합 김혜애 정책실장은 "조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정부가 더 이상 환경문제를 대화로 풀지 않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반환경적인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철주 기자

목탁소리

'가산'으로 모이는 원력들

불교학은 어려운 길이다. 공부도 어렵지만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 몇 안 되는 연구소들조차도 겨우겨우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지관)은 예외다.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및 연구 환경은 국내 어느 사설연구소에 뒤지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은 원장 지관 스님의 원력과 꾸준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인재들,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경영능력, 결과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등이 선순환적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는 최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에 이어 범어사 학장 무비스님 등이 불교대사림 편찬 사업을 위한 보시금을 잇따라 전달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는 원로 석주 스님과 동춘스님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조만간 〈불교대사림〉 제7권이 나온다. 본책이 13권(총15권)이 나올 예정이니 이제 반환점을 돈 셈이다. 1991년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설립과 더불어 본격적인 편찬 작업에 들어간 지 14년, 첫 권이 나온 지 7년 만이고, 앞으로 7~8년은 더 걸려야 완간될 참으로 큰 불사가 아닐 수 없고, 이것은 불교계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하는 일이다.

불교학으로 박사를 받고 나면 갈 곳이 없다고들 한다(본지 505호 1면 기사 참조). 제2, 제3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생겨나기를 기대한다.

박익순 기자

금강불교대학 2549(2005) 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본 대학은 국내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으로써 한국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하는 천태종 종립교육 기관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 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학과과정	지역 (기수)	교육년한	교 과 목	교 육 일 시	지 원 자 격	특 전
불교학과	초급과정	1 년	신행입문, 원시불교, 불교학개론, 불전이해, 불교경전개설	매주 월요일 1교시 :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 오후 8시 00분 ~ 90분간	*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수료 후 중급반 진학 자격취득
	중급과정 (서울22기, 부산17기)	1 년	한국불교사, 법화경요해, 대승불교사상, 천태지관, 유마경, 반야사상	매주 화요일 1교시 :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 오후 8시 00분 ~ 90분간	*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졸업 후 교법사과정 진학 자격 취득
교법사과정	서울(12기) 부산(12기)	1 년	정토사상, 금강경, 포교방법론, 화엄학, 기신론 비교종교, 밀교사상, 천태종학, 열반경	매주 수, 목요일 1교시 :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 오후 8시 00분 ~ 90분간	① 본교 중급과정 졸업자 또는 ② 불교전문 교육 2년 과정의 수료자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 졸업 후 별도 시험 과정을 통하여 종단내 교법사 선발

학 과	모집정원	제 출 서 류		면 접 일 시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료	전형방법	입학식
불교학과	서울 · 부산 각 120명	초급과정	가. 입학원서 1부(본교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통 다. 반명함판사진 4매(원서용포함)	*서울 : 2005년 2월 24일 오후6시 *부산 : 2005년 2월 22일 오후6시	가. 기 간 : 2004년 11월 20일~ 2005년 2월 16일 오후 4시까지 나. 접수처 : 서울,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원서료 : 5,000원	가. 1차 서류 나. 2차 면접	*서울 : 2005년 3월 6일 오후 6시 *부산 : 2005년 2월 28일 오후 6시
		중급과정	가. 중급과정 지원서 1부 나. 사진 2매	서류전형				
교법사과정	서울 · 부산 각 50명	가. 교법사과정 지원서 1부 나. 사진 3매		서류전형				

【서울 금강불교대학】
서울 교무과 02-576-6401 신촌성룡사 02-336-2052 봉천동명락사 02-889-7272 강동구강사 02-479-4450
망우동삼룡사 02-496-3839 구로명화사 02-854-0196 분당 대광사 031-715-3000 인천황룡사 032-873-0747
수원 용광사 031-255-4105 성남화성사 031-745-1482 안양 대안사 031-459-3666 평택법장사 031-655-9090
구리 금성사 031-563-9364

【부산 금강불교대학】
부산교무과 051-808-0730 마산삼학사 055-244-6464 포항황해사 054-277-3611 김해해성사 055-336-3585

【춘천 금강불교대학】 033-253-6542 【대구 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울산 금강불교대학】 052-277-7211
※춘천, 대구, 울산 금강불교대학의 수업일시는 각 대학으로 문의바랍니다.

◆서울 금강불교대학 ◆부산 금강불교대학 ◆춘천 금강불교대학 ◆대구 금강불교대학 ◆울산 금강불교대학

◆ 면접 후 개별통보

◆서울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내 2층 Tel : 02)576-6401~2 FAX : 02)574-1541
- 양재역 성남방면 7번출구 마을버스 18(05), 19(06)번 버스 (LG연구소 • 우면APT에서 하차)
- 강남역 6번출구 4417(414)번 버스

◆부산 :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131번지 삼광사내 Tel : 051)808-0730,0713 FAX : 051)819-7654
- 어린이대공원 인접지에 위치함

이재창-금강불교대학학장 김영태-동국대명예교수 리영자-동국대명예교수 권기종-동국대교수 서윤길-동국대교수
장충식-동국대교수 김상현-동국대교수 이봉춘-동국대교수 조용길-동국대교수 박경준-동국대교수
김용표-동국대교수 권탄준-금강대교수 지창규-동국대교수 최종석-동국대교수 허경구-동국대교수
최봉수-동국대교수 김승일-국민대교수 은정희-서울교육대교수 최기표-동국대교수 정성준-동국대교수
오지연-동국대교수 김은희-동국대교수

대한불교 천태종 금강불교대학

얼쑤! 흥겨운 불교 "무량하여라~"

■ 하와이 무량사 창건 30주년, 문화원 개원 기념행사 풍성



1월 21일 열린 김덕수 사물놀이패 공연에 환호하는 불자들. 감탄과 환호로 가득찬 법당은 감동의 무대였다.

사물놀이 · 한지공예전 · 다도체험 등 호응
현지인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
8월 중순 국제세미나 개최, 미주포교 점검

"얼쑤! 지화자!" "얼씨구! 좋다!"

저 멀리 와이키키 해변이 내다보이고 등뒤로 보타산이 펼쳐있는 아름다운 풍광의 하와이 호놀룰루 팔롤로 밸리. 이 언덕에 고즈넉히 자리잡은 한국사찰 무량사에서 흥겨운 사물소리에 맞춰 한국말 추임새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1월 21일 오후 무량사 4층 설법전. 꽹과리, 징, 북과 피리의 신명나는 가락과 김덕수사물패의 흥겨운 몸놀림에 설법전을 꽉 채운 관중들이 연신 박수를 치며 미리 김덕수씨에게 귀띔받은 추임새를 능숙하게 넣었다. 고수가 빠른 속도로 북을 칠 때에는 빠른 박수로 장단을 맞추고 상두를 돌리면서 원을 그리며 뛸 때에는 감탄과 환호가 잇따랐다.

열기가 갈수록 더해져 삼존불 세 분 부처님과 후불탱화의 불 · 보살님들의 눈길까지 공연에 모아지는 듯 했다.

무량사(주지 도현)가 창건 30주년을 기념하고 한인노인요양원 건립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사물놀이 공연은 2시간동안 비나리, 승무, 판굿으로 진행됐으며 관중들까지 춤추며 동참한 강강수월래로 막을 내렸다.

강강수월래에서 누구보다도 멋진 어깨춤을 춘 데보라 매스터슨(Deborah Masterson)은 "흥겨운 가락에 완전히 몰입됐다. 공연을 보고난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데보라는 1993년 열린 월드페스티벌에서 한국무용을 처음 접하면서 한국춤에 푹 빠져 무량사 사물놀이 공연포스터를 보고 일부러 찾아 왔다고 했다.

이날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보러온 이민교포 2세 에스더 탁(Esther Tak) 양. 초등학교 6학년생인 에스더는 "너무 재미있다! 사물놀이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하와이 무량사가 창건 30주년을 맞아 20년에 걸친 불사인 문화원을 준공하고 앞으로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겠다는 포교 원력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행사를 새해를 맞아 잇따라 열었다.

1월 2일 문화원 건물 4층 설법전에서의 삼존불과 후불탱화 삼천불사 점안법회가 시작이었다.

여법하게 부처님을 모신 후 14일에는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의 후원으로 명원다도원이 개원됐다. 누구나 부담없이 들러 차 한잔을 마시며 삶을 되돌아보는 공간, 한국의 차문화를 널리 알리고 다선일미의 세계까지 느끼도록 배려된 곳이다.

14일 다도원 개원식에는 300명의 '예비 차인'들이 몰려 한국차의 심오한 맛을 느꼈으며, 서울시 궁중다례 인간문화재인 김의정 이사장이 24~28일 직접 한국 차 특강도 했다.

무량사는 다도원에 차 사범을 두어서 차를 우리고 마시는 체험과 차와 관련된 예절을 배울 수 있는 다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다도원 개원과 함께 문화원 3층 전시관에서는 한지예술전도 열렸다. 8일동안 열린 한지전에는 한지공예가로 이름높은 김경씨와 문하생들의 작품 1백여점이 선보였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장삼과 서태지, 배용준, 신영옥씨 등 유명인들이 입었던 옷들이 그대로 한지로 재현돼 눈길을 끌었다. 우리 종이와 천연염색이 갖는 아름다움과 독특한 창조성이 보는 사람을 압도했다. 전시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이것이 종이 맞느냐?"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얼씨구! 좋다!" 사물놀이패와 어우러져 한바탕 어깨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무량사 신도들과 현지인들.

무량사는 20년동안 숙원불사이던 문화원을 드디어 준공하게 된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한국전통문화를 알리는 전시회와 공연, 음악회, 세미나, 교육 등을 연중으로 실시해 문화를 통한 포교에 적극 나선다. 도현 스님은 "오는 8월 김덕수 선생을 모시고 3주간 정도 신도들에게 풍물을 교육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체적으로 사찰 사물놀이팀을 만들어 하와이에서 벌어지는 거리행사나 사찰행사에 동참해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고 교포들에게는 우리 가락을 익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차특강과 다례회도 열며, 꽃꽂이 강습회와 함께 범패를 서양음악과 접목시켜 현지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미주전법 40주년(2004년)을 계기로 미국 캐나다 남미를 잇는 미주포교 전진기지로서의 하와이 무량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와이만 해도 불교신자가 10만명이 넘는다. 한국불교의 세계화가 종단 차원에서도 본격 추진되고 있는 만큼 종단 안팎에서 기대하는만큼의 역할을 하기 위한 원력을 새롭게 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량사는 포교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계종단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주포교를 점검하는 국제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오는 8월 11~14일 열리는 '해외포교(미주포교)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국제세미나에서는 로버트 버스웰, 루이 랭카스터 등 한국불교에 밝은 학자들이 대거 초청된다. 40주년을 맞은 미주포교를 점검하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집중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 창건 30주년을 맞은 무량사는 문화원 준공을 기념하고 노인요양원 건립을 준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법회를 9월 24일로 잡아놓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 한국불교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가운데 치러질 창건 30주년 및 문화원 준공법회와 싯달타 대학 개교식은 미주포교의 전진기지를 자임한 무량사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힘찬 첫 걸음이 될 것이다. (808)735-7858

글 · 사진/하와이 무량사 =이경숙 기자



무량사 상설전시관에서 열린 한지예술전.



무량사 명원다도원 개원식에서 다도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지인들.



무량사 명부전에서 위빠사나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들.



인 터 뷰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

"한인불자 결집으로 전법당간 높이 세울 터"

"무량사 문화원은 미국내 한인불자들을 결집시키고 우리의 수준높은 예술을 알리는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무량사는 1985년부터 문화원 건립을 추진해 왔지만 인근 주민과의 송사, 재원부족 등 어려움이 중첩돼 준공이 미뤄졌다가 20년만인 올해 드디어 숙원을 풀게 됐다.

도현 스님은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한국이, 전세계에 영향력이 가장 큰 미국에 빨리 문화원을 마련해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한 불교 포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불교, 차, 범패 등을 본격적으로 교육하는 4년제 학부과정과 2년제 대학원 과정이 개설될 싯달타 대학을 개교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싯달타대학 · 한국선방 윈-윈 효과 기대

스님은 "싯달타 대학은 한국불교의 선과 교학을 가르치는 대학으로 차별화 · 전문화시켜 현지인들에게 한국불교 전문화대학으로 자리매김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 포교대상인 교포 2 · 3세와 현지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기란 쉽지 않은 일. 그래서 가장 거부감이 없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를 매개체로 해야 한다는 구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스님은 문화원이 준공되면 영어법회와 참선법회도 정기적으로 열겠다고 했다.

도현 스님은 한인노인요양원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역설한다.

"여기 한국노인불자들이 병에 걸리면 갈 수 있는 요양원이 없어요. 치매노인을 받아주는 곳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인요양원 한 곳이 있고 노인병에 걸리면 일반양로원에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노인들은 부처님 사진을 안고 기독교요양원에 들어갑니다."

무량사는 요양원을 짓기위해 절 근처 민가 두채를 사놓았다. 은행대출을 받았기에 그 대출이자 갚기가 버겁다는 스님은 그래도 "절 초창기부터 불사에 동참하고 일궈온 노보살들이 병든 몸을 부처님께 의탁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게 무량사의 의무"라고 말했다.

아직도 무량사는 곳곳이 불사중이다. 때로는 목수로, 때로는 청소부로, 때로는 운전기사 등 '무량사 머슴'을 자처하며 눈코뜰새 없이 바쁜 도현 스님은 무량사 태평선원에서 동안거중인 10명의 정진수좌들을 외호하는 일이 가장 보람있다고 말한다.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www.njutcm.co.kr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 대학 졸업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5명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2. 주지스님, 지도교사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2월 18 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6. 남경중의약대학 교류 연혁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 원광대 ·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분교

· 1995년 1월 20일	학장 혜인 스님 남경중의약대학 방문 상호교류 및 자매결연 협의
· 1995년 7월~2000년 12월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1차~14차)
· 1995년 8월 19일~8월 25일	남경중의약대학 총장 일행 방한
· 1995년 10월 25일	南京中醫藥大學 漢語 分校설립, 분교장 취임 이병용(李秉鎔. 한의사) 명예박사학위 취득
· 1996년 8월 21일~8월 30일	남경중의약대학 국제교육학원 교직원 방한 (中國 江蘇省 教育委員會 永鎭, 國際教育學院長 楊公服, 教務處長 惠紀元, 國際交流服務中心 總經理 丁雲南)
· 1996년 12월 5일~12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項平 총장 방한
· 1997년 8월 10일~8월 15일	남경중의약대학 項平 총장 방한
· 1999년 9월	본교 중국어과 5명 본과 입학
· 2000년 9월 9일	본교 중국어과 11명 본과 입학
· 2000년 11월11일~11월17일	남경중의약대학 王玲玲 院長, 徐恒 院長 訪韓
· 2001년 3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28명 본과입학
· 2002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3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4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4년 11월	중국 국가의사고시 7명 합격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군위사암련, 합창·봉사·산행단 창단

작지만 알차다

문화재 보호, 찬불가 보급 등 활동
'불교로 국민생활 바꾸기운동' 펼쳐

인구 3만4천의 작고 조용하던 군위지역 불교계가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 봉사 활동을 시작하는 신호탄을 터트렸다.

군위사암연합회(회장 상인)는 1월 29일 군위불교교양대학 2기 수료식을 맞아 군민회관에서 군위불교연합 합창단, 봉사단, 산행단을 창단하고, 군민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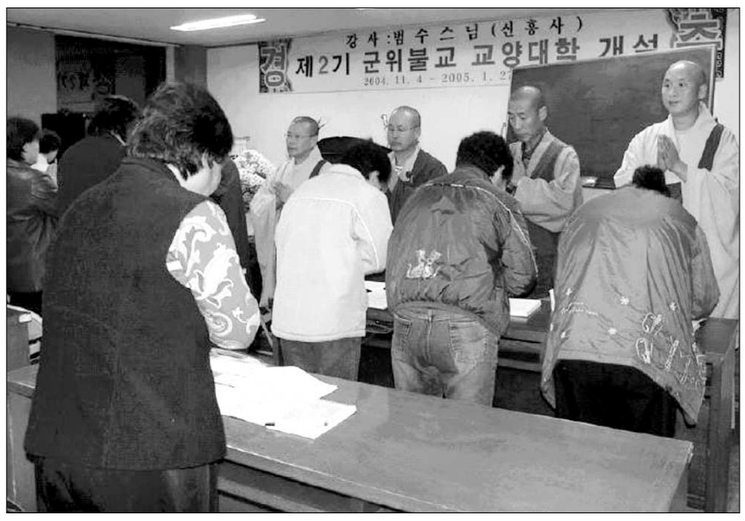
군위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지역불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봉행된 불교교양대학 수료식 직후 신행단 창단 경과보고와 선서만으로 치러진 조촐한 행사였지만 농업 인구, 노인 인구가 주를 이루는 소규모 군 단위 지역에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는 행사였다.

이날 창단식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합창단, 봉사단, 산행단의 회원 수는 각 20여 명. 결코 많지 않은 숫자지만 각 신행단체의 활동 계획은 알차다.

지역에 산재한 불교문화재를 찾아내고 정비, 보호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산행단(단장 장점수, 인각사)은 가족들과 더불어 산행하는 즐거움과 함께 지역 불교문화재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합창단(단장 임말숙 · 지보사)은 각종 행사 때마다 찬불가 음성 공양을 담당하며 가요교실을 열어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찬불가 보급을 통한 포교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봉사단(단장 이숙자 · 동림사)은 군위지역이 국내 3위 고령화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에 주력하게 된다.



군위불교가 지역민과 함께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은 군위불교교양대학 개설법회 모습.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모두 도시로 나가 독거노인이 많고, 손자와 단 둘이 사는 노인들도 많기 때문이다. 독거노인을 위한 후원이나 도시락 반찬 배달 등을 계획 중이다.

이날 창단식으로 군위 불교의 '씨앗 심기'에 나선 군위불교연합 신행단은 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기본소양교육과 목적활동에 동참하면서 불교로 군민들의 생활을 바꾸는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새로 창단되는 신행단의 지도법사를 맡은 범수 스님은 신흥암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군위로 와 위축된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종단과 교구에 관계없이 군위사암연합회 차원의 군위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해 지역 불교 힘 결집에 노력해온 스님은 실천 방법을 찾아나가기 위해 신행단 창단을 제안하고 변화의 첫 단추를 끼운 장본인이다.

스님은 "지역불자들의 기대도 크다. 그동안 배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기뻐하는 불자들과 함께 군위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는 불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위=배지선 기자

총금강회 회장 취임법회



진각종 제7대 총금강회 이상귀 회장의 취임식이 1월 22일 대구 진각문화회관 7층에서 열렸다(사진).

통리원장 효암 정사는 축사를 통해 "종조께서 남기신 창종 이념을 잊지 말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스승과 신교도 따로 없이 승속이 하나 되면 종단이 발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국금강회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여 신교도 지도자교육과 포교와 복지활동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밝히고 "일치단결 한마음으로 신교도 배가운동에 매진하자"고 외쳤다. 배지선 기자

향곡선사 열반 추모법회



부산 묘관음사(주지 혜원)는 향곡선사 열반 26주기 추모법회를 향곡스님 부도탑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날 추모법회는 문도 대표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을 비롯 혜오 스님, 대해 스님, 혜운 스님 등 1백여 명의 문도 스님들과 3백여 명의 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다.

진제 스님과 문도 대표 스님들의 분향, 대중 일동 삼배, 길상 다도회의 헌다, 신도대표 헌화, 천수다라니 봉독에 이어 향곡 선사의 육성 법문, 문도대표 인사 순서로 진행된 법회에서 진제 스님은 "향곡 선사의 바른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도량에서 더욱 정진하여 불법의 대의를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청주사암련회장 각의 스님 취임



제 10대 청주불교사암연합회장 각의 스님(용화사 주지 · 사진) 취임법회가 1월 25일 충북불교문화회관에서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청주지역 사찰 및 신행단체 연합체인 청주불교단체협의회 신년교례회를 겸해 열린 이날 취임법회에서 각의 스님은 "신도들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등을 통해 친숙하게 다가가는 불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범어사 불무도 캠프 개최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는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초등학교 3-6학년까지 어린이 명을 21명을 대상으로 불무도 어린이 캠프를 실시했다.

27일 오전 10시 입재식을 봉행하고 사찰 기본예절 교육에 이어 불무도 기본 교육으로 이어진 불무도 어린이캠프는 금강선원, 양산 금강사에서 불무도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안도 스님의 지도로 이뤄졌다.

범어사 총무부국장을 맡고 있는 안도 스님은 불무도의 도량인 범어사 청련암 양익 스님으로부터 불무도를 전수받아 경상대학 경찰경호행정과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안도 스님은 "이론 수행이 아닌 실천 수행인 불무도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수련할 수 있는 수행법이자 현대인들에게는 최고의 건강 수련법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어린이들에게 잠재된 무한한 능력을 일깨워주는 캠프"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여성장애인 건강 프로그램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여가문화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well-being club'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well-being club'은 여가문화와 건강증진, 가족기능강화라는 큰 테마 속에서 여성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well-being club'은 여성장애인들에게 년9회 기행을 통해 사진을 찍고 연말에 전시회도 개최하는 사진여가문화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가족캠프를 통해 가족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표현력과 의사소통기술 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054)776-7522~5 배지선 기자

전광판으로 지역민과 '의기투합'



부산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입구에 설치된 전광판 모습.

두송복지관 직원들 포상금 이용자들에 회향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두송종합복지관(관장 지현)에 들어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전광판 글씨가 빛을 발하며 이용자들을 반긴다.

이 전광판은 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연말에 지급된 포상금을 각출, 복지관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설치한 것이어서 훈훈함을 더한다.

2003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된 두송복지관은 2004년 연말, 그동안 지역민들의 복지 증진에 힘써온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고 그 포상금을 받은 직원들이 1월 말 실내 전광판을 설치했다. 지역 복지관 중 활동이나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에서 20%이내에 드는 복지관을 선정하는 우수복지관에 선정된 것은 두송복지관 개관 9주년만의 성과여서 기쁨을 더했고, 직원들은 그 기쁨을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회향했다.

실내전광판은 새해 인사를 비롯 월 복지관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며 복지관을 찾는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며 호응을 얻고 있다. 김태영 복지과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복지사와 직원들은 "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된 기쁨을 지역민들과 나누고 싶어 작은 정성이나마 모아 전광판을 설치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민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새롭게 했다. 천미희 기자

광주 보문사, 이라크에 의류 4천점 전달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라크 현지민을 위해 사찰에서 의류 4000여점을 전달해 화제다.

광주 보문사(주지 보성)는 1월 26일 3000여 만원에 상당하는 의류를 담양 공수여단에 기증하고(사진) 자이툰부대를 통해 이라크 현지민에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의류전달을 주선한 미타종 부종정 혜우 스님은 "어느 때보다 자비실천행이 필요하다"며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라크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전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의류는 군트럭 두 대분으로 아동복에서 성인 정장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이준엽 기자

동화사, 자비의전화 대구BBS에 기증

활성화 · 홍보 관리책 마련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가 1월 19일 부설기관인 대구자비의전화를 대구불교방송(사장 법조)에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자비전화상담, 자비봉사 단체인 대구자비의전화는 대구불교방송 부설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동화사부설기관으로 활동을 해오던 대구자비의전화가 최근 관리, 홍보 등의 침체기를 겪자 동화사가 자비의전화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구자비의전화를 기증받은 대구불교방송은 다음달 중 자비의전화 임원들과 회원, 불교방송 직원들이 참여하는 자비의전화 가족법회를 열고 대내외에 대구자비의전화가 대구불교방송 부설기관이 되었음을 공표할 예정이다.

특히 자비의전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관리책을 마련 중이며 우선 라디오 방송과 회보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봄 프로그램 개편에는 방송을 통해 상담사례들을 전하는 등 대구자비의 전화를 꾸준히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배지선 기자

육조단경(돈황본)강좌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고
금번 서울 불교전문강당을 졸업한 몇몇 스님들이 경전을 깊이 전문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고,
아래와 같이 경전강좌를 개설 합니다

- 경 전 : 육조단경(돈황본)
- 강 주 : 각화사 고우 큰스님
- 과 정 : 6개월
- 요 일 : 매월 2째주 금요일 오후 3시 ~ 5시, 7시 ~ 9시
- 장 소 : 옥수동 미타사 내 대승암 (H · P 011-350-9885)
- 수 강 료 : 6개월 30만원
- 수강신청 : 2월 28일까지 (입금후 전화)
- 개 강 일 : 3월 11일 금요일 오후 3시

▷조계종 비구, 비구니스님으로 구족계 15년 이상인 스님
▷종단의 중징계를 받은 스님은 입교를 허락하지 않음
▷이유없이 3번이상 불참시 차기에는 함께 공부할 수 없음
▷경전강좌가 끝나면 옛날 큰스님의 수행처 및 성지를 참배할 예정 입니다

- 계좌번호 : 외환은행 239-18-29849-5 (예금주 : 김용성)
- 문의전화 : 011-420-7838(지장스님)
011-497-8018(용하스님) / 011-350-9885(법천스님)

경 전 연 구 추 진 위 원 일 동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인천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본 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 기관으로서 인가를 받은 인천을 대표하는 "인천불교대학"입니다
불교입문 과정인 기본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이나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인천불교대학으로 오십시오. 인천지역의 불교 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2005년도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대거 모집 합니다.
"최고의 강사진으로 최고의 교육" 을 보장 합니다.

학과	교 과 목	수 업 시 간	교 수 진
불교 입문	사찰예절, 부처님생애, 근본교리, 진리의 세계, 불교 전파와 발전	4개월 과정 매주(화)오전 11 ~ 12:30 매주(토)오후 7 ~ 8:30	학장스님, 조계종스님, 재가법사, 전문포교사
정규 대학	불교교리, 불교문화, 불교역사, 경전이해. 반야사상, 사회복지, 포교방법론, 자비실천수행 등	1년 과정 매주(수,목)오후 7~9 ※ 목 종합 특강	조계종스님, 학장스님, 동국대학교 교수, 전재성교수,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님 등

- **입학자격 :** ○ 제31기 입문반 → 제한자격 없음 ○ 정규대학 제 4기 → 기초교리 이수한분
- **특 전 :** 조계종 포교사 고시 자격취득(1년과정 이수자) / 출가 희망자 교육비 전액 면제
- **수 강 료 :** 입문반 / 입학금 1만원 수강료 3만원(4개월) 정규대학 / 입학금 2만원 수강료 30만원(1년)

인천불교대학 개강기념 법타 큰스님 초청 특별법회

- **개 강 일 :** 2005년 2월 20일(일) 오전11시 법명사(부루나포교원) 큰 법당
- **제출서류 :** ○ 입문반 → 입학원서, 사진 3매 ○ 정규대학 → 입학원서, 사진3매, 기본교육수료증, 등본1통
- **접 수 :** 불교대학 교학과, 사찰 종무소
- **모집기간 :** 2005년 1월 1일 ~ 3월 1일까지 접수가능, 수강료 분납가능
- **문 의 :** TEL. 032)577-5108, 576-9741 FAX. 032)577-8485 www.purna.or.kr

대한불교조계종 법명사(부루나포교원)
인 천 불 교 대 학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3동 83-6(건지 사거리)

전남 순천·여수·보성·고흥

깊은 뿌리바탕 '도약' 행보 분주

 # 순천 순천 조계산은 두개의 총림이 자리한 한국불교 성지이다. 조계총림 송광사와 태고총림 선암사가 그것. 두 사찰 모두 조계종, 태고종을 대표하는 총림으로 수많은 대중이 촌음을 아껴가며 정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순천불교가 한국을 대표하느냐'는 물음에는 선뜻 답하지 못한다. 지역불자들은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불교 사각지대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3년 전 전남동부지역불자회(회장 최경태)가 구성되면서 지역불교가 활기를 띄고 있다. 동부지역불자회는 대승사, 홍선사, 정혜사, 동화사 등 8개 사암 신도회와 순천시청불자회, 청년회, 운전불자회 등 직능별 신행단체의 연합체다. 매월 정례모임을 통해 지역불교 현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대승사는 일요법회, 어린이법회, 거사회, 교사불자회, 청년회 등의 법회가 열리는 명실상부한 송광사 순천포교당이다. 1980년 개원한 대승유치원은 순천 최초의 유치원으로, 3개 반 80여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지난해 대승사는 무료노인양노시설 '복림촌'을 건립했다. 순천 유일의 불교복지시설로 대사회복지 분야에 첫발을 내디뎌 주위의 기대가 높다.

순천 영향동 신도시에 자리한 홍선사도 10여 년 전부터 도심포교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부부법회를 시작으로 어린이, 학생회는 물론 직장 직능 불자회 창립의 초석을 닦았다.

주지 정환 스님은 "순천은 여수, 고흥, 보성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순천불교가 살아야 인근지역 불교도 살아난다"며 순천불교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 여수 지난 2000년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이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수지역 종교조사를 했다. 결과는 불교-개신교-천주교 순으로 나왔다. 유난히 타종교세가 강한 순천, 여수지역에서 의외로 불교가 선두였다. 더구나 1985년 조사에 비해 불교인구가 1.6% 증가한 것이었다.

종교조사에서 보여주듯 오늘의 여수불교는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분야는 복지다. 석천사에서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여수시 노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향일암도 동여수 노인복지관을 맡고 있다. 여수지역 복지기관 절반을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진옥 스님은 돌산 바닷가에 노인전문요양시설 '하얀 연꽃'을 건립 중에 있어 여수는 가히 불교복지도시라 할만하다.

현재 3개의 불교관련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원이 100여명, 여기에 자원봉사 1000여명, 물품 성금 등 후원자가 2000명에 이르고 있어 그 가족까지 합하면 불교타운이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여수 불교복지에 한몫하고 있는 기도도량 향일암(주지 종삼)은 복지관 운영을 계기로 지역민에게 봉사하는 사찰로 거듭나고 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세계에 한국문화와 불교를 알리기 위해 도량정비와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에 들어갔다.

순천 각종법회·유치원·요양원 신행의 활력

여수 불자증가·복지시설 속속 개원 희망 일궈

보성 대원사 전통·현대조화로 '가고싶은 도량'

고흥 전남 유일 비구니선원 천등선원 주목



순천·여수 불교계가 전력투구하는 분야는 바로 복지이다. 사진은 여수에 건립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하얀 연꽃'의 상량식.

이렇듯 여수불교는 사찰별로 포교분야를 분담하고 있는 편이다. 석천사가 도심포교당, 향일암이 기도사찰 역할을 한다면 용문사는 공단지역과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 한산사(주지 영원)는 지역의 어업민을 위한 포교를 펼치고 있다.

 # 보성·고흥 벌교홍교(보물 제304호), 우천리 삼층석탑(보물 제943호), 유신리 마애여래좌상(보물 제944호), 봉천리 5층 석탑(보물 제1115호) 등 보성의 보물 4점이 모두 불교문화재이다. 이처럼 보성은 석불, 석탑 등이 산재한 불교성지이건만 대부분의 사찰이 폐찰되고 유일하게 대원사만이 옛 흔적을 안고 남아있다. 근래 들어 송광사 벌교포교당을 위시해 사찰들이 복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원사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한 포교로 주목받고 있다. 봄이면 5.5km에 이르는 벚꽃터널 아래에서 달리기대회를 개최하고, 여름이면 연꽃과 수생식물을 모아 연꽃축제를 펼친다. 주말수련회와 국내최초 티베트 불교박물관도 일반인의 발길을 사찰로 향하게 하고 있다.

벌교포교당도 지난해 도량불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포교체제에 돌입했다. 전문 상담기법을 신행상담에 도입하고 있는 보리 스님은 학생회, 청년회, 거사회 복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심 포교당의 이점을 살려 새벽예불, 사시예불에 신도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오후에 신행상담에 전념하고 있다.

보성에 비해 고흥에는 능가사, 금탑사, 봉래사, 수도암, 송광암 등 비교적 많은 전통사찰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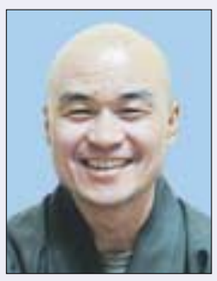
천등산에 자리한 금탑사는 13년 전 서림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도량을 일신했다. 극락전, 누각 등을 중창하고, 전남 유일의 비구니 선원인 천등선원을 건립했다. 서림 스님은 선원불사가 끝나자 주지를 내놓고 선원장을 맡아 10여명의 수좌들과 정진에 들어갔다.

순천·여수·보성·고흥=이준엽 기자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목우가풍' 지키며 열린도량 운영 모범



어디든 '일복(福)' 많은 이가 있기 마련이다. 조계산지기 영조 스님도 그들 중 한축에 낀다. 주지로 부임한 지 일년, 지난 한 해 동안 행자교육원운영, 사천왕상 복원, 대장경 인경불사, 불교문화축제, 옛길 복원, 박물관 특별전시회 등 겉으로 드러난 일만해도 두 손으로 다 꼽기 어려울 정도다. 특별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목우가풍'을 이어가는 수행자들을 외호하는 일이다. TV, 핸드폰이 없고 대부분의 난방을 보일러대신 땔감으로 해결하는 송광사 가풍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데 영조 스님의 드러나지 않는 성품과 다정다감한 마음씀씀이가 더욱 빛을 발한다.

총림 주지 두 번째 년도를 맞아 주안을 두는 것은 템플스테이와 대사회복지 활동을 펴는 것. 수련시설을 확충해 주말이면 100여명이 정진토록 하며 일주문밖에 첨단시설을 갖춘 영상센터를 마련해 송광사와 불교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사찰을 참배토록 할 예정이다. 자비행 실천을 위해 첫 사업으로 소임자 스님들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과 일대일 자매결연을 맺고 생활비 지원은 물론 수시로 찾아가 실질적인 식구가 되기로 결의했다.

사찰 공개운영 포교 노하우

일우 스님 (순천 대승사 주지)



범어사 강원시절 학생회 지도법사를 인연으로 포교를 시작한 스님은 벌교포교당, 익산 관음사, 진안 천황사를 거쳐 송광사 순천 포교당 대승사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간 대중교화에 나섰다. 성공 비결은 포교를 향한 강한 의지와 사찰의 공개운영. '포교당은 공개운영 없이 포교비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 스님의 신념이다.

지난해 대승사는 순천 최초의 불교복지시설 '복림촌'을 개원했다.

일우 스님은 30여 년 전부터 차(茶)를 찾아 전국을 순례해온 숨은 차인으로 무료노인요양시설 복림촌 운영자금을 위해 사찰비방의 하나인 '한방 고추장'을 재현해 보급하고 있다.(복림촌:061-745-0828)

다양한 행사에 세계 '눈길' 쏠려

현장 스님 (보성 대원사 주지)



문화-불교-수행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으로 보성 대원사만한 곳이 또 있으랴. 연꽃축제, 벚꽃길 달리기대회, 주말수련회, 티베트박물관 전시회 등 대원사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는 수준 높은 불교문화이며 수행 아닌 것이 없다.

현장 스님은 해인사 '해인'지 초대편집장으로 시각 디자인한 봉축카드를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주말 수련회 위주로 사찰운영을 바꾼 스님은 10년 전부터 청소년, 일반인은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했다. 올해에는 전남도지정 템플스테이 사찰이 됐다. 태아령 천도 백일기도를 통해 법회 경쟁력을 높였고, 티베트박물관을 건립해 외국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 지역본부장, 자비신행회 이사장을 맡아 불교 복지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달에 25일 법회 주관

진옥 스님 (여수 석천사 주지)



2000년 종교조사에서 기독교보다 1%이상 신도수가 많은 여수불교. 그 중심에 포교원력보살 진옥 스님이 있다. 20여 년 전, '지역을 알아야 포교방안이 나온다'고 생각한 스님은 신행흐름은 물론 역사부터 정리했다. '기복신앙 탈피'라는 결론과 함께 경전읽기 모임을 시작했다. 경전강독 소모임과 불교교양대학, 기초교리학교를 운영하면서 신심이 실천행으로 이어지고 대사회활동의 발판이 됐다.

1994년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시작으로 여수시노인 복지관 위탁, 어린이집 2개를 개설했다. 2000년부터는 3000여 평의 터에 3층 규모인 노인전문요양시설 '하얀연꽃'을 건립중이다.

스님은 20년 역사의 경전읽기모임 일심회 법회를 필두로 일반·주부·부부·직장·기초교리 법회 등 매월 25회 이상의 법회를 주관하고 있다.

신행상담 포교에 '특효약'

보리 스님 (벌교포교당 주지)



100년 전, 일제 때 번창했던 벌교에 송광사 포교당으로 출발했다. 전형적인 농촌사찰로 퇴락했던 벌교포교당의 꿈은 신행상담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지 보리 스님은 오전 기도, 오후 신행상담으로 지역불자들을 서서히 포교당으로 끌어내고 있다. 신행상담에 있어 "업보로 풀어서 무조건 기도하라는 식은 탈피해야한다"는 것이 스님의 주장이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스님이 먼저 전문상담기법을 공부했다. 상담심리교육, 가정폭력, 심리치료 등 각종 상담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신행상담에 접목시키고 있다.

금년에는 시민선방운영은 물론 어린이, 학생회에서 신도 등 각종 법회를 정례화 할 예정이다.

신도들과 도량일궈 '한가족'

성문 스님 (여수 용문사 주지)



성문 스님이 5년 전 초임 주지로 여수에 왔을 때만해도 용문사는 동네절에 불과했다. 스님에게는 열심히 사는 것이 정진이자 포교였다. 신도들의 예배와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불사를 단행하고 거사 중심의 유마회를 시작했다. 3명으로 시작한 법회가 석달 만에 30여명으로 늘어났다. 법회 후에 승·속 모두가 작업복을 입고 일을 했다. 신도들에게 용문사는 '우리절'이란 자부심이 강하다.

유마회가 정착되면서 정기법회를 강화했다. 초하루 통합법회, 지장재일(노장층), 관음재일(젊은층), 토요일 참선법회 등 법회를 세분화했다. 3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여수불교의 얼굴로 불교행사장마다 초청대상 1호로 인기가 높다. 올해부터 참선, 경전강독 등 '주제가 있는 수련대회'를 기획하고 있다.

합창단·부부법회로 불자 결속

정환 스님 (순천 홍선사 주지)



정환 스님은 출가와 함께 포교원력을 세웠다. 10년 전 불교세가 약한 순천에 와서, '힘을 모아야한다'는 생각에 지역사암을 찾아다니며 사암연합회 결성을 호소했다. 단위사찰 합창단을 연합해 가릉빈가 합창단으로 재창단하고 지역불교행사를 장엄했다.

홍선사에는 부부법회(시명회)를 시작으로 어린이·학생회 법회를 개설했다.

연향동 신시가지에 자리한 홍선사는 지난해 연건평 150평 가운데 법당 59평, 소법당 24평 등 법회위주의 포교당으로 거듭났다. 원불모시기 운동을 전개해 각자 자신의 부처님을 법당에 모시도록 했다.

스님의 얼굴엔 '포교가 수행이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화엄산림' 봉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상명 스님

태고종 유일의 총림 수행·포교기능 강화



가장 한국적이면서 전통사찰로서 원형이 잘 보존된 곳으로 정평이 난 선암사. 지난해 말, 25대 주지로 선출된 상명 스님은 "태고종 유일의 총림 위상에 맞도록 사격을 갖추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10여 년 간 선암사에 살면서 총무, 교무, 포교 등 각 소임을 맡은 스님은 경험을 살려 300명이 정진하는 국내 최고의 총림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

먼저 선암사 숙원불사인 대웅전 복원불사를 시작으로 강원, 선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가자를 위한 시민선방 개방과 등반, 참배객을 위한 포교프로그램도 모색하고 있다.

스님은 "최근 들어 태고총림을 중심으로 공부, 수행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어 희망적이다"며 "조계총림과 학인들의 교류를 시도해 어느 쪽이든 먼저 도인이 나오도록 수행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임 주지 지허 스님이 추진해온 '차체험관'을 건립해 선암사 자생차를 이용한 '우리차' 체험과 보급으로 차 생활을 일반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변화 준비하는 한해 될 것"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신년 인터뷰

지난해 개산조 태허대종사 탄신 1백주년을 맞으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관음종.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을 1월 21일 서울 묘각사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스님은 "올해는 종단이 시대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포교 지침서 발간과 해외교류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변화를 바라는 종단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종단 개산조 태허대종사 탄신 1백주년 기념행사는 종단적으로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7천여 종도들이 장충체육관에 모인 한중일 고승초청 국제보살계 대법회가 원만하게 회향된 후, 종단 내외에서 '새로운 종단발전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개혁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짚을 것은 짚고 개혁할 것은 개혁하겠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은?

-올해는 태허 대종사 탄신을 숭고하게 회향하는 일을 우선 시행할 것입니다. 7월, 관음종의 창종이념과 뜻, 지향을 밝힌 창종기념비를 세우고 가을까지 태허대종사 유고문집 발간을 마무리해, 큰스님을 기리는 작업을 모두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유고문집에 종단의 역사와 이념들을 담아 종단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종도들에게 제시할 종단 발전 방안은 무엇입니까?

-21세기 종단 발전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안 단속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단 소속사찰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연수교육이 상하반기 2차례 실시되며, 지방 사찰 포교활성화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해 전국에 배포할 생각입니다.

신도회장 등 임원선출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신도회가 개편되는 대로 신도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생각입니다. 신도들에게 신앙 및 사찰 체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종단 안팎이 어느 정도 정비되면 그 때부터 종단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고민해나가겠습니다.

▲해외 포교사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져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 불교교류 활성화와 타종단, 이웃 종교와의 연대도 꾸준히 모색하겠습니다. 한일불교교류협의회를 통한 일본불교와의 교류, 러시아 카르미카 공화국 불교계와의 교류가 올 한해 본격화될 것입니다. 중국에는 장안사를 건립해 중국 교포들이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중국에서 한국불교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단이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한 · 미얀마교류협의회를 통해 미얀마 양곤에 기술학교를 금년에 세우게 됩니다. 미얀마 불자와 일반 청소년이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웃종교와의 활동에도 보조를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새해를 맞아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와 윤회의 법칙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물량주의 등 부정적인 모습이 팽배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경제인들이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종교인들이 책임감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인, 성직자들은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윤택하게 하는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먼저 정치, 경제를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종교인들이 우선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선암사 관음불상은 진품"

검찰, 前 주지 지허 스님 무혐의 처리

선암사 원통전 관음불상이 가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임안식)은 1월 24일 순천 선암사 일부 승려들이 전 주지인 지허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원통전 목조관음불상좌상의 유출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또 지허 스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묘각, 도월 스님등은 '선암사 주지였던 지허 스님이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이 최근에 제작된 모조품으로 보인만큼 진위여부를 가려달라'는 진정을 광주지검 순청지청에 접수한 바 있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순천시 문화재 담당 공무원, 승려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모조불상의 조성경위와 원불의 환봉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펼쳐온 검찰은 '1995년 지허 스님이 원통전에 모조불상을 모신 사실이 있지만, 이는 원불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고 모조불을 모신 것에 대한 잡음이 일자 1996년 7월 보물장에 보관중인 원불을 환봉하면서 모조불을 외부로 반출했지만 1997년 6월 후임 주지의 요청으로 모조불이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남아시아돕기 알뜰장터 6일 천태종 관문사서

천태종 관문사(주지 춘광)는 남아시아를 강타한 지진해일 피해 국가를 돕기위해 2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가지 알뜰장터를 연다.

이날 바자회는 먹거리 장터와 제수용품 마련 알뜰장터로 열리며, 수익금은 전액 지진해일 피해국가 돕기 성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앞서 관문사는 1월 한 달 동안 매주 정기법회에서 성금을 모금했으며, 경내 1층에 모금함을 설치해 불자들의 정성을 모으고 있다. (02) 3460-5300

김원우 기자



태고종 제주종무원은 1월26일 제주시 화북2동에 건립한 치매노인요양시설 태고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제주도에 치매노인 시설 개원

태고종, 기초생활수급자에 무료 서비스

태고종 제주종무원 태고복지재단(이사장 도산, 제주종무원장)이 1월 26일 치매노인 요양시설인 태고원(원장 정성함)을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태고종 원로의원 설봉 스님, 총무원장 운산 스님, 종승위원장 춘곡 스님, 제주불교 회장 종호 스님과 김태환 제주도 지사, 양우철 도의회의장, 김영훈 제주시장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날 개원법회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단에서 1사찰 1선행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교구차원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제주교구가 처음"이라며 "제주불교 노인복지 사업이 한걸음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자원봉사자와 직원 등이 합심해 더 많은 관심과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이사장 도산 스님은 개원사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국정토 건설에 앞장서는 실천하는 종단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비 23억 8700만원을 투입해 제주시 화북2동에 건립된 태고원은 대지 1715평, 건평 532평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이다. 태고원에는 요양실 물리치료실 운동실 의무실 욕실 식당 게이트볼장 운동실 자원봉사실 간호사실등을 갖추고 있다.

태고원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치매 중풍 당뇨등 노인성 질환 환자들은 무료입소가 가능하다. 현재 13명의 노인들이 입주해 있으며, 정원은 총 60명이다. (064) 726-5225

김원우 기자

천태종 출가자 동안거 55일간…3월14일 해제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월 19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을유년 승려 동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종정 도용 스님을 증명법주로 55일간 용맹정진에 들어간 천태종 스님들의 동안거는 3월 14일 해제한다. 한편 천태종은 2월9일부터 총본산 구인사 정초참배 행사를 갖는다.

김원우 기자

붓다선원 개원 법회

서울 붓다선원(주지 영탄) 개원법회가 1월 16일 봉행됐다(사진). 용두 2동 충호빌딩 7층에 위치한 붓다선원은 홍제동 보명사가 이전 개원한 사찰로 이날 법회에는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 서울 휴휴암 주지 홍법 스님 등 2백 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한편 붓다선원은 최근 남양주 화도읍에 25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곳에는 1차로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 '부처님 마을'을 건립할 계획이다. (02)953-8780

강유신 기자

진각종도 스리랑카에 의료단 파견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이 지진해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 동남쪽 해안지역인 파나두라(Panadura)지역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한다.

2월 5일부터 10일까지 의료활동을 펼칠 진각종 의료봉사단은 열린의사회와 함께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정형외과 등 관련 분야 전문의사와 자원봉사자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의료봉사단은콜롬보 남쪽에 위치한 파나두라 인근지역의 난민수용시설과 스리랑카JGO센터에서 대민 진료와 전염병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진각복지재단 지현 사무처장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입어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파나두라등에서 의료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각종과 진각복지재단은 현재 스리랑카 이재민 피해복구를 위한 모금운동을 전국 각 심인당과 재단산하 단체별로 전개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인모집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한국 불교 통신대학. 대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나란다 삼장불학원 학인모집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5년 3월 10일 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김진궐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나란다 삼장 불학원

전화 02)969-2410 / 969-4981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동학사
비구니 강맥
전수하던 날

“큰지혜로 교학발전 동량될 터”

일초 스님, 수정 명선 보련 경진 행오 도일 법송 스님에게 전강

전강제자들 ‘대승기신론소필삭기회편’ 스승에 봉정

56년 경봉 · 77년 호경 스님 이어 세번째 전수

법호 받고 즉석설법…전통의식 재현해 ‘엄숙’



경진(성관) 스님

84년 대희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동학사 강원과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 동국대 교수 해주스님 문하에서 화엄학을 연구하고 있다.



수정 (성지) 스님 (괄호안은 법호)

77년 제철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동학사 강원을 졸업했다. 동국대에서 원효의 ‘이장의(二障義)’를 연구해 박사과정을 마쳤다. 2002년부터 동학사에서 스승인 일초 스님을 도와 학인들에게 ‘기신론’을 지도하고 있다.



수정 명선 보련 경진 행오 도일 법송(오른쪽부터)스님 7명은 1월26일 동학사 강설전에서 비구니강사로 교학의 발전과 후학지도에 나설것을 발원했다.



행오(성덕) 스님

84년 쾌성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동학사 강원과 동국대 대학원에서 한문학을 전공했다. 현재 동학사 학감으로 은사인 일초 스님과 후배 학인 지도에 매진하고 있다.



명선(성희) 스님

82년 오준 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동학사 강원을 졸업하고, 2001년에 일본 대곡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불교의 해외포교와 유마경의 공사상을 주로 연구해왔다.



보련(성법) 스님

82년 정륜 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86년 역시 동학사 강원을 졸업했다. 일본불교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학인들에게 일본어를 지도하고 있다.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45년 동안 맨발로 인도를 7바퀴 도신 것은 오직 미혹한 중생을 깨우쳐 부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경안(經眼)과 법이(法耳)가 열리도록 가르친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 불퇴전의 신심으로 대승정신을 일으켜 불종이 끊어지지 않도록 종단의 동량이 될 것을 발원 합니다.” 전강제자를 대표해 수정 스님이 고불문을 낭독했다. 비구니 강사 수정 지명 보련 경진 행오 도일 법송 스님이 동학사 강주 일초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잇는 순간이었다.

계룡산 동학사(주지 요명) 경내가 하얀 눈으로 장엄 된 1월 26일 비구니 강사 7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밤새 내린 계룡산 상봉의 은빛 설화가 유난히 아름다운 날이었다.

이날 전강식을 축하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한 종단 중진 비구 · 비구니 스님들과 지역 인사 등 300여명 대중들이 동학사 강설전 안팎을 가득 메웠다.

법당 맨 앞에 한 줄로 늘어선 7명 전강제자들의 긴장된 얼굴과 꼭 다문 입술이 전강식의 엄숙함을 더했다. 목탁소리에 맞춰 스승을 향해 1배, 2배, 3배가 계속됐다.

이어 젊은 강사 7명이 뜻을 모아 번역한 <대승기신론소필삭기회편>을 일초스님 앞에 봉정했다. 책을 받아든 일초 스님은 전강게(傳講偈)와 법호, 가사 장삼이 담긴 신물(信物 · 전강을 증명하는 물건) 한 벌을 제자들에게 전했다.

교학의 사자상승(師資相丞)이라할 수 있는 강맥은 한국불교 교학의 발전과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척도가 된다. 스승으로부터 강을 할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의미의 전통적 전강식은 새로 강사가 되는 제자가 대중에게 3배하고, 스승으로부터 법호를 내려받으면 강사는 즉석에서 개당설법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강맥을 공인을 받았다.

이러한 풍습은 최근에 와서 전강게송을 전하는 형태로 정형화 됐다. 하지만 해방 이전까지 강맥의 전수는 비구에게나 가능한 것으로 인식돼, 비구니에게 강맥을 전하는 일은 드러내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58년 선암사 조실이던 성능 스님이 깔고 앉은 좌복을 대중 앞에서 제자 명성 스님에게 밀어주는 것으로 전강식을 대신했을 정도다.

동학사강원의 전강식은 금강산 건봉사에서 강석을 열다 한국전쟁으로 이남한 경봉스님이 1956년 한국최초의 비구니 강원을 개설해 그해 비구니 묘엄 혜성 스님에게 강맥을 전한 것이 시초다. 이후 77년 4월에 호경 스님이 현주 일법 일초 보관스님에게 두 번째로 강맥을 전한 이래 30년 만에 열린 전강식이다. 이번 전강식은 비구니 전강식으로는 보기 드물게 전통전강의식의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 지난해 운문사와 봉녕사 전강식이 별다른 의식 없이 담백하게 치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강제자들의 서원을 담은 발원문 낭독이 이어졌다. “온누리에 가득하신 광명의 부처님. 저희들도 오늘 이 전강(傳講)의 인연 공덕으로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행원으로 모든 선근을 모으고 방편과 원력의 행이 구족하여 여래의 공덕바다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자비방편 드리우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법송 스님이 전강제자를 대표해 발원문을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일초 스님(왼쪽)이 전강제자 법송 스님에게 전강게와 가사장삼이 담긴 신물을 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강을 증명한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지난 150년 동안 수많은 인재를 양성해온 동학사 젊은 비구니 강사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치와 안목을 갖춘 수행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법어를 내렸다.

전강 스승인 일초 스님도 “후인에게 부처님의 경을 전하는 길에 어렵고 힘들 일에 부딪히더라도 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책을 덮고 길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부처님의 일통교의(一統敎義)는 이 길이 아니면 이어나갈 수 없다는 각오로 강사의 길을 걸어 나가라”는 전강게를 내렸다.

본사인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 전국강원교직자회의장 우진 스님, 운문사 주지 흥륜 스님, 동문회장 상덕 스님, 심대평 충남도지사 등 각계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전강식을 마친 수정 스님은 “불법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강사의 사명감에 어깨가 무거워 진다. 호경 스님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식과 기신론 연구를 보다 독창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학인지도에 전념하겠다”며 전강 소감을 밝혔다. 또 이미 강사 경력이 짧지 않은 행오 스님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는 각오로 강주 스님을 받들어 동학사를 비구니 교육의 요람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글=조용수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도일(성인) 스님

85년 일원 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동학사 강원과 중국 운남대에서 석사를 마쳤다.



법송(성혜) 스님

84년 지환 스님을 은사로 득도, 동학사 강원과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나왔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 소림사, 용문석굴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686 CZ3962	12시 인천 공항 출발/대련 도착 송산사 순례 및 대련 관광/정주로 이동
2 일	전용버스	개봉-용정, 철탑, 포공사 관광
3 일	전용버스	소림사, 탑림, 백마사 순례
4 일	CZ3961	중국의 3대석굴인 용문석굴 순례 대련으로 이동/러시아 거리 관광
5 일	CZ685	08시 30분 대련 출발/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저사, 옹화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청도 태산 곡부 6일 (천불동, 영암사, 잠산사) 목요일 출발 ₩ 4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338	14시 30분 인천 출발/광주 휴식
2 일	전용버스	소관으로 이동-남화선사, 용문사 순례
3 일	전용버스	서초산으로 이동-남해관음, 사방죽원, 문화원 순례
4 일	전용버스	심천-소인국 민속촌 관광
5 일	CZ337	09시 30분 광주출발 / 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눈밭에서 씽씽~ 자신감 쑥쑥

정신지체장애인 스키체험교실 폭발적 호응

"눈밭에 오니 너무 좋아요. 이제 씽씽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에서 열심히 직업재활훈련을 하고 있는 조병삼(가명 · 25)씨가 스키장에서 신이 났다. 겨울 날씨 속에서 얼굴이 붉게 상기된 줄도 모르고 '선생님(스키강사)'이 시키는 대로 좌우 걸음마를 열심히 했더니 자신감이 붙었다며 멋쩍게 웃는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경주시 스키협회(회장 최병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신지체장애인 스키체험교실이 1월 26일 충북 수안보 사조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스키는 흔히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고 불리지만 장애인들이 쉽게 접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경주시 스키협회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의기투합해 '정신지체장애인 스키체험교실'을 열었다.

관계자들은 막연히 '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체험이라 좋아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장애인들의 호응은 폭발적이었다. 상대적으로 체험기회가 적었던 스포츠를 접해서기도 하지만 아이들처럼 '눈'을 좋아하는 장애인들의 심적 욕구를 만족시켜서기도 하다.

직업재활훈련팀의 23세 이상 성인정신지체장애인 23명과 복지관 직원, 관련학과 학생 자원봉사자 등이 참가한 이번 스키체험교실은 경주시 스키협회 회원들이 장애인들에게 개인강습을 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이끈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상훈 직업재활팀장은 "장애인들은 근력이 약해 운동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스키 체험에는 매우 적극적이었다"며 "앞으로 스키협회 측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장애인들의 사회성을 기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054)776-7522

배지선 · 김강진 기자



성인 정신지체장애인 23명이 참석한 제2회 경주 장애인 스키체험교실이 1월 26일 충북 수안보 사조리조트에서 열렸다.

군포교 우리에게 맡겨 주세요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군장병 불자를 사랑하는 모임

군장병 불자를 사랑하는 사람들 50여명이 1월 15일 대구 동구 중대동 팔공산 자락에 있는 미륵종 정토원(주지 고봉)에 모였다. '군장병 불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군사모, 회장 권순남) 신년 인사회가 마련 된 것. 회원들은 을유년 새해를 맞아 인사도 나누었지만 밤이 깊도록 적극적인 군포교 활성화방안 모색에 나섰다.



고봉 스님(오른쪽 두번째)과 '군사모' 회원들이 군포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군사모는 군포교에 뜻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토원 주지 고봉 스님의 군포교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지난해 10월 발족했다. 군하사관 출신이었던 고봉 스님은 몇 년간 외로운 군 포교활동을 이어오면서 뜻이 있는 인연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회원은 모두 60여명.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들은 청과시장 상인부터 예술가, 선생님 등 직업도 다양하다. 그러나 유독 군출신 회원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직업군인 출신이 10여명, 여군출신 회원도 10여명이나 된다. 그렇기에 더욱 군장병들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다.

군사모는 지금까지 매월 첫째주 일요일마다 2군사령부 군포교 활동에 나갔다.

군사모 회원들은 올해부터는 좀 더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군포교활동을 펼치기로 중지를 모았다. 지원, 봉사, 홍보, 문화 등 4개팀으로 나눠 조직을 갖췄다. 지원팀은 군포교와 군장병을 다각도에서 지원하고, 홍보팀은 군포교의 중요성을 외부에 알리고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문화팀은 다양한 문화공연이나 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고 군장병들을 위로하겠다고 결의했다.

고봉 스님은 "앞으로 우리불교계를 젊은이들이 이끌어가야 한다"며 군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군포교활동이 형식적인 포교가 아니라 실제 군장병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며 전국적인 군사모 모임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053)984-0409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지진해일 피해 지역에 자비를…



(재)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동봉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이 1월 21일 거리탁발을 통해 모금된 성금 150여 만원을 본사 위영란 국장에게 전달했다.

남아시아돕기 거리탁발 펼쳐

(재)일붕선교종

(재)일붕선교종(총무원장 동봉) 스님들이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나섰다.

(재)일붕선교종 스님과 신도 100여명은 1월 21일 오후 서울 청량리역에서 서울 시가지를 돌며 남아시아 지진 피해돕기 거리탁발 행사를 벌였다. 청량리를 출발한 사부대중은 조계사에 도착한 후 모든 행사를 회향했고 거리모금을 통해 모은 성금 1백47만780원을 본사에 전달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명상의 집 삿상' 이경의 대표(오른쪽)가 1월 24일 본사 서정만 이사에게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구호성금을 전달했다.

종교 뛰어넘어 자비로 '하나'

'명상의 집 삿상' 본사에 500만원 기탁

명상수행단체 '명상의 집 삿상(대표 이경의)'이 1월 24일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구호지원 성금 500만원을 본사에 기탁했다. 명상의 집 삿상은 동안거를 맞아 회원으로부터 걷은 회비에 추가 성금을 보태 구호기금을 마련했다.

대표 이경의씨는 "종교를 뛰어넘어 재난을 당한 이재민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보살행을 실천하고 싶었다"며 "예기치 않게 재난을 입게 된 남아시아 불교도들에게 작으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지진 · 해일 구호성금 보내주신분(1월 20~26일)

강미경 30만원 최삼선천왕 30만원 이경주 10만원 송영혜 20만원 김정숙 2만원 화성 신흥사 100만원 감지한의원 10만원 정영님 1만원 반정우 3만원 권종옥 2만원 김수미 10만원 안산광명사신도일동 30만원 선정사오영진 30만원 장율환 1만원 신종희 20만원 김수필 100만원 김은정 20만원 이우경 10만원 에이전시 보리수 10만원 금오손상좌문도회 500만원 선본사대중일동200만원 선본사 100만원 산타마 30만원 김영돈,김종현,김성현,김민경 40만원 오승혁 5만원 예재홍 3만원 임원숙 2만원 의왕정림사 88만3000원 도은희 3만원 정명순 2만원 영원사 10만원 봉덕사 30만원 만호사 20만원 박미정 1만원 선운사 10만원 유일사 10만원 김경렬 8만원 종수 3만원 보륜사 100만원 금화사김옥자 50만원 황순자 10만원 선운사 2000만원 박순진10만원 관음정사남경 2만원 관음정사남진 2만원 청량사 30만원 서연하 65만5000원 영천포교당30만원 성불원 30만원 현풍도성암 60만원 이현경 2만원 의성석불사 100만원 최광주3만원 약수선원 46만8000원 신광사주지 20만원 임완숙 10만원 이희숙 3만원 삼각산문수사혜정스님 50만원 본원사 67만3000원 구리정각사선근스님 100만원 (사)맑고향기롭게 2000만원 송광사서울분원 길상사 500만원 임옥자10만원 박수길 3만원 원각회 100만원 김민자 2만원 김동례 10만원 호압사 316만5500원 실천불교 1000만원 스리랑카불자연합 100만원 임현철 15만원 대한불교청년회 204만2720원 마포석불사대중및 신도회 300만원 울산금강사 50만원 화림사 37만5000원 사자암 50만원 함월사신도일동 103만원 약사사(법정) 50만원 보문사 15만원 법장사 50만원 화암사 5만원 대한불교청년회 204만2720원 심주완 5000원 임현철 15만원 시흥법련사 20만원 이현덕 1만원 봉정숙 13만원 구룡사 50만원 권예중 3만원 위성복 1만원 박명보 10만원 이선순 10만원 동명희 5만원 대한불교조계종원우회2차성금 43만9700원 보살님 8만1310원 보은사 30만원 마포석불사 대중및신도회 300만원 진신생 5만원 반야암(박민자) 10만원 인천영덕사 50만원 김성희(해운화) 10만원 10교구불굴사이광희 96만4480원 영남불교대학관음사 753만9690원

(총 111,309,400)

누적금액 581,642,425원

지진 · 해일 피해로 통곡하는 남아시아에 자비를

현대불교신문사는 조계종과 함께 남아시아 지진 및 해일 피해 돕기를 위한 성금 모금을 전개합니다. 접수된 성금은 각국 대사관을 통해 피해지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지진 · 해일 피해 돕기 성금 동참 안내
동참문의 : (02)2011-1824~5
동참계좌 : 국민은행 023-25-0011-991
예금주 : (재) 불교중앙교원
농협 053-01-239894 예금주 : (재) 불교중앙교원

대한불교조계종 · 현대불교신문

도와주세요

재생불량성 빈혈로 투병중인 최재승 군



"체격도 좋고 너무나 건강했던 우리 아이가 이런 병에 걸렸을 줄이야…."

지난해 6월부터 국립암센터에서 재생불량성빈혈로 치료받고 있는 최재승(18)군의 상태를 전하며 어머니 박숙희(39)씨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중학교 때부터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며 감기 한번 제대로 앓은 적 없었던 재승이가 2004년 5월 '급성 상세불명 무형성빈혈'로 진단받아 지금까지 투병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도 좋아하고 활발했던 재승이는 현재 6개월간의 면역치료를 견디고 골수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골수 일치 확률이 가장 높은 여동생과 골수가 맞지 않아 타인에게서 맞는 골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재승이의 수술비, 치료비는 모두 경기도 이천에 혼자 거주하면서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는 아버지 최영일(43)씨의 몫이다. 하지만 최씨의 소득 170만원은 가족 생활비만 감당하기에도 빠듯하다. 이미 집을 담보로 2천만원을 대출받아 재승이의 치료비로 쓰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

"어려워도 아이를 위해선데 어떡하나요. 아이만 일어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익산불교대학에서 불심을 키운 부부는 아이가 다시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하기를 꿈꿀 수 있도록 매일 기원하고 있다.

(02)734-8050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나눔의 손잡기 성금

윤선애- 10,000원 김석양 75,000원
한마음선원 청주지원, 서춘건 강언순 박혜리 변수진 정조현- 합 745,000원

총 누적금액: 36,632,830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친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한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한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보도한다. 후원을 할 불자들은 단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을 별도로 소개한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된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는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할 수 있다.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연계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생명나눔 실천회의 골수기증 및 혈소판 모으기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한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사업을 전개한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해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사연도 소개한다.

♥ 나눔장학금 전달 2005년 하반기에는 지방에 소재한 12개 종립학교 학생 72명에게 사찰체험을 시켜주고 장학금을 전달한다.

♥ 김창배 화백 지상 선묵화전 담원 김창배 화백이 보시한 선묵화 30점의 지상전시회를 개최한다. 또 인터넷 전시회도 열어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나눔의 저금통 수거합니다

'나눔의 저금통'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본사로 직접 접수해 주시고,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저금통을 모아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한 뒤,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기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정보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영남범음범패
천도재 49재 수륙재
바라 · 나비무 회심곡 호적
행사해 드립니다
학인스님 모집. 부산범음범패연수원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가평잣
650g ⇨ 25,000원
농협 204039-56-036735 조금희
경기도 가평군 산면 임초리 332번지
010-3005-28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정안식	용왕산신재	바라나비춤	상가영불	천도시식전문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육임역학 비법 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1)245-8575
053)551-1356(011-1763-3567)

천일지장기도 하실스님 모십니다
011-483-5639

비구,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충북 음성
043)872-5187
043)873-5187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북 칠곡군
016-521-0003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남 논산
011-9410-6137

기도스님 필요하십니까?
010-7160-6811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동대문근교. 60세이상
010-6283-1090

불교, 홍범구주학, 명리학, 한의학 고전, 고대사, 문화사 분야의 출판원고 대필
● 한문고전 번역.
● 천지명양 무차대회, 생전예수재, 구병시식, 천도재 등을 학문적으로 기획하여 집전합니다.
소양호 청평사 토굴
최남석 (일묵) 011-368-391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60만원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054-638-8887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016-278-9166

토굴 구합니다
60대 승려로써 장소제공을 요망합니다.
6개월 시한부도 좋습니다
043)543-8320

종파를 떠나 참된 선지식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스님 한분을 모십니다
010-6783-5020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3월 22일(화), 24일(목) 개강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전국 제 1의 불교대학 · 체계적인 교육
▶주 · 야간반 선착순
- 3월 22일(화)-주간반, 24일(목)
- 주 · 야간반 각 요일 선택, 주 1회
- 불교 TV 금강경강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큰스님들의 특별 법문
- 인터넷방송국,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출가 학교 및 행자 모집
문의 : 011-9852-0075 충무스님
문의-대구큰절: (053)474-8228, 경산도량: 811-0337, 칠곡도량: 312-8221
인터넷 홈페이지 : www.TVbuddha.co.kr

송암 범음대학 단기반 학인모집
2005년 1월 11일 ~ 1월 20일까지(10일간)
대령 · 관욕 · 불공 · 시식 등
단기 속성반 10일간 교육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1가 85호 보화당 한의원 옆 3층
063)643-6619, H · P 011-9454-6619(종산스님)

이십팔숙 특별 지도
● 역술과 이십팔숙의 특수비법을 쉽게 설명
불설 28숙은 모든 역술을 총괄하는 비법이며 이것을 모르고는 역술을 논할 수 없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지도 : 대주스님
☎ 02)926-1259 / 011-741-0867

운세 10초내에 맞추면 수강신청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똑같은 사주라도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조상의 흐름을 찾으세요.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강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룡동
● 대지 : 약 59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54)334-4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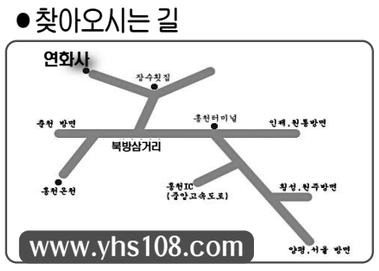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홍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부처님 몸 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은중경 · 극락도 · 지옥도 · 관람
7층에 올라가면 부처님 몸안에 미타삼존불 법당이 있습니다
1층에 열두 분 부처님을 한자리에서 친견합니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엽산 연화사 전화 : 033)433-1815. 433-2009 팩스 : 033)433-5206

▶ 대형주차장완비 ▶ 점심공양 가능 ▶ 입장료 무료 ▶ 주요명소 : 홍천온천, 천년고찰 수타사

● 찾아오시는 길



● 매월 : 초하루 및 보름 (조계사 앞 관광버스 출발)



전통의식 및 강원교육 안내

본원은 전통의식, 강원으로 범음, 범패 및 조계종 강원에 준하는 교육으로 학인을 모집함

교육기간 및 과정
● 강원강사 : 조계종 교구 본사 강원 강주로 40여년 강의하신 대강백 큰스님
● 의식강사 : 중요 무형 문화재 범음, 범패 전문 강원 원장스님

강원과정

초발심, 자경문 치문반	6개월
사집반(서장, 도서, 절요, 선요)	6개월

의식과정

기본 의식반(6개월)	도량석, 종성, 예경, 불공, 재의식
전문 의식반(6개월)	점안의식, 각종시식, 특별의식
작법 의식반(6개월)	바라춤, 나비춤

● 원서접수 기간 : 2005년 2월 18일(전화접수 가능)
● 개강일시 : 2005년 2월 25일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반명함 사진 3매

특전

1. 타의식 교육원에서 교육 수료 후 안채비성 등등 부족하신 분 집중지도 함
2. 의식과정 수강 시 강원과정 무료 수강함

※ 본원은 초종파 승속 불문하고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선착순인 관계로 미리 원서접수 바람

송강 범음 강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5번지
전화 : 011-9677-4877 ▶서울, 경기 지역에서 40분거리임◀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참옻의 신묘한 약성을 조청으로 먹는다!

山寺 참옻조청 · 약도라지조청

참옻조청
● 어혈, 노폐물, 피로독소, 적체의 해소
● 손발저림, 몸의 냉증, 다이어트
● 위장, 심장, 신장등 오장육부기능 정상화
● 신경조율, 관절염, 항암, 원기회복에 기여

약도라지조청
● 기관지, 천식, 기침의 완화
● 호흡기 질환개선
● 폐기능 강화, 피로회복
● 거담, 배농 작용에 기여

● 山寺 참옻조청 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 연구가 김지문거사님의 비법으로 참옻 나무의 유독성은 제거하고 좋은 약성만 추출, 농축하였으므로 **누가 먹어도 옻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山寺 참옻조청 은 국내산 무공해 원료만을 사용하여 사찰에서 /빌농안의 정성으로 겨우 한 솥 고아지는 **극소량의 명품조청입니다.**
● 山寺 약도라지조청 은 6년근 이상의 약도라지에 야생약초들 가미하여 약도라지의 약성을 배가시켜 고농축 시킨 고품격 조청입니다.

문의 및 주문처 : 054-372-3166 보갑사
054-372-5721 금용사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 현순희
(산사 참옻조청과 약도라지 조청은 주문에 의해서만 만듭니다)

생활상담, 최면-전생상담, 빙의치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심리상담전문가이지 최면-전생치료전문가가 직접 상담과 교육을 해드립니다.

- 불안증
- 우울증
-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 각종 알레르기 문제
- 비만문제
- 홧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 빙의 문제

• 상담지도전문가 –



설기문 박사 : 교육학박사, 상담심리 전문가, 최면 및 전생치료전문가, NLP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서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치료"과 같은 다수의 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음.

마인드피트니스 코리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 1062-2번지
031-442-5598, 011-1762-4598
www.mindcoach.co.kr mindcoach@naver.com

기적의 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 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진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새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문막
- 법당 : 15평
- 요사 : 18평
- 부지 : 986평
- 가액 : 2억 5천

- 위치 : 경북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부지 : 1500평
- 가액 : 5억5천

- 위치 : 충북
- 법당 : 40평
- 요사 : 30평
- 부지 : 980평
- 가액 : 2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서울 : 1억5천, 2억5천(300평) 4억(600평山中)4억3천(400평) 7억(800평절경)7억(280평)
- 사찰납골당 ① 7억5천(대:2200평, 건250평) ② 8억(대:3000평,건100평)

※ 사찰, 사찰터 多, 공양주 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북구(경북대 후문) 대로변
- 평수 : 신축 건물 130평,주차장 완비 (5층 중 4 ~ 5층)엘리베이터
-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40평
- 시설 : 삼존불, 각단 및 사천왕 탱화 500옥불 인등, 방7개, 화장실 5개, 일제 시스템 에어콘, 무선앰프 집기류 일체
- 가액 : 전세 2억 1천만원 시설비 1억 4천만원

※ 최적의 포교중심지. 몸만 오시면 됨
053)959-049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소재 (시내 5분거리)
- 부지 : 200평, 주차장완비
- 법당,산신,요사,별채,용왕당
- 가액 : 2억 9천만원
- 특징 : 석불7m 조성 (융자 3천 5백만원)

010-4547-3020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9-571-1732

사 찰 안 내
- 경북 시내 한눈에 보임
- 땅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 18평 외 미륵불
- 요사 : 23평, 산신각
- 급매 : 1억4천만원,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천평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아파트 밀집지역 (경남호텔뒷편), 40평
- 가액 : 2천만원에 월 180만원 시설비는 답사 후 결정 스님의 최적의 장소 즉시법회가능

016-396-1624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 동구 반어동
- 평수 : 120평 2층건물, 슬라브건물3채 사찰앞 도로 8m지점
- 가액 : 2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30-503-2412
011-1755-2411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 150평
- 법당(목조) 12평
- 요사(벽돌) 25평
- 가액 : 9천만원

016-652-7547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청 옆
- 대지 : 310평
- 건물 : 3층건물 1동 100평, 슬라브 기와 1동 45평, 부속 건물 1동 10평 (소나무 조경 및 그림같은 포교당)
- 가액 : 8억 5천만원

010-4876-5535
011-584-4418

1. 충북옥천IC 5분거리, 대지 200평중100평 등기,법당 25평, 요사 29평, 산신각 5평, 대전 15분거리, 집기일체양도 (비구니스님 적합) • 가액 : 1억 3천5백만원
2. 충남 조치원 서면(중앙문화재사찰),대 700평, 법당 12평,산신각 5평, 요사채 30평, 주차장 350평, 창건 150주년 • 가액 : 5억7천만원
3. 청양 칠갑산(도문화재사찰), 부지 4000평, 법당 13평, 산신각 9평, 요사채 30평, 창건 300평 • 가액 : 3억 7천만원
4. 경북 안동시 토굴 50평, 방3, 터밭 • 가액 : 1750만원
5. 청양 칠갑산 212평, 임법당 • 가액 : 2800만원
6. 서울 수락산 1000평 • 가액 : 6억 5천만원
7. 대청댐(암자터) 568평 • 가액 : 1억 3천5백만원

전국사암 다량보유
大田 017-409-9599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경남 김해시 삼계면
- 대지 : 150평
- 건물 : 35평
- 가액 : 1억 6천
- 뒤는 산밑이며, 앞은 4차선 도로임

- 위치 : 서울대역 지하철역
- 법당 : 35평
- 요사 : 방1개
- 보증금 : 1천만원에 월 70만원
- 시설비 : 방문후 결정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55)323-2858
011-9542-5726

사찰안내(천연동굴)
- 위치 : 강원도 홍천, 횡성 새말근교(각 20분거리)
- 임야 3만평, 답 1천평(군유지사용), 산신각(천연동굴) 15평, 대웅전 차평 방2, 주방1, 지장전 15평, 요사채 55평, 방 7개, 부대시설 25평
- 가액 : 7억 5천만원
- 실수요 스님일절(중계인사절)

011-396-4154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최요지
- 평수 : 500평(300평 주거지 200평 학교부지) • 건평 : 180평 3층 별장식 주택건물 • 법당 60평, 주택빌라식 80평 요사(주택식)15평, 20평 • 청정 암반 약수
- 가액 : 9억6천(실투자금 15억) 융자가능

02)363-0425~6
051)645-3600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엄광리 엄광사
- 법당에 부처님 10분, 후불탱화, 산신탱화, 용궁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지장탱화
- 가액 : 1억3천만원

011-824-5939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시장 사거리
- 평수: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찰안내
- 위치 : 충남(온양에서 20분거리)
- 평수 : 사용평수 200평(대지48평)
- 건물 : 법당1동, 산신각1동 요사채1동, 방3개, 주방, 방1개
- 가액 : 4천만원

※ 스님이 사정상 급히 지방으로 이주하는 관계로 저렴하게 인연이 되실분 찾습니다

041-841-3090
017-337-4168

사찰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갓바위 옆(도로 2분거리)
- 면적 : 950평 중 허가 대지 150평
- 건물 : 양옥 20평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전망이 매우 좋음
- 가액 : 평당 30만원 답사 후 가액절충 可

011-804-1748

사찰안내
- 위치 : 부산근교 (시내버스 다니는 신도시)
- 대지 60평, 평당 200~250만원대
- 건물 64평 신축건물 1층 32평 요사채 2층 29평 법당 3층 4평 칠성, 산신, 나반
- 실 수요스님 일절 중계인 사절

011-868-5997

사찰(전세)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내
- 부지 : 300평
- 법당 : 20평, 요사 : 25평
- 산신각,용왕각 각각 3평
- 가액 : 6천만원 5년간 전세 유지

055)355-1275
011-878-1391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이서면
- 대지, 텃밭, 법당 30평
- 요사채 50평
- 가액 : 1억 4천만원

054)372-8734
011-9382-478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부곡동
- 평수: 42평, LG빌라트상가건물 2층
- 부산대학교 지하철역에서 200m
- 가액 : 전세 2천만원에 월 70만원 시설비 1천 5백만원

051)517-8018
010-4802-8018

도심 포교원안내(전세)
- 위치: 김포시내, 중앙승가대학교 5분거리,김포신도시확정지구인접
- 외형 : 3층 중 3층 / 총 55평
- 내형: 법당원목상단 및 운곽, 지장호신동 216불, 후불탱화 50평, 큰방2개, 영가단-방1별도, 전체보일러/108명분 집기
- 스리랑카불교이주노동자-월례법회
- 가액: 전세4천/시설비2천

031)986-2335 / 011-820-1500

포교원안내
- 위치: 김포시내, 중앙승가대학교 오분거리,현재 4학년 졸업반
- 평수: 3층중 3층 / 55평
- 특징: 큰방2 영가단-방1별도 108명분집기, 최고급불기 스님방에어컨, 전체보일러
- 스리랑카불교이주노동자월례법회
- 법당: 원목상단, 후불탱화/50평 지장호신동불 216불
- 가액: 전세4천/시설비2천/합6천

011-820-1500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아파트밀집지역)
- 건평 : 60평, 3층건물의 3층 부처님 소불, 관음, 지장보살님모셔져 있음
- 가액 : 1천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3131-1094

사찰 안내
- 위치: 밀양시 얼음골
- 총평수 : 전답 임 포함 약 3천7백평
- 가액 : 15억. 현주위시세 평당 30만원

※ 명산,계곡절경,등산객 피서객 항상 많음
011-4876-5535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진교면 사천공항에서 15분거리
- 면적 : 사찰부지 1300여평, 전 280평, 답 600여평 • 건물 : 요사채50여평, 임시법당, 10여평, 원 황토방 4.5여평, 창고2개 • 기타 : 사찰전용 도로 1.5km 완전포장, 매실나무 70여그루
- 가액 : 2억5천만원, 절충가능 2004년 11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찰운영에 무리가 있어 양도함

011-866-7372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갈현동 구산역 부근
- 평수 : 150평
- 가액 : 답사 후 결정

행 자 모 집
011-9150-9190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500만원

011-9238-9960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 2층건물 2층 총 60평에 법당 30평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불 지장탱화 영가단 앰프시설 범종 에어컨 옥탑에 삼성각 요사체 30평 방 4칸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에어컨시설(즉시법회가능)
- 가액 : 2000만원 월 60만원 모든집기와 시설비는 답사 후 절충

010-6319-6885

포교원안내
- 위치: 수원시 장안구
- 3층건물 중 3층. 70평
- 내부시설 A급
- 가액: 1천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6304-0036

포교당 안내
- 위치 : 용인 수지 5층 건물 중 5층
- 평수 : 60평
- 가액 : 6천만원

010-4733-477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 법당 : 40평
- 특징 : 옥상시설 사용 13평, 판넬
- 보증금 : 1천만원,월 40만원
- 시설비 : (삼존불)2천5백만원

053)957-9551
011-398-9807

포교당 안내
- 위치 : 충주시내
- 삼존불, 후불탱화, 집기류 일체
- 70평 중 20평 법당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천 5백만원

011-315-7071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1944년지음(건축물대장)
- 광주시내버스, 직행버스 15분 간격으로 운행 승용차로 광주에서 15분거리
- 고려시대 석미륵불 모셔져 있음
- 부엌에서 자연수 흐름
- 법당1, 요사채
- 가액 : 1억

010-4622-337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일반주택 사찰)
- 대지: 160평 • 건물(시설): 36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답사 후 가격 절충 可)

019-503-7959

2004년도 불교역사를 한 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10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4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습니다. 매주 32면 발행으로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없는 불교신행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2004년 합본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VCD를 증정합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4년 1월(404호) ~ 6월(480호) 하권 2004년 7월(481호) ~ 12월(506호)
- 판형 : 신문원형(40cm × 55cm)
- 절차 : 전화신청 → 입금확인 → 택배발송
- 가격 : (상 · 하 2권) 총 80,000원(발송비 무료)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 (直) (02)737-8881(代) |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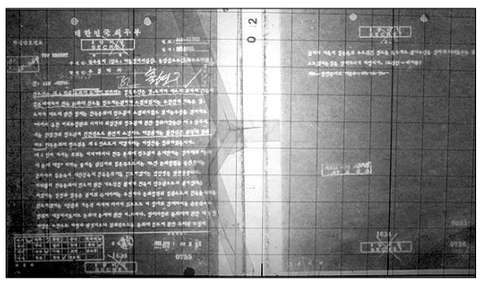
2004년도 이전 합본집 한정 특가 판매 !!
• 2003년(상 · 하 2권) 70,000원 • 2000년 ~ 2002년 각 50,000원
※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 하세요



한일문화재반환협상 문서 공개돼야

공개된 한일협정 외교문서엔 주일대사 전보만 포함

문화재 청구권 존속 확인 위해 필수 … "불평등 협상"



1965년 3월 31일 주일대사가 국무총리에게 보내온 전보(JAW-03716). 김 · 오히라 메모가 문화재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국측 해석이 담겨 있다.

세인의 관심 속에 한일협정 외교문서 일부가 1월 17일 공개됐다. 문화재반환협상 문서도 함께 공개될지 기대를 모았으나 이와 관련된 것은 주일대사가 국무총리에게 보냈던 전보가 전부였다. 따라서 도자기 · 고고자료 · 석조미술품 · 장신구 등 176건 433점, 서적 163부 852권, 체신자료 20건 등의 초라한 반환성과를 올린 채 막을 내린 한일협정 문화재반환협정의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아 협상 과정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문화재반환협상 문서 왜 빠졌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청구권과 관련된 것들로 제한됐다. 그 이유는 이번 공개의 직접적인 사유가 징용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소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외교문서 공개요구 소송이었기 때문이다.

미쯔비시중공업에 징용됐다 피폭된 한국인 6명의 2000년 5월 징용피해 배상 요구에 대해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주장, 개인청구권 소멸 여부가 재판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사실 확인을 위해 원고 측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외교문서공개를 요청했고, 행정소송까지 거쳐서야 1월 17일 161건 가운데 청구권 관련된 5건이 공개됐다.

어떤 내용이 공개됐나

공개된 문서 가운데 문화재반환협상 관련된 내용으로는 1965년 3월 31일 주일대사가 국무총리에게 보냈던 전보(JAW-03716)가 유일하다. 전보에는 "'청구권으로서 문화재 반환을 요구한다는 한국의 입장'과 '권리는 부인하지만 문화협력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재를 인도하겠다는 일본의 입장'에 차이가 있으나 명백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으니, 향후 구체적 교섭에 있어서 아(我)측이 권리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 없을지 모르니 양해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정 체결 직전까지 양국의 입장차이가 극명했음을 보여준다.

문화재반환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협정조약의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은 일본이 부속서에 열거된 문화재를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할 것과 민간이 소유한 문화재의 자발적인 기증을 권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속서의 목록은 중요 문화재나 국보는 한 점도 포함되지 않은 빈약한 것이었고, 사유문화재 또한 전혀 포함되지 않은 무성의한 것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일본으로 반출된 모든 문화재 반환을 주장해온 한국측 입장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일본 측이 1960년 제시한 문화재 3원칙(1.국유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돌려준다. 2.사유문화재는 인도할 수 없다. 3.문화재를 인도하는 것은 정치적 · 문화적 고려에 기초한 것이지 법률적 의무에 토대한 것이 아니다.)이 관철된 것이다. 또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표현을 택한 것 또한 호의로 증여하는 것이라는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1964년 11월말까지만 해도 정부는 "1905년 이래 부당하게 일본으로 반출된 모든 일본 국유 및 사유의 한국문화재를 반환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화재 협정은 정치 논리에 따라 합의에 도달한 의혹이 짙다. 당시 전문위원으로 협상에 참가한 황수영 박사도 "협상에서의 방침은 정치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일협정 체결에 돌파구를 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종필-오히라(方平) 회담 결과에 대한 한일 양측의 해석도 엇갈린다. 당시 일본 측은 김 · 오히라 메모로써 한국문화재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한 데 반해, 한국 측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청구권에 대한 해석은 향후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3만4천여 점(정부 추정, 10만여점이라는 설도 있음)에 달하는 한국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로서 매우 중요하다.

문서 공개의 필요성

한일문화재 협정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하고, 문화재청구권 소멸 여부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돼야 한다. 현재 알려진 협정 및 일부 관련 사항만으로는 이론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해외유출문화재를 돌려받는 방법으로는 기증, 매입, 정부간 협상을 통한 반환 등이 있다. 일본이 근대에 수탈해간 문화재만도 수만점이 돼 이들을 돌려받는 데는 정부간 협상이 아니고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세우기 어렵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을 통한 반환 노력이 가시화된 것은 없다.

협상을 통한 반환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외교문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해 협상 근거를 확보하고 협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종교 사이트 이용 하루 평균 51분"

박수호씨 박사논문 '인터넷 이용과 종교의식' 서



초고속통신망 가입자 수가 1천160만을 넘는 오늘날 인터넷의 영향은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종교영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종교 관련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추세에 주목하고 인터넷 이용이 종교영역에 야기한 변화와 그것의 종교사회학적 의미를 파헤친 박사학위 논문 '인터넷 이용과 종교의식'이 발표됐다.

고려대 박수호씨(사진)는 '인터넷 이용' '종교성' '인터넷 종교활동' '종교의식' 등 네 개 영역의 척도를 구성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을 구성해 불교, 개신교, 가톨릭의 종교 사이트 이용자 1천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하루 평균 종교 사이트 이용 시간은 50.93분이고, 종교활동 공간은 오프라인 종교시설과 온라인 종교사이트 비율이 6:4 정도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종교성이 낮을수록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박씨는 이 같은 현상을 "종교를 갖지 않았거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온라인 종교사이트를 통해 종교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교 사이트가 각 종교의 효과적인 선교수단이 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고 분석했다.

종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주된 동기로는 교리학습과 관련된 정보획득, 회원과의 만남, 설교듣기, 상담 순이었는데 가톨릭은 신자간 교류나 뉴스 이용 토론 목적, 개신교는 신자들의 교제나 신앙활동, 불교는 정보획득을 위해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들의 비율이 두드러졌다.

각 종교별 종교의식의 차이 조사도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종교간 대화와 협력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다원화 정도는 '가톨릭>무(無)종교>불교>개신교'로 나타나 개신교의 배타성이 확인됐다. 평신도 중심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개신교>불교>무종교>가톨릭' 순으로, 개신교가 평신도 활동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의 일상생활이 종교에 의해 규정되는 정도는 불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탈전통화에 대한 태도는 '불교>개신교>가톨릭'의 순으로 나타나 성소(聖所)에 가지 않고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종교활동에 대해 타 종교보다 불교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수호씨는 "인터넷 인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인터넷 종교활동 비중도 커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을 개신교처럼 선교공간으로 사용할 것인지, 가톨릭처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인지 등을 불교계 역량을 감안해서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3>

생물우주와 방거사

떨어지는 눈송이에 우주 질서 · 생명 담겨

'나'와 무관한 것 아무것도 없음 알아야

우주의 기원과 생명, 특히 인간을 탄생시킨 진화의 오묘한 조화는 과학자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감탄하게 만든다. 지구와 같이 생명이 존재하는 또 다른 행성이 있을까? 최근 과학자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추론은 우주의 기원과 물질의 이해와 맞물려 있다.

우주를 이루는 기본적인 힘이라고 믿어지는 만유인력, 전자기력, 그리고 원자를 이루는 소립자간 힘들이 존재한다. 만약 만유인력이 0.1%만 달랐어도, 지구의 공기에 탄소가 없고, 물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탄소동화작용이 없으며, 이를 섭취하는 인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 많은 천체의 별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소립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힘 모두가 지구에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선가에서 추앙받는 위대한 깨달은 자 중 중국 당나라의 방거사가 있다. 향엄 스님의 절에 머물렀다 떠나는 날 아침, 떠나보내는 아쉬움으로 향엄 스님은 제자 10여명을 보내 배웅했는데, 마침 눈이 오고 있었다. 내리는 눈을 보면서 수퍼스타 방거사가 한 말씀이다. "어느 눈송이 하나도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옆의 제자 중 한명이 그러면 어디로 떨어집니까 하고 물었다가 주먹 한 대를 얻어 맞는다. 벽암록이라고 옛 선문답을 모아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이다. 흔히 선문답은 우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설명을 불허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세익스피어의 소네트보다도 더 장엄한 인간과 우주의 조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무대를 발견한다.

눈송이가 떨어진다. 눈송이가 땅의 한 지점으로 떨어지는 것이 의미 없는 한 가지 사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인은 눈의 순백에서 원초의 흔적을 느끼기도 하고, 과학자는 눈이 가지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결정체를 현미경 아래서 발견하기도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공기에 먼지가 없었다면,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 먼지가 태양빛을 흡수하기에 지구 표면에 파장이 가장 긴 빨간색이 가장 많이 남았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뭇잎은 빨간색을 흡수하는 대신, 초록색을 반사하고 있다. 우리가 초록색을 좋아하는 것은 식물에게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생존한 수백 만 년 진화의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먼지가 없었다면 우리의 생명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눈송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바로 그 자리에 떨어지는 것 하나까지도 우리 생명, 아니 무생물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방거사의 선문답은 이러한 생물우주관과 하나가 된 자의 위대한 소네트라고 할 것이다.

눈 오는 날, 이유 없이 마음이 들뜨고 불안해질 때, 방거사의 눈을 생각하면서 이 눈이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 일까하고 물어보자. 다른 무엇으로 느껴진다면, 그렇게 느끼는 자는 누구인가를 곰곰이 되 물어보도록 하자.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법사의 삶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출강 통신 법사학인 수강생 모집

13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불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5학년도 제14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사)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종단 · 법인등록 포함)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교육방법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학습도량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5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팩스 접수 가능)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팩스737-5305

베스트 셀러

속을 보이는 사람들

해탈이란 마음의 해탈이다.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의 자유가 해탈이다. 이것과 저것을 가르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가르는 분별심을 버리고 마음 깊숙이 들어 앉은 내면의 소리를 끄집어내는 그것이 해탈이다.
"저를 해탈하게 하소서."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는가?"
"아무도 저를 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승찬 대사의 해탈법문을 듣는 순간 온갖 번뇌와 미혹, 망상과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를 얻은 구도자는 훗날 제4대조가 된 도신 대사이다.

본문 해탈이란 무엇인가? 中

• 해광스님 지음
열린출판사 / 값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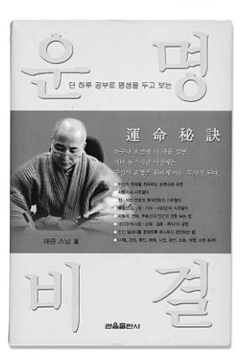
해광(海光)스님 저 서 | 불교비전의술서 「불가비의」 / 실용 역학서 「운명비결」 / 최초의 소설식 불교교리서 「왕 초보 절에 가다」 집필 중.

「운명비결」「속을 보이는 사람들」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등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 교보,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리브로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행자 전수자 모집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훤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 해광스님 지음
신국판 / 양장본 / 416페이지
정가 12,900원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수와 숙명
- 자동차의 사주팔자
- 집, 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사주팔자
- 부동산(집, 땅, 가게, 사업장)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 교제, 결혼, 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금강선원 해광스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1-14 TEL 032)665-8472

일주문



원정대종사 탄신불사

총지종 통리원장 우승 정사는 1월 29일 총지종 총본산 서울 총지사에서 총지종조 원정대종사 탄신불사를 봉행했다.



예비 대학생 대상 템플스테이

공주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은 2월 4~6일, 올 3월 입학하는 예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041)841-6221



남아시아 돕기 자비의 탁발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1월 1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등지에서 화계사와 함께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돕기를 위한 자비의 탁발행사를 개최했다.



캄보디아 방문, 고아원 건립 모색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성관 스님은 실천승가회 스님들과 함께 1월 27~2월 2일 캄보디아 고아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 현지를 방문했다.



금강정사 창건 14주년 기념법회

광명 금강정사 주지 지홍 스님은 1월 23일 광명시 소하 2동 금강정사에서 '사찰 창건 1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신년기원대법회

태고종 인천교구 종무원장 대은 스님은 안상수 인천시장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1일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신년기원대법회'를 열었다.



지진해일 피해민돕기 자비탁발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장 돈관 스님은 1월 29일 대구 등지에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난민 구호를 위한 자비의 탁발을 거행했다.



매월 둘째 土 기도정진 수련회

횡성 죽림산사 주지 선행 스님은 1월 15일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1박 2일 기도정진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033)3456-008



중구청 관내 체육시설 위탁운영

동국대 홍기삼 총장은 1월 27일 성낙합 서울 중구청장과 관·학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충무아트홀 체육시설 운영협약을 체결, 위탁운영에 들어갔다.



동산불교대 2005학년도 입학식

서울 동산불교대 김재일 이사장은 2월 5일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2층에서 2005학년도 동산불교대 입학식을 연다. (02)732-1206

공부하는 법회로 지도자 양성

중앙인사위원회 불자회 회장 곽임호씨



1월 28일 창립한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 불자회(이하 인불회)의 첫 회장을 맡은 곽임호 서기관(55·인력개발국 능력발전과·사진). 회원 확보에 여념이 없는 그는 "소수의 회원이지만 불교계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불자로 키울 것"이라며 "매주 공부하는 법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회원들의 신심고양을 위해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 석종사 선원장 혜국 스님 등 7인의 지도법사를 위촉해 회원교육에 치중할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청사 공무원불자연합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공무원불자들의 결속력도 키워나간다.

곽 회장은 ""직장에서 바른 믿음을 키우는 불자회,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불자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회원 배가로 활동영역 넓힐 것

부안경찰서 불자회 장오현 회장



"전북지방경찰청에 앞서 창립한 만큼 전북지역 경찰 불자들의 눈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바른 믿음을 갖고 모임을 운영해 나간다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안경찰서 경승실 개원을 겸해 불자회 창립법회를 연 부안경찰서 불자회장 장오현 경사(청문감사관실 부청관·사진)는 오랜 준비기간의 수고로움도 잊었다. 2002년 불자회 결성을 앞두고 '부안 핵폐기장 사건'이 발발해 2년이 미뤄진 끝에 1월 24일 불자회를 창립했기 때문이다.

"민생의 일선에서 포교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장 회장은 미약한 호남지역의 불교세를 만회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그 출발이 불자회 창립과 회원 확보라는 것이다. 지금은 회원이 20명에 불과하지만 1년내 2배로 늘리겠다는 다짐도 서슴없이 털어놓았다.

박봉영 기자

경찰불자회 한진호 회장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민국경찰불교회 회장인 한진호 인천지방경찰청장(치안감·사진)이 1월 26일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후임 인천지방경찰청장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 고문을 지낸 박광현 서울지방청 차장이 전보됐다.

한진호 회장은 김중겸 초대회장(전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이어 지난해 6월 제2대 경찰불교회장에 취임해 우리말경전 보급운동과 전국 경찰관서 불교회 창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불교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택순 청와대 치안비서관은 치안정감으로 승진,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됐다.

박봉영 기자

지회간 교류로 조직활성화 역점

대불청 대구지구장 이만희씨



"생활불교가 될 수 있도록 지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월 29일 대구 반월당 보현사에서 제13대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 대구지구장에 취임한 이만희(43·사진) 지구장은 침체된 지회를 활성화시키고 사라져가는 청년회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구장은 조직정비와 안정적인 지회활동을 우선의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지회간의 교류와 공동법회를 통해 침체된 지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연 2회의 성지순례를 통한 문화기행답사와 대불청 대구지구의 온라인상 카페개설, 연말 대규모 합동법회를 통해 청년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켜 나갈 생각이다.

이 지구장은 "대구지구를 발족시켜 활동을 하면 청년들이 다시 모여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지역 스님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신행도 업무도 신나게…

소방방재청 불자회 장인석 회장



"체계적인 신행활동과 직장업무가 어우러져 활기찬 모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3일 창립한 소방방재청 불자회 첫 회장을 맡은 장인석 복구과장(사진)은 창립법회에서 23명의 회원들과 함께 주먹을 굳게 쥐며 각오를 보였다.

이를 위해 장 회장은 소방방재청 직원의 10%에 불과한 회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장 회장은 "행정자치부에서 독립한지 오래되지 않아 조직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며 "회원을 늘리면서 알찬 공무원불자회로 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불자회는 행정자치부,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등 불자회와 함께 중앙정부청사 공무원불자연합회를 결성하기로 합의해놓은 상태다. 이같은 지역단위 연합활동을 통해 공무원 조직내에서 포교활성화도 꾀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포교사단 8재계 실천 정진법회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양성홍)은 지도법사 혜능 스님(해인사 율원장)을 초청, 1월 2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8재계 실천 정진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회에서 포교사들은 지계실천을 다짐하고, 오후 불식 실천의 일환으로 당일 저녁공양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지원금으로 보시했다.

전국교법사단 제5회 청소년 심성수련회



전국교법사단(단장 김형중)이 제5회 청소년심성수련회를 1월 18~21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개최했다. 굿자·탑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전통불교 문화의 현대적 재구성을 통한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형식으로 꾸려졌다.

세계평화 주제 종교포럼 열려



한국 종교연합 선도기구(대표 진월)는 1월 26일 서울 명동유네스코 회관 8층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종교포럼 Inter-faith Forum'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신대와 성공회대에서 평화사상을 가르치는 평화 연구가 정지석 박사가 '종교와 평화'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소쩍새마을 이전 기원법회



승가원(이사장 종범)은 1월 27일 원주 소쩍새마을 법당에서 미인가 복지시설인 소쩍새마을의 이천 자비복지타운 이전을 기원하는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이사장 종범 스님 등과 이 자리에 참석한 200여 대중은 소쩍새마을 식구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생기길 기원했다. (02)928-0750

한국불교 관음종 신년하례법회



한국불교 관음종(종정 벽송)은 1월 15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신년하례 법회 및 쓰나미 피해 희생 영가 천도대재를 봉행했다. 한국불교 관음종 종도 5백여 명이 참여한 이날 법회에서 대중들은 남아시아 지진해일로 희생된 영가들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하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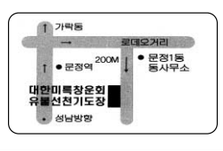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 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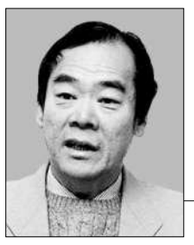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불자 세상보기

이 근 후
열린마음 클리닉 원장

군대의 가학성과 인격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성명이다. "지휘관의 인격에 대한 인식이 문제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인분을 먹이겠는가?" 국방부 장관이 사건의 현장으로 가서 훈련소장과 기타 지휘관들에게 질책한 말이다.

백번 옳은 말씀이다.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방부장관이 언급한 말대로 인격을 갖춘 지휘관이나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부인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다. 각종 언론매체나 네티즌 등 여론은 한결같이 훈련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질타하고 특감을 벌이는 등 부산한 움직임이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군대생활을 경험한 모든 남성들은 시대에 따라 가학적인 형태나 심도에 차이가 있을 뿐 군생활의 오랜 관행으로 치부한다. 군 생활 당시는 가혹행위에 대한 증오를 안고 살지만 전역을 하고 나면 그 또한 즐거운(?) 추억거리로 여기는 관행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지상에서 영원으로'라는 영화가 있다. 신병을 훈련하여 전장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가학행동과 이에 반하는 사병의 갈등을 처절하게 보여준 내용인데 조교는 신병을 앞에 두고 "지금부터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인격권을 박탈하는 무지막지한 말이다. 신병이 전장에서 소모될 소모품임을 강조하고, 고된 훈련만이 전장에서 살아남는 조건이 된다고 역설한다.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혹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막상 전투에서 전사를 하면 그나마 박탈된 인격은 폐품으로 처리된다.

부상자에 대한 군병원의 처리는 민간에서의 응급개념을 뒤집는다. 치료우선 순위는 경상자와 계급. 당연히 장교 우선이고 경상자는 빠른 치료 후 전장에 재투입한다. 이렇게 본다면 군인의 존재이유나 훈련의 과정, 목표가 가학적인 요소를 내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이 일반인의 상식과 가치가 배치되는 충돌점이다. 전장에서 서로 적군을 죽인다는 것은 가장 가학적인 가혹행위인데 이를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논리로 타당성을 설명하지만 정신의학적인 개인 내면의 욕구를 바탕으로 본다면 가학성의 확대일 수 밖에 없다.

인간의 무의식적 본능에는 서로 상반되는 욕구 즉 파괴적인 공격 욕구와 생산적인 성 욕구가 병존하며, 이런 상반된 욕구의 절묘한 조화와 평형이 생명 유지와 인격 발달에 기여한다고 말한다. 일반인은 공격성의 표출을 억압하거나 순화·대리 충족시킴으로서 직접 파괴로 이어가진 않는다. 그런 상황을 건강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격성을 자극하고 적을 향해 폭발시킬까에 집중한다. 일반인과는 반대로 가학적이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양태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적군을 소멸시키는 능력으로 평가된다. 군인은 폭력의 잠재력을 부각시키고 '전쟁'이라는 가상 전제 하에서 철저히 훈련해야 한다. 그 가학적 공격성 향상에 여러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이다.

군대라는 조직은 당연히 일반인의 상식과 상충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군의 잣대로 일반인을 재단해서도 안되며 일반인의 가치체계로 군을 재단해서도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쪽은 공격성의 표출을 다른 한쪽은 공격성의 억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점을 인정하더라도 사람에게 인격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다. 이 인격에 모욕을 가하여 분노를 촉발시키는 방법은 지혜롭지 못하다. 훈련을 시키는 지휘관의 잠재의식이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대 명제를 부탁해 본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처벌이어야 하고 지휘관은 마땅히 그런 기술을 익혀야 옳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한 비구니 스님의 목숨을 건 단식이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일깨웠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과 환경에 대한 의식을 일깨운 그 비구니 스님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여전히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법의 판결이 난 문제라는 명분만 내세우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행선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결국 한 비구니 스님의 고귀한 생명이 스러질 아슬아슬한 낭떠러지까지 치닫고 있다.

물론 스님은 생명을 버릴 생각을 해서는 안되고, 또 그렇게 생명을 잃도록 방치해서도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스님이 모두 한 걸음 물러서는 길 밖에 없다. 너무나 간단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구태여 하는 이유는 이 상식이 너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에 대해, 단지 당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 목숨을 건 이유에 대해 이해하고, 최소한의 조치나마 목숨을 걸 이유를 해소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은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단식의 뜻' 바로 읽어야

모든 문제는 믿을 수 없는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노선이 결정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외면적으로는 타당성을 갖추었으나 그 결과는 도롱뇽을 비롯한 많은 생명을 앗아갈 사이비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저항하는 몸짓이 바로 지율 스님의 목숨을 건 단식인 것을 정부는 모른다는 것인가? 그러한 사이비 타당성에 의해 수없이 저질러진 무차별한 환경생태계의 파괴에 대해 무감각해 왔던 정부와 국민 모두를 일깨우는 처절한 몸짓이 바로 지율스님의 단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납득할만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율 스님은 우리 온 국민의 환경과 생태에 대한 의식을 일깨운 소중한 분이요, 그 생명은 당신이 많은 이들의 가슴에 자리잡게 한 천성산만큼이나 무거운 것이다. 천성산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천성산보다 무거운 당신의 생명을 손상하시지 말고, 많은 이들의 가슴에 자리잡은 천성산을 돌보는 마음으로 자중자애하시기를 손모아 기원한다

■ 성태용(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보시

보시가 보살의 정토다. 보살이 성불할 때 온갖 것을 능히 베푼 중생이 그 나라에 태어난다. 〈유마경〉

베풀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욕망을 끊은 뒤에 베풂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시가 일상화 된 세상, 그곳이야말로 보살이 사는 정토일 것이다.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은 정토가 될 수 없다.

우리 사는 세상은 어떤가? 욕망의 구렁텅이가 존재하기도 하고 연꽃 같은 보살의 삶이 사람들의 귀감이 되기도 한다. 베풀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욕망을 벗었느냐 결박당했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내 것'이라는 집착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다 많은 내 것을 추구하게 된다. 그 욕망의 불길은 친구도 아내 혹은 남편도 태우는 것이다. 반대로 '네 것'이길 즐기는 사람은 늘 고요하고 즐겁다. 나 보다는 너를 먼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여백의 삶에서는 언제나 아름다운 꽃이 핀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경지는 단순히 베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베푼다는 것에 집착하는 것조차 벗어나는 것이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바로 보시를 하되 보시를 한다는 생각도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무주상 보시라고 하거니와, 하노라는 드러냄 없이 보시를 함으로 그 공덕이 우주에 골고루 회향 되게 하라는 것이다.

남아시아 지역의 지진 해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온 세계가 눈물겹다. 재앙의 땅을 복전(福田)으로 바꾸기 위한 따뜻한 보시행이 줄을 잇고 있다. 남의 재앙을 바라보며 자신의 욕망을 능히 끊을 수 있는 것, 이 역시 보시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다.

아직 지진해일 피해 복구 성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가? 지금 당장 '내 것'을 '네 것'으로 바꾸는 용기를 내라고 자신에게 명령 해 볼 일이다. ■ 임연태(편집부장)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불자회 활동 격려 큰 힘 돼

달리는 큰법당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불자회는 시내버스와 택시에서 불교방송을 방송하며 운행하는 운전인 불자들의 모임이다.

우리들은 불교신행을 위하여 사찰이나 불교교육기관에 가고 싶어도 시간을 내지 못하는 직업운전인과 집안에 있는 노약자들, 장애를 가지신 분, 소규모 가내수공업을 하느라 신행활동을 할 수 없는 모든 분에게 불교를 널리 알리고자 방송으로 포교하는 불교방송을 홍보하며 신행하는 불자들이다.

이렇게 소박한 뜻으로 활동하는 만큼 작은 격려도 큰 힘이 된다. 중요하고 비중 있는 사안을 언론에서 다루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같이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미약한 활동들도 불교언론이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한다.

변용구(붓다뉴스)

왜 지율 스님에게 관심없나

진작에 지율 스님의 단식에 관심을 가졌어야한다. 지율 스님이 단식을 푼다 해도 과연 제대로 건강해 질 수 있을까?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는 것이다. 지율 스님의 문제는 지율 스님의 문제가 아니고 너와 나 그리고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당사자(국민 모두와 정부와 승가까지도)들이 다 모른 체 하며 관심 밖으로 두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을 뿐이다. 이제 와서 관심을 가져봐야 스님 한 분의 목숨으로 바꿈질을 하는 것 밖에 되지 않으니 그것이 과연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할 줄 아는 것이 되겠는가!

대국민(붓다뉴스)

경주 남산은 우리의 역사다

경주 남산 바로 앞에 4차선 도로가 생긴다는 기사(510호 보도)를 읽고 기가 막혀서 말문이 다 막힌다.

남산은 불교문화재의 보고다. 물론 그곳에도 차도를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기사를 읽어보면 남산에 영향을 덜 미치는 직선구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곡선구간을 택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거기다 차도를 높이 만들어 그 밑에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인지 의아하다.

남산 일대는 야트막하다. 도로가 높게 올라오면 산세조차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시체말로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온다고 말할 정도로 아직 발굴되지 못한 유물들을 잔뜩 품고 있는 경주 남산지구에 미리 발굴도 해보지 않고 그냥 갈아엎어 도로를 뚫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도로건설 예정지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북명사지라는 절터가 있다고 한다. 문화재지표조사에서도 유적분포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라면 굳이 시굴을 해보지 않더라도 이 곳에 유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다. 정부에서는 제발 이제부터라도 개발을 할 때는 경제성과 문화재적 가치 등 다양한 문제들을 모두 검증하고 신중하게 개발에 착수하기를 바란다.

조성은(서울 광진구 노유동)

행자기간 늘린다고 달라질까

조계종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행자교육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안을 채택하고 검토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행자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과연 승가의 질이 높아질까. 행자기간 보다는 정말로 중생을 위해서 자기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먼저 자원봉사단체에 가서 행자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1년만 살아보면 금방 근기를 알 수 있다. 스님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말이다.

이동연(붓다뉴스)

'현대' 만평 심 민 섭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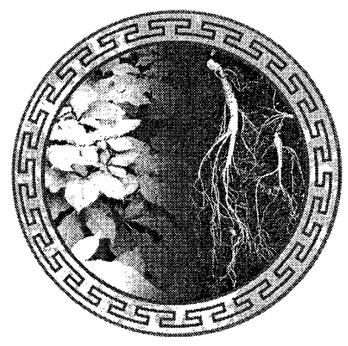
(명)
글쓴이 : 혜천법사

◆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공주대학교 식물자원연구소 NSF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SAMSUNG 2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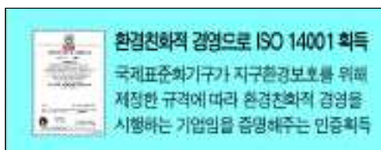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중년의 건강과 활력을 부모님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자녀에게는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가족 건강이 행복의 최우선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주|현풍F&B HYUN PUNG F&B CO., LTD.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ISO 14001 획득

국제표준화기구가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제정한 규격에 따라 환경친화적 경영을 시행하는 기업임을 증명해주는 인증획득

정보를 전하는 보워터한라의 종이!
그 속에 마음도 함께 담아 전해드립니다

세계를 읽는 종이,마음을 듣는 종이
보워터한라제지가 시작합니다

최고 품질의 신문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워터는 미국 South Carolina, Greenville에 본사를 두고, 한국의 **보워터한라제지**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등에 있는 10개의 공장에서 연간 300만톤의 신문용지를 생산하여 유럽, 일본, 중남미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여개 신문사에 신문용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워터漢拏製紙株式會社
BOWATER-HALLA PAPER CO., LTD.

· 본 사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1694-1 TEL.(061)460-6114 FAX.(061)460-6158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5-1 홍우빌딩 TEL.(02)567-1576 FAX.(02)3401-2581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부드럽고 편안한 미소와 눈빛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고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대할 수 있으며 예의바르고 친절한 몸가짐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다." 〈잡보장경〉



서울 108번 버스 DJ 강봉권씨



최상의 서비스를 화두로 거리를 누비는 버스DJ 강봉권씨. 검은 제복에 헤드마이크를 쓴 모습이 이채롭다.

108 번뇌 내려놓고 내리세요

재치있는 입담, 노선안내, 날씨 · 뉴스전달 등 달리는 '방송국'

남양주에서 서울 후암동까지 달리는 108번 버스 안. 정거장을 안내하는 기사의 상냥한 음성이 마이크를 타고 차 안에 울려 퍼진다. 유격대 조교를 연상시키는 검은 제복에 검정 선글라스를 걸친 독특한 복장을 한 기사 강봉권 씨(38). 그는 친절한 안내와 유머러스한 멘트 때문에 버스DJ로 통한다. 그의 방송은 승객들을 즐겁게 하는 힘이 있다.

"요즘 우리 회사에 장갑 한쪽씩 분실물로 접수되고 있는데 한쪽만으로는 쓸 데가 없습니다. 기왕에 놓고 내리실 거라면 양쪽 다 놓고 내리시든가 양쪽 다 잘 챙겨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음을 염두에 두시고…." 강 씨의 재치 넘치는 말에 승객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지고, 108번뇌는 눈 녹 듯 사라진다.

"모자 쓰신 멋쟁이 할머니!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 중으로만 내리면 된다 생각하시고, 차가 멈춘 후 천천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정거장 안내와 승객 안전을 챙기는 말은 기본이고 환승 지하철역 정보, 기상안내, 뉴스 속보 등의 다양한 정보가 그치질 않는다. 주말에는 정거장 주변 예식장 안내까지도 곁들여진다.

그가 차내 방송을 시작한 지 올해로 11년이 됐다. 초보 시절 차 안에서 벌어지는 잦은 안전사고를 목격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왔다. 처음 방송을 시작했던 1994년만 해도 승객이나 동료 기사로부터 "쓸데없는 짓 말고 운전이나 잘 하라"는 핀잔을 듣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하는 일이니 누가 뭐라 하든 관계없다"며 방송을 접지 않았다.

"승객들을 한 번도 '손님'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모두가 내 부모님이고 형제라 생각합니다. 그럼 친절하지 않을 수 없지요. 방송은 내 가족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런 진심이 통했을까. 지금은 동료 기사나 승객들도 그를 이해하고 환영한다.

강 씨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매주 한 차례씩 인터넷 등을 통해 혹시 바뀐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인터넷 검색이나 뉴스를 시청하며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

차내 방송 통해 백혈병 어린이 돕기도
손님은 가족 … 진심으로 보시행 실천

차내 방송에서 강 씨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인사 나누기. 짧은 시간이나마 버스를 함께 타는 소중한 인연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눔으로써 차 안의 분위기를 밝게 하고, 화기애애하게 만들고자 하는 바람에서다.

차에 오르는 승객에게는 물론 하차하는 이들에게도 인사를 잊지 않는 강 씨는 승객에게도 "제발 인사를 나누자"고 말한다. 때로는 "인사를 받지 않는 승객께는 뒷문을 열어드리지 않겠다"며 '반협박'도 불사한다. 1996년에는 이 '협박'을 진짜 협박으로 받아들인 한 승객이 112에 신고해 파출소에서 조사받은 적도 있었다.

이처럼 강 씨가 인사를 중시하는 것은 독실한 불자였던 부모님의 가르침 때문이다. 모친은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며 하심(下心)을 강조했고, 부친은 "인사해서 굶어죽는 사람 없다"며 "늘 바르게 인사하라"고 가르쳤다.

아내 정영선 씨(35)도 인생의 고비 때마다 정신적인 지주가 돼줬다. 서울 화계사 신도인 정 씨는 남편 강 씨가 격무에 시달려 힘들어하거나 일에 회의를 느낄 때마다 절에 나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도왔다. 강봉권 씨는 "승객들에게 정신적인 여유와 즐거움을 나눠주는 것도 보시행의 실천이라고 믿으며, 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한다.

강 씨의 차내 방송이 정보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7년 전 동료 자녀가 백혈병에 걸렸을 때 헌혈증을 모으는 데 방송이 한 몫 했다. 강 씨는 차내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헌혈증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버스를 타던 학생들이 적극 호응해 헌혈증을 모아 치료에 사용할 수 있었다. 그 도움에 힘입어 동료 자녀의 백혈병은 깨끗이 나았다.

"동료 자녀를 돕기 위해 시작하고 보니, 개개인의 수중에 있는 헌혈증들을 모으면 백혈병이나 소아암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로 헌혈증을 계속 모으게 됐죠."

그렇게 모은 헌혈증은 지난해만도 300여 장에 달한다. 모은 헌혈증은 방송국에 전달해서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한다. 지갑에 두툼하게 들어 있는 헌혈증을 꺼내 보인 그는 "그저 모아서 전달하는 것뿐이다"며 '선행'이라는 말에는 손사래를 친다.

강 씨는 투철한 서비스정신을 인정받아 2002년부터 교통연수원에서 버스운전자를 대상으로 '현장체험사례'라는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시민의 발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승객을 가족처럼 대하며 올바른 기사 상을 정립하자고 호소한다.

"기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는 기사 자신의 자각과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 큽니다. 기사 스스로 바른 모습을 보여주면 기사에 대한 인식이 바로잡힐 것입니다."

그의 꿈은 개인택시를 갖는 것. "개인택시는 모든 운전자의 꿈입니다. 개인택시를 내면 시간을 낼 수 있으니 적극적인 봉사도 가능하고, 고객을 가까이서 더욱 친절하게 모실 수도 있지요. 동료들과 힘을 모아 일본의 MK택시를 능가하는 서비스를 이끌어낼 겁니다."

글=박익순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전송 :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광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나의 수행법

김기현 (상)



2003년 사법연수원 1년차 여름휴가를 맞이해 '내면세계로의 여행'을 떠났다. 조계사 무료법률상담을 마치고 곧장 서울 안국선원에서 개설한 간화선 초보자반에 들어가 9일간 수행을 했다.

의심의 불길, 절망

그해 7월, 안국선원에서 난 "종교는 진리로 가기 위한 방편이지 목적이 아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고급종교가 있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문을 들었다. 그리고 스님 법문 말미에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이것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때는 그것이 '이 뭣고' 화두인지도 몰랐다. 궁금했다. 무슨 의미일까?

화두 참구 첫째 날, 스님은 똑같은 화두를 다시 주었다. 그리고 그 화두를 온몸으로 찾으라고 했다. 누군가가 "제 손이 움직이게 합니다"라고 대답하자, 스님은 "손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면 죽은 송장도 손이 있는데, 그 손은 왜 움직이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손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 손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답을 해보라"며 다그쳤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머리가 없다 생각하고 온 몸으로 화두 공부를 하라. 생각이 끊어진 곳에서 생각하라"는 말에 머리가 멍해졌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머리로만 답을 찾아 왔는데, 온몸으로 답을 찾으라니 속수무책이었다. 그럼 "말이 끊어진 곳에서 말이 이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곳에서 생각이 이어진다"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고,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온몸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급해지며, 금방이라도 내가 어떻게 잘못될 것처럼 두려워졌다.

억겁의 눈물 그리고 편안함

스님 법문 후 좌복을 두껍게 깔고 반가부좌를 해 앉으니 항상 움직이는 습에 벤 몸뚱이가 적응을 못하고 자꾸만 잠에 떨어졌다. 앉아 있어도 이놈의 몸뚱이는 온통 번뇌 망상에 빠져 날뛰고 중간 중간 스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지만 역시 잠만 쏟아졌다.

화두 참구 이틀째, 스님은 어제 수행 과정상의 잘못과 오늘의 수행 방법에 대해 법문해줬다.

"'누가 검지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가?' 라는 질문은 이미 내가 던졌다. 여러분은 답만 찾아라. 질문만을 반복하고 있을 셈인가? 질문은 잊고 오직 답만을 찾아라. 지금 답을 몰라 답답함이 의심이고 바로 답이다. 오직 그 답답한 마음만을 밀고 나가라"라고 했다.

"화두를 들고 답을 찾으라"고 하시는데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은 화두를 어떻게 든단 말인가? 온몸으로 답을 찾는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검지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누군가?"라는 문제만 떠오르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감을 잡지 못했다. 정말 답답했다. 스님은 "공부가 되고 있는 중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화두란 알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갑갑함이고, 그 갑갑함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화두를 제대로 들고 있는 거다"라고 했다.(계속)

■ 변호사

온몸으로 답을 찾으라니 눈앞이 캄캄
아무리 머릴 굴려도 감이 안잡혀 답답

박영재 법사에게 듣는 무문관 공안수행법



선도회 박영재 지도법사 (서강대 교수).

무문관 48칙 투과하면 어떤 공안도 막힘없어

'화두 하나만을 타파하면, 1천7백 공안에도 막힘이 없는가?'

간화선 재가수행자모임 선도회(禪道會)를 16년간 지도해온 박영재 법사(50 •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단, 전제조건을 달았다. 무문관(無門關) 공안 48칙을 하나하나 타파할 것과 스승과의 지속적인 화두점검이었다.

그럼, '하나가 곧 모두가 된다(一卽多)'는 선의 원리와 무문관 48가지 공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박 법사는 '체(體)와 용(用)'의 원리로 설명했다. 즉 무문관 1칙 조주 무자든 관계없이 공안 하나를 타파하면, 다른 공안들을 통해 투과한 그 화두의 활용 능력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무문관 48칙은 처음에 타파한 화두를 일일이 점검하는 '공안 예제(例題)'가 된다. 또한 수행자들에게 다양한 공안들을 제시, 근기에 맞는 공안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에 박 법사는 무문관 48칙이 '사다리' 선수행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월 22일 오후 5시, 선도회 겨울 철야정진이 열리던 서강대 성당 211호 기도실에서 박 법사를 만나, 무문관 수행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를 물었다. (02)705-8453. www.seondo.org

▲무문관(無門關) 화두공부법은 무엇인가.

–무문관 수행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간화선 수행전통을 그대로 살려 오늘날 현실에 맞게 활용한 수행법이다. <무문관>은 중국 송대의 무문혜개(無門慧開, 1183~1269) 선사가 1700여 칙(則)의 공안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48개의 공안을 가려 화두 참구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여기에는 동시대를 함께 호흡했던 선배 선사들의 핵심 공안들도 포함돼 있다. 이 48칙 공안의 본칙(本則)과 평창(評唱), 송(頌) 등의 원문을 읽고 해석하며 알송달송한 공안들을 하나하나 타파하는 것이 무문관 화두공부법이다. 때문에 무문관은 '간화선 수행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선전통에서는 단계별 공안 공부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무문관은 화두의 순차적 타파를 강조한다. 왜 그런가.

조주의 제1칙이 47칙 이끌어
사람마다 인연 닿는 화두 따로 있다

–무문관 수행은 사다리를 밟아가는 공부가 아니다. 수행해서 체득한 바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이다. 무문혜개 선사가 지은 무문관은 자기 힘으로 공안을 타파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간화선 지침서다. 그래서 사다리 공안이라고 할 수 없다.

일제시대 경허 · 만공 선사의 일대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허 선사는 만공 선사가 화두공부에 막혀 있을 때, 다른 화두를 주고 점검했다. 수행자에게는 인연 닿는 화두가 있다는 의미다.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화두를 바꿔줘야 한다. 무문관 공안집은 수행자의 수기(隋機), 즉 기틀에 따라서 수행자들을 인도했다. 수행자의 기틀에 맞는 공안을 3~4개 줘 점검하는 것이다. 경허 선사가 만공 선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무문관 48칙을 다 통과하면, 다른 공안에도 막힘이 없게 되는가.

–무문관 48칙을 투과하면, 다른 공안도 한 꼬치에 꿸 수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무문관 수행법의 핵심은 선의 체(體)와 용(用)의 측면에 있기 때문이다. 즉 지혜의 체득과 활용이다. 무문관 48칙은 선의 활용에 대한 능력을 갖췄는지 다른 관점에서 점검하면, 다른 공안에도 막힘이 없게 된다. 48칙 공안집 <무문관>은 유기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제1칙 조주의 무자공안(趙州狗子)이 나머지 47칙을 이끈다. 조주 무자공안을 제대로 체득을 했는지 47개 공안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무문관의 1칙 조주의 무자공안이 전형적인 모범문제라면, 나머지 47개는 그것을 제대로 잘 체득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관점에서 풀어보는 예제 문제라는 설명이다.



선도회원들이 1월 22~23일 서울 서강대 성당 기도실에서 열린 철야용맹정진에서 참선을 하고 있다.

▲그럼 무문관 수행법이 초심자에게 단계적인 화두공부의 길을 제시하는 셈인데, 일상 속에서 무문관 화두공부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기 맡은 일에 100% 뛰어드는 것이 바로 수행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먼저 무문관 수행에 앞서 '수식관(數息觀)'을 해야 한다. 수를 세면서 호흡하는 무문관의 예비수행법이다. 온갖 번뇌망상이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화두를 들려고 해도 들 수가 없다. 잠깐 들리다가도 온갖 잡념이 춤을 춘다. 그럴 때, 수를 세면서 호흡에 집중해 그 망상을 제어해야 한다. '수'라는 강력한 망상 하나만 일으키는 것이다. 수식관은 화두를 철저히 붙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첫 걸음이다. 수식관을 통해 붙드는 힘, 즉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찰칙(察則)이다. 선사들의 서로 주고받는 선문답을 다 빼고, 화두에만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간소화된 화두다. 화두 붙드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다. 마치 태권도 선수의 체력단련이 수식관이라면, 찰칙은 연습게임에 해당된다. 그리고나서 본격적인 48칙 무문관 수행에 들어가게 된다.

수 세며 호흡→화두 붙들기→본격 수행
일주일에 한번 입실점검

▲선도회 무문관 수행법의 특징은?

– '입실점검'이 선도회 무문관 수행의 핵심이다. 입실점검은 그동안의 화두공부 과정과 그 정도를 점검하는 것이다. 또 흐트러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된다. 이 같은 무문관의 입실지도 전통은 이미 중국 남송대의 독참(獨參)과 총참(總參)에 있다. 독참은 혼자서 조실 스님 방에 들어가 자유롭게 점검을 받는 것이고, 총참은 선원의 수행자 전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업혀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조실 스님의 주장자에, 발길질에 채이면서 초긴장 상태에서 화두를 들게 된다. 그 상태에서 입실점검을 하면 공부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입실점검이 궁극적으로 화두공부의 지름길이 된다.

▲선도회는 입실지도를 통한 공부점검을 강조한다. 왜 그런가.

–비유하면, '박사학위와 인가'로 들 수 있다. 지도교수가 학생에게 박사학위를 줄 때의 시점이 언제냐면, 혼자서 독자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또 이제는 제자를 받아서 제자에게 학위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을 때, 박사학위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인가라는 것은 석가세존처럼 대각을 이뤘을 때 주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샛길로 빠지지 않고 혼자서 철저히 지속적인 선수행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자를 육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인가를 해 주는 것이다. 때문에 입실지도 점검이 중요하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자광스님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영가 천도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종합병원 의사의 어머니가 후

대구경북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화제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원을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으로 가산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종합 news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두암말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칠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탕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을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켜야 할 일을 병행해서겠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람을 놀라게 하기고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몰아내야 하고... 병이 나으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풍기I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과일의 왕 두리안
Sale!
두개 6.5KG이상 55,000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원
후식으로 망고스틴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님의 경려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을유년 새해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신 기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이것이 알고싶다"
요가 Q&A

요가 • 명상 수련이 대중화되면서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네이버(NAVER), 엠파스(EMPAS) 등의 포털사이트 지식 Q&A 코너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늘어나면서, 수련 과정 중에 겪게 되는 문제점 • 해결책과 관련한 게시물의 등록건수나 클릭수 역시 상당해졌다. 지식 Q&A 코너에서 자주 보이는 질문들을 모아 한국요가연수원(원장 이태영) 요가지도자들에게 그 답을 들어봤다.



누구에게나 명현현상 나타나는지?
20~30대 건강한 사람 대부분 경험

Q : 배에서 왜 꾸륵꾸륵 소리날까?
A : 처져 있던 위 수축되는 과정

명현현상

Q : 요가를 처음 시작하면 명현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A : 요가와 같은 수련을 하면 심신의 리듬이 변하는 과정에서 몸살과 비슷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명현현상(체질이 개선될 때의 현상)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쓰지 않던 근육 등을 움직여서 생기는 근육통, 갑작스런 기의 변화에 따르는 감기, 노폐물을 빼내기 위한 설사, 노란 소변, 냄새나는 땀, 냉이나 대하,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통증 등입니다. 심리가 안정되면서 우울감 또는 귀찮은 느낌 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차는 심합니다.

Q : 명현현상은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것인가요? 그런 증상이 없으면 요가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걸까요.

A : 명현현상은 수련이 잘 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 강도는 본인이 조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의 강도가 약하거나 몸이 아주 약할 경우 명현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이 아주 깊거나 나이가 아주 많아서 기가 없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30대 연령층의 건강한 사람은 1주일 이내에 나타나는 것이 상례입니다.

내장기관

Q : 호흡 시에 배에서 꾸륵꾸륵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배가 불러도 고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A : 무절제한 식습관 등으로 아래로 처져 있던 위가 수축되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고 트림도 나옵니다. 식사는 소식하시고 식사 후 3시간 이상은 물외에 다른 고형물을 드시지 마세요. 장기가 좋아지면 소리도 사라집니다. 습관을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 요가를 석 달 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금방 부르고, 속은 더부룩 답답하니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요가를 배우기 전에는 가스도 거의 차지 않았는데 요즘은 가스도 차고 방귀도 자주 나옵니다.

A : 늘어진 장이나 위가 수축되면서 식사량이 줍니다. 평상시에도 70%정도만 드세요. 장의 연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방귀나 트림이 나옵니다. 평상시 식사량을 줄여 위의 본래 모습을 되찾으면 괜찮아집니다.

시간

Q : 호흡은 새벽에 하면 좋다는데요?

A : 새벽에 호흡을 하라는 것은 인시(03시 30분~05시 30분)에 천지의 기가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Q : 생리 중에도 수련을 해도 되나요? 물구나무 서기 체위가 해로운 것은 아닌가요?

A : 요가의 모든 체위는 생리 중에 실시하더라도 부작용이나 이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염려 되시면 체위는 하지 말고 호흡만 할 것을 권합니다.

Q : 요가직후에 식사를 해도 괜찮나요?

A : 원칙대로 하자면 식사는 요가 수련 2~3시간 후에 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죽 같은 음식은 1시간 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기혈이 잘 돌면서 의식이 어느 곳에 집중되면 소화가 어렵기도 합니다.

Q : 요가 후 바로 운동을 해왔는데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A : 보통 요가 전후 1~2시간에는 식사나 목욕, 부부관계나 땀을 내는 운동 등을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한다고 하지요. 요가로 기혈이 순환되고 어느 특정부위에 모인 기혈이 근육이나 피부 표면 또는 소화기계로 몰리므로 효과를 감하기 때문입니다. 급하다면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상기되고 불안한 경우라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흡

Q : 숨을 들이마실 때 목 안과 왼쪽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요?

A : 폐의 끝선이 어깨 쪽에 걸려 있어서 호흡 시에 자극을 받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은 숨을 배에 두고 호흡하세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Q : 풀무호흡(들이 마시고 내쉬기를 평소의 호흡보다 빠르고 강하게 하는 호흡)시 윗입술의 떨림이나 경련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A : 입주위로 흐르는 경락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사라집니다.

Q : 호흡을 하고 나면 배꼽에서 진물같은 것이 나옵니다. 물론 호흡을 하지 않을 때는 나오지 않구요. 요가를 하고 나서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데 배꼽에서 왜 진물이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A : 몸의 기혈이 돌면서 노폐물이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과정 중에 고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호흡을 하시되 음식은 기름기가 없는 신선한 곡류나 나물 위주로 드셔보세요.

Q : 저는 요가를 한 지 한 달 반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호흡시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자꾸 쫓지 말고 단전에 집중하라는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몸이 호흡할 때처럼 흔들립니다. 몸에 미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는 그냥 멍합니다.

A : 호흡으로 돌던 기혈이 일상생활에서도 순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 중에 막힌 곳에 자극을 주면서 진동이 올 수 있습니다. 미열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계속 수련하면 1주일 정도면 사라질 겁니다. 다른 때와 달리 배가 고픈 경우나 변의 양이 많아 지는 경우도 있으니 놀라지 마세요.

체위

Q : 물구나무서기 체위를 7분 정도 했는데 귀가 멍하고 머리가 몽롱합니다. 5분 정도하면 괜찮습니다. 계속 해도 될까요?

A : 발끝까지 기혈이 돌면서 초기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머리에 수술을 하시거나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이상이 없습니다.

정리=강신재 기자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Avatar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4> 아난·마명·용수·세친을 선종조사로 끌어들인 이유

선종의 법맥도를 살펴보면 특이한 것이 눈에 뜨인다. 아난존자를 필두로 세친 마명 용수 등 전혀 선종적 이미지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인물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종의 조사로 편입 되어 버린 것일까? 만약 다시 환생하여 이 전등법계도를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실까 자못 궁금하다. 위상을 제대로 부여해 놓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긍정하실까? 아니면 이맛살을 찌푸리고 난 후 그냥 모른척하면서 지나가실까? 그 해답은 아마 이럴 것이다. 선종승려로 출가해 있다면 전자일거고 그렇지 않다면 후자일 것이다.

<조당집> '가섭' 편에는 제1차 결집에 참여하지 못한 아난존자의 고뇌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나는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고 계를 범한 적도 없는데 왜 깨치지 못했는가?"

그 누구보다도 신심있고 투철한 지계의식으로 잘 살았노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던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였다.

'왜? 왜?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밤새도록 거닐다가 새벽이 되니 몹시 피곤하여 잠시 누우려는데 머리가 목침에 닿기 전에 깨달음의 지위를 얻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 채 곧장 결집장소인 빔빌라굴로 가서 돌문을 두드렸다. 그리하여 문고리 구멍을 따라 들어갔다.

'왜?'라는 의문은 의단이 되었고 그것은 하룻밤의 용맹정진으로 이어져 마침내 머리가 목침에 닿는 순간 깨침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일부 다른 문헌에는 결집장소에서 쫓겨난 아난이 대분심을 일으켜 절벽 위에서 졸음을 쫓기 위해 한쪽 발로 서서 용맹정진한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쨌거나 아난존자가 선종적인 방법론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결론은 내용적으로 일치한다.

마명 역시 그의 스승 11조 부다야사와의 대화에서 선사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대가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지금 모르는 그것이 부처이니라."

선종의 서천조통설의 특색은 마명(12조) 용수(14조) 세친(21조) 등의 인도대승불교 각파의 조사들을 선종의 전법조사의 한 사람으로 끌어들인 것은 선종이 종래의 모든 종파를 종합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불교전체를 선의 실천으로 통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금에도 근래에 돌아가신 어른스님들은 이판사판을 막론하고 비문에는 '선사' '대선사' 칭호로 불리운다. 살아있는 사람도 누구든지 '00수좌'라고 불러주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배려한 호칭이 된다. 수좌는 수자(修者)가 언제부턴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수자는 수선자(修禪者)라는 말이다. 진짜수좌(首座)는 총림에서 방장 다음의 가장 윗자리에 앉는 어른을 가리킨다. 그렇거나 말거나 수자를 수좌라고 부르는 것이 이미 통용되고 있으니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될 일이다. 어쨌거나 수좌(수자)는 언제부턴가 선종의 모든 승려를 부르는 호칭으로 굳어졌다. 선종의 입장에서는 설사 도심지 포교당에서 살고 있더라도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좌'라고 불리더라도 별로 잘못된 일은 아닌 것이다. 이래저래 선종적 정서는 출가자 모두의 면면에 흐르는 어쩌면 또 하나의 업(業)인지도 모르겠다.

> 모든 종파 종합하고 있다는 점 과시하려는 선종의 의도 엿보여

이제 서론은 이정도로 해두고 이후부터는 처음 의도한대로 선종승려의 재미있는 일화를 통하여 수행과 삶이 둘이 아닌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지혜를 얻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정월 방생 및 삼사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룁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지(無子孫 千年香火地之)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귀신사등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종무소 ☎(063)544-0416 www.sungmoam.net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반드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모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30)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부대사(傅大師)의 삼성(三性) 노래

세계의 총체적 연관에 대한 이해는, 우리를 자아라는 좁은 울타리로부터 벗어나게 해 줍니다.

그동안 '나'는 세계가 나를 위해,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태를 내 호오(好惡)를 기준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라는 잣대로 판단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이 주관적 왜곡이 남을 불편하게 하고, 공동체의 정의와 안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연기법(緣起法)과 화엄(華嚴)은 주관적 욕망으로 물든 세계가 아니라, 서로 연관된 객관적 사실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 성찰과 이해를 통해 우리는 자아의 점착성으로부터 점차 해방되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갈 것입니다.

해가 기울면 그림자가 사라진다

아, 여기서 처음의 1) 주관적 욕망으로 물든 세계를 변계소집성(徧計所執性)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앞에서 했습니다. 욕망과 공포가 있어, 없던 환상이 생기고,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기법과 화엄이 일러주고 있는 2) 서로 연관되어 있는 객관적 사실로서의 세계를 의타기성(依他起性)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의 상식에 익숙한 사람은 제가 지금 삼성(三性), 즉 세계를 보는 불교의 세 가지 시각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부록에 실린 부대사(傅大師)의 송(頌)을 들어봅시다. 두 번째 의타기성을 두고 읊은 노래입니다.

"依他非自立, 必假衆緣成, 日謝樹無影, 燈來室乃明, 名因共業變, 萬象積微生, 若悟眞空色, 脩然去有名."

한문을 어떻게 새기는지부터 보여드릴까요. "(모든 것이) 남(他)에 의지(依)하고 있어, 스스로(自) 독립(立)해 있는 것은 없다네. (어떤 사물이나 사태도) 반드시(必), 여러(衆) 인연(緣)을 빌려(假) 이루어(成) 진다네. 해(日)가 기울면(謝) 나무(樹)에 그림자(影)가 없어지고, 등불(燈)이 오면(來) 방(室)이 곧(乃) 밝아진다(明). 사물(名)은 여러 계기의 협력(共業)으로 인(因)해 변화(變)하고, 모든 현상(萬象)은 작은 계기(微)들이 쌓여(積) 생긴다네(生), 만약(若) 사물의 진정한(眞) 모습(空色)을 깨닫는다면(悟), 바로 그 순간(?然), 그대는 '이름의 고착과 환상(有名)'을 떠나게(去) 될 것이다."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짝을 지어 있습니다. 한문의 사람 인(人)자가 그렇다듯이, 우리는 서로를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참에 흥을 깨자면, 이 설명은 후대의 철학적 해석일 뿐입니다. 중국 고대의 갑골문을 보면, 사람 인자는 팔을 늘어뜨린 사람을 옆에서 본 대로 그려놓은 상형자입니다.) 책상 다리도 한 짝이 없으면 무너지고, 그림자는 해가 기울면, 그만 사라질 뿐입니다. 어떤 것도 '이것이다' 싶게 고정된 것, 그리하여 '자성(自性)이라'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성이란 고유하고, 독립적이며,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좀 어려운 철학용어로 하자면, '자기원인적causa sui 실체'를 뜻합니다.)

한 사물이나 사태, 그리고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수많은 계기와 인연들의 협력(共業)이라면, 이 가운데 하나만 변해도 그 사물이나 사태, 그리고 생명은 변화하고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계기들을 일일이 다 알 수도 없고, 그렇기에 충분히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리라'라는 기필(期必)을 거두십시오.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오만과 아만(我慢)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기법은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1)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얽혀 있다는 것, 그리하여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너무 애면글면하지 마라." 그리고 그나마 가진 것도 곧 변하고 흩어져, 그토록 애타게 집착할 것도 아니란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 <금강경>의 마지막 충고가 장엄하게 울립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꿈같고 신기루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것. 이슬처럼 덧없고,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그러나 연기법은 또 다른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합쳐져야 비로소 연기법의 이해가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화하자면, 우리는 서로 얽혀 있으므로, 2) 내가 세상에 대해 지는 책임은 무한하다는 좀 억울한(?) 역설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세상의 진실임을 어떡합니까. 부처님도 바꿀 수 없는 이치를…. 나중의 측면을 살펴볼까요. 저번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비 효과는 1960년, 미국의 수학자 에드워드 로렌즈가 기상 변화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원시적 진공관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상의 장기 예측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간 자료를 다시 입력하는 과정에서 소수점 몇 자리 이하를, 대수롭지 않게 버렸더니, 한 시간 후에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처음 그것이 컴퓨터의 고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소수점 네 자리 숫자를 버렸을 뿐인데 나타난 결과가 그 정도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조건의 작은 변화에 대해 기상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부릅니다. "북경에서 나비 하나가 날갯짓을 하면, 다음달엔 미국 동부에 허리케인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어디 기상뿐입니까. 작은 일상의 사건 하나에서, 커다란 정치적 격변에 이르기까지, 아울러 경제적 제도의 선택과 경기변동에 이르기까지, 작은 변화 변화가 예측 못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옵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무심코 떠올린 탁한 생각 하나가 꽃들을 말려죽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 스스로 대견해 하십시오. 당신의 미소 하나가 들의 꽃들을 피게 하고 온 세상에 희망을 줄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바이러스처럼, 한 순간에, 집안의 분위기를 물들이고, 직장을 뒤흔들며, 곧 전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시인 정현종이 대학시절에 한 일

저는 시인 정현종의 시보다는 산문을 더 좋아합니다. 오래전 <숨과 꿈>이라는 산문집을 읽다가 감전된 적이 있습니다. "숲 속에서 새 소리를 듣는다…. 그때 이 숲에서 나는 돌 하나를 던진 적이 있다. 숲 위쪽에서 던진 돌은 저 아래 어디엔가 떨어졌다. 돌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지구 무게만한 어떤 느낌이 마치 지진처럼 내 속으로 지나가는 걸 느꼈다. 즉 내가 방금 던진 돌에 의해, 나에 의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진 돌 하나에 의해 우주의 균형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그것이었다. 내가 던진 돌 하나가 우주의 균형을 바꾼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내가 던진 돌 하나 우주 균형 바꾼다



주장자따라…

⑬ 달마 대사의 '공덕 없음'

조태호



달마대사(?~?): 중국 선종의 개조. 6세기 초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선불교를 전했다. 숭산 소림사에서의 9년간 면벽좌선. 혜가에게 법을 전했다.

네티즌 교리문답

"염불선(念佛禪)은 무엇입니까?"

문 불교수행법 중, 선과 염불은 그 성격과 행법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큰 스님들의 수행법을 보면, 염불선(念佛禪)이란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럼 염불선을 무엇이고, 그 수행법의 요체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염불선을 수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P 불학자)

답 1 : 염불수행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불은 끊임없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수행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처님이 어디에 따로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외도의 수행법이 됩니다.

염불할 때 중요한 것은 본래 나의 '생각이전의 자리'가 부처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나의 본래가 우주의 진여당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이전의 자리를 관하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지장보살과 여타 불보살의 명호를 염하는 염불선의 수행법을 알게 됩니다. (노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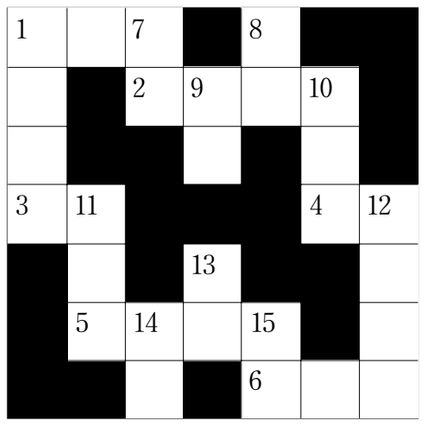
답 2 : 염불선은 선(禪)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간화선의 경우 진여당체를 여의지 않고 화두를 참구할 때 바로 활구(活句)가 될 수 있습니다. '이뭣고' 할 때 그냥 '이뭣고'가 아니라 '이뭣고' 하는 그 당체를 여의지 않는 화두가 활구입니다. 염불 또한 염불하는 그 당체를 여의지 않고 염불할 때 염불선이 되는 것입니다. 주력이나 간경 또한 마땅히 진여당체를 여의지 않는 정진이 돼야 합니다. '염불하는 그놈이 누구인가'를 참구하는 염불선 수행법처럼 주력. 사경 사불등의 불교수행법도 이런 원리를 깨치면 됩니다.(금강소석)

답 3 : 염불선의 구체적인 행법은 이렇습니다. 염불정진 할 때 평상시에 하듯 느리게 하거나, 소리 내서 한다면 삼매를 얻기 힘듭니다. 진여당체에 마음을 두고 마음속으로 아주 빠르게 끊어지지 않는 쉼 없는 정진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염불선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알맞은 수행법인 셈입니다. 우리의 본래면목을 되찾는 염불선 수행법은 염불에 화두를 붙여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참구하는 방법과 본래의 자성이 부처라는 확신을 갖고 부처님의 법신을 관하는 '실상염불(實相念佛)' 등이 있습니다. 즉 화두선과 다름이 없습니다. (산목)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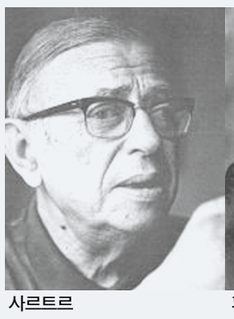
상식퍼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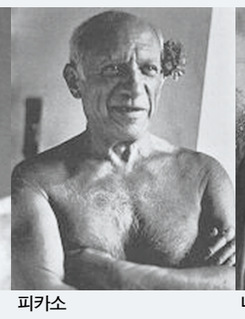


정답은 26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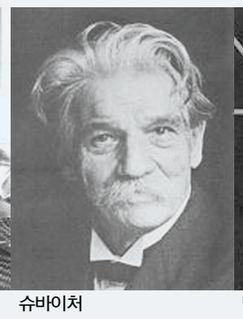
가로 1. 미국의 국기 2. 명예혁명이 도화선이 돼 1689년에 제정된 영국의 의회제정법 3. 그날그날 겪은 일이나 감상 등을 적은 개인의 기록, 난중일기 등이 있음 4. 큰 물고기를 일컫는 한자어 5. 종달새의 또다른 우리말 6. 금융기관 상호간의 단기 대출에 대한 이자율.

세로 1. 부처님 되신 날 7. 권리를 버리고 행사하지 않음 8. 지난날, 죄인의 볼기를 치던 형구 9. 기계나 설비 등의 장기간에 걸친 임대 10. 전선, 통신선을 늘여 매기 위해 세운 기둥 11. 일본의 전통 의상으로 폭이 넓은 허리띠를 두른 여자 옷 12. 제3자가 이득을 본다는 고사성어 13. 조선시대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던 사령 14.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로 동물 중 제일 큼 15. 회사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여 보상해주는 소비자보호제도.


사르트르


피카소


나이팅게일


슈바이처


닉슨




채플린(위)과 파펜하임.

유머와 이타주의로 빚어낸

성공의 연금술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그들에게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일까. 아니다.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리석은 존재들일까. 그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들이 뿌리는 옥수수 등의 씨앗은 약간의 물기만 있어도 살아남는다. 생명에 대한 끈질긴 이들의 강한 신념이 식물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이다.

인디언들이 지내는 기우제는 단순히 비를 기다리는 발원만 담겨 있는게 아니다. 사막과 같은 척박한 삶의 조건 속에서 기우제는 이들이 이탈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강하게 결속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결국 언젠가는 비가와서 싹이 트겠지' 하는 강한 신념도 함께 불어 넣어준다.

심리학자인 지은이는 한 인간이 삶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 '성공의 연금술'로 정의한다. 유머, 이타주의, 갈등억제 등은 성공을 이루는 성숙한 자아의 연금술이라는 것이다. 반면 미성숙한 자아는 고통을 과장하고, 공격적이거나 자학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이 책은 이 '인디언 기우제 정신'을 통해 안팎의 문제와 고통,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 15인의 사례를 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은이는 심리학적인 정교한 틀을 통해 이 책의 등장인물 15인이 각자 처했던 특유의 환경 속에서 불가피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여 준다.

'채플린'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 영화인으로 크게 성공한 반면 결혼 생활의 거듭된 실패 등으로 번민했지만 시종 일관 '유머'라는 성숙한 대응을 통해 훌륭한 삶을 일구어냈다. 중증 정신병을 앓았던 '파펜하임'은 상상 임신한 자신의 불행한 아이에게 들려주고자 동화를 썼고, 그 '이타주의'의 발로는 결국 그녀를 '이야기 치료'의 선구자가 되게 하였다.

겁쟁이인데다 인내심과 팀워크가 모두 빵점이었던 탐험가 '섀클턴'은 놀라운 '억제'를 발휘해 '인듀어런스 호의 귀감'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성숙한 적응을 통해 성공적 삶을 산 사례다.

이 책에는 이들과 달리 미성숙한 적응 방식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실패하며 좌절했지만 환골탈태의 마음으로 성공적 삶을 일군 사례들도 등장한다.

괴팍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성질머리 때문에 매번 직장에서 쫓겨난 '샌더스'는 자신의 분노를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닦아 갈아서 양념을 깊이 배게 한 혁신적인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으로 승화했다.

'주먹이 먼저'였던 '처칠'은 무리하게 강행한 군사 작전에 실패해 국민의 원성을 샀지만 그런 기질을 잘 다듬어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되었다. 어린시절 아버지의 학대를 받고 자란 '닉슨'은 정치생활 중 치명적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몰락하지만 말년에 진심과 회심을 통해서 언론과 여론에 의해 냉전 종식과 평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긍정적인 재평가를 받았다.



인디언기우제
고영건 지음
정신세계원 | 1만2천원

이외에도 외모 콤플렉스에서 벗어난 '나이팅게일', 개인적인 불행을 꿈으로 극복한 '안데르센'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지은이는 행복한 성공의 연금술이 멀리 있지 않음을 알려준다. 이 모든 성공가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일상의 문제로 괴로워했지만, '마음의 기우제'로 결국 행복을 일구어냈다는 것이다

책은 기존 자기계발서와 확연한 차별성이 돋보인다. 가장 큰 차별은 성공의 습관, 기술 등 상투적인 뻔한 설명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심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지은이는 15명의 사례를 통해 분명히 성공적인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있고,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문제는 있지만 그 대응방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으며, 양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문제상황에서 자신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학적 대처법임을 강조한다.

판에 박은 성공의 법칙을 정리해 보여 주는 대신 이 책은 각 장 말미에 인간관계와 조직 생활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 문제 상황과 갈등 심리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심리학적 에세이를 한 편씩 붙였다.

현재의 삶이 힘들고 괴롭다면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 "나만 괴롭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위안을 넘어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살아있는 학교 어떻게 만들까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 지음 | 조응주 옮김
민들레 | 1만2천원

한 학교에서 30년 넘게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 지은이가 좋은 학교로 이름난 학교들을 직접 돌아보면서 캐낸, 아이들도 교사도 모두 만족하는 학교 만들기 노하우를 들려주는 책이다. 1부에서는 좋은 학교의 주요 특성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단계를 설명했다. 이어 2부에서는 학교 설립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독창적인 학교와 학습기관을 소개했다.

특히 오랜 전통을 지닌 학교부터 새로운 학교까지, 큰 학교, 작은 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를 막론하고 아이들을 위해 정말 좋은 배움터를 만들겠다는 꿈을 살아 있는 현실로 일구어낸 개인과 집단이 터득한 지혜가 담겨있다. 그 학교들중에는 마을학교를 비롯해 제퍼슨 카운티 열린학교, 메트로폴리탄 학습센터, 얼터너티브 커뮤니티 스쿨, 이스트힐 농장학교 등 다양하다.

지은이인 메르코글리아노52는 뉴욕주의 대안학교인 알바니 프리스쿨에서 32년째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직교사다. 2003년 겨울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과 민들레출판사의 초청으로 서울에서 강연하기도 했다.

공동체는 꿈을 키우는 좋은 학교

그는 좋은 학교란 유기적으로 만드는 곳이라고 말한다. "유기적 학습환경의 질서는 외부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 표준화되거나 살균 포장된 패키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질서의 원칙은 개개인의 내면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가능성과 자생력을 갖춘 아이들은 좋은 여건만 갖춰지면 스스로 싹트는 씨앗에 비유된다. 그는 또 좋은 학교는 공동체라고 지적한다. 협력의 장이자 구성원 모두가 발언권이 있는 곳, 상호합의에 기반을 두는 곳이다. 교사는 선배, 멘토, 안내자가 되어 학생들과 친밀감과 영감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면 과연 공부를 할까. 이런 의문에 대해 지은이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아서 골치 아팠던 적은 별로 없다.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호기심이 많다"고 답변한다.

이런점은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 자신도 공감한다. 자유롭게 질문하라고 하면 그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만큼 주어지는 자유를 철저히 즐길 줄 아는 것이 우리가 교육받은 구세대와 요즘 학생들이 다른점이다.

지은이에 따르면 2003년 2월 현재 미국 취학아동의 3%인 1백50만~1백90만명이 홈스쿨링을 선택하고 있다. 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이 지역특성에 맞게 교과과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공립학교인 차터스쿨(협약학교)이 37개주에 걸쳐 3,000여개나 설립됐다. 공립학교의 안정성과 대안학교의 실험성이 결합된 차터스쿨은 1999년에서 2003년 사이 40%나 증가했다. 우리의 경우도 1997년 간디학교에서 시작된 대안학교가 현재 70여개에 이른다.

지은이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정해진 공식은 없다. 영감, 인내심, 창의력, 결단력, 헌신성, 아이들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약간의 베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책의 사례는 우리와 많이 다르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을 돌아보고 교육의 주체는 제도가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그리고 학생임을 되새기게 만든다.

■**장혜원**(인천 용현초등학교 교사)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의 소리와 문양!
-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의 범종 -



한국 최초의 범종제작사로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종사는 지난 2002년 충북 진천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 20000관까지 제작 가능한 세계 최대의 주조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 최대의 범종제작사로 자리메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종사의 명성이 國內는 물론 海外까지 알려져,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日本, 中國. 臺灣, 싱가폴, 美國,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우리의 범종을 수출하는 등 국제시장에서도 탁월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최대인 광주 민주의 종(8150관) 제작중

성종사 범종만이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한 성종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에 흑색 페인트칠을 했던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실시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ungjongsa.co.kr E-MAIL : sungjongsa@hotmail.com

금강경의 주장자 84,000장경의 엔솔로지
빈손도 내려놔라
도서출판 여래. 저자 둔세승. A4 size 100% 칼라양장판 86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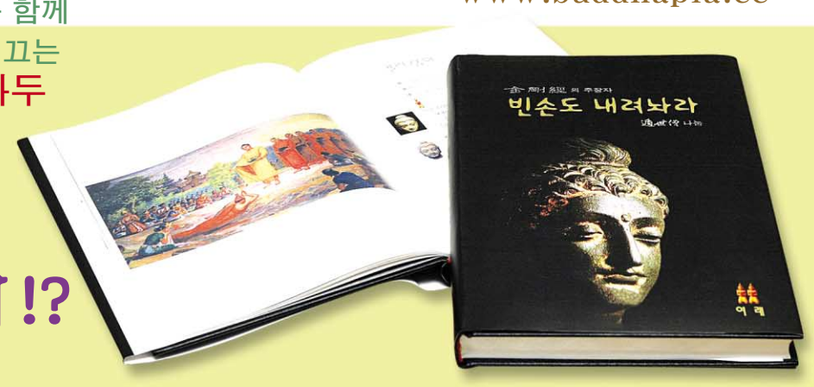
불교사상 처음 금강경을
의지해서 그동안 배우고 탁발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둔세승(세간을 등진 출가자)이라는
필명으로 밝힌 4차원적인 삶의
이정표가 되는 동시에
나는 알고있다라는 현대인들에게
1,000여편(세계불교문화유산)의
컬러 이미지와 함께
깨달음으로 이끄는
밀레니엄 화두

보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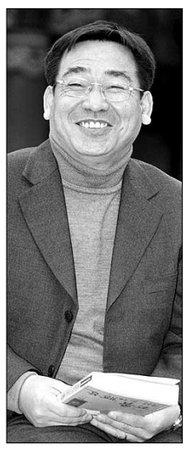


정가 / 상하권 100,000원

연락처 : 02)515-8289
053)744-9009
www.buddhapia.cc



아하! 불교가 이런거구나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불교입문서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기초교리와 수행법,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스스로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개론서를 써 보자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 개론서나 입문서는 초심자들이 '불교'라는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해주는 뗏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뗏목에 올라타는 것조차 힘들거나 그 목적지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불교의 본래 모습을 만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조계종 불학연구소 연구과장을 역임한 고명석 씨(포교원 포교연구과장 · 사진)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불교 입문서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유쾌하게 읽는 불교>란 책을 쓰게 됐다고 한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책은 '쉬운 불교 입문서'를 지향하고 있다. 딱딱한 교리 해설이나 피상적인 서술이

기초교리 · 수행법 · 역사 · 문화 등 입체적으로 불교 조명한 입문서

아닌, 생활 속의 체험과 일반인들이 쓰는 쉬운 언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불교의 기본 사상과 역사적 흐름에 이어 업(業)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지, 천도재와 방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오늘의 언어, 오늘의 삶에 입각해 설득력 있게 교리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불교의 모든 것을 독자와 함께 호흡하고 느끼며 '아하!' 하는 느낌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을 쉽게 설명한다는 것이 말처럼 수월한 일은 아니었다. 업, 연기, 중도, 공 등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 그것을 다시 읽고 사유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만도 2년이 걸렸다. 단순한 교리 해설에 그치지 않고 교리가 어떻게 신행과 수행, 문화로 연결되는가를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작업이었다.

"오늘날의 사회문제에 대한 답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불교의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겠지요."

입문서란 해당 분야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책은 아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불교에 대한 의문과 호기심이 생겼다면 비로소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이 달성된 것이 아닐까?

여수령 기자



유쾌하게 읽는 불교
고명석 지음 | 동숭동 | 9천원

폭력의 뿌리 파헤쳐보니…



부처와 테러리스트
사티쉬 쿠마르 지음 | 이한중 옮김
달팽이 | 6천5백원

'불자 테러리스트'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불성(佛性)이 있고,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자신을 여러 번 해치려 한 데바닷다나 999명의 선량한 사람을 죽인 앙굴리말라조차 제자로 받아들임으로써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셨다.

하지만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서로에게 총을 겨눈다. 자신이 믿는 종교를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성전(聖戰)'이란 말로 미화한다. <부처와 테러리스트>는 앙굴리말라라는 난폭한 살인마의 교화과정을 통해 폭력을 해결하는 것은 폭력이 아닌 자비와 사랑이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시대나 경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전하지만, 앙굴리말라의 일화는 잔혹한 살인마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수행자로 거듭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람들을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로 만들어 매고 다니는 앙굴리말라는 교활한 살인마이자 살아있는 '악'의 화신이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앙굴리말라의 두려움과 무지, 번뇌를 깨우쳐주고 제자로 받아들인다.

"앙굴리말라여. 나는 그대가 귀족과 부자와 권력자의 손에 고통 받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억압은 억압에 의해 끝날 수 없다. 불이 났는데 불을 더 끌어 붓는다 해서 꺼지는 것이 아니다. 무자비는 자비로, 증오는 사랑으로, 불의는 용서로 극복해야 한다. 증오와 폭력을 멈추어라. 그것이 진정한 멈춤이다."

지은이는 이 일화를 통해 우리 시대에 보편적으로 내재된 폭력의 근원을 발견하고자 한다. 지은이는 폭력의 근원은 두려움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극복하고 폭력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앙굴리말라를 감화시킨 부처님이나 교화된 앙굴리말라를 진심으로 믿고 살려주는 사비티 왕국의 파세나다 왕,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원수를 용서해 주는 수자타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앙굴리말라 등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다. 증오와 폭력의 길을 택한 앙굴리말라를 교화시킨 것은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악의 화신 앙굴리말라 일화 통해 내면의 두려움 극복하는 길 제시

<지그재그 선>의 저자인 앨런 헌트 바디너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유럽과 호주, 인도에는 앙굴리말라의 일화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교화 프로그램이 있다"며 "이는 내면의 두려움을 직시함으로써 자신과 남을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책을 지은 사티쉬 쿠마르는 1936년 인도 라자스탄에서 태어나 9살의 나이로 자이나교 승려가 되었으나 18살이 되던 해 승려의 길 대신 불가촉천민들을 위한 토지개혁운동에 참가한다. 73년부터 영국에 정착해 살고 있으며 91년 세계적인 생태교육기관인 슈마허 칼리지를 설립하는데 참여하는 등 생태적이고 영적인 교육에 힘쓰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재가자 위한 '계초심학인문'

계초심학인문 새로읽기
김호성 지음 | 정우서적 | 5천원



'출가해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책'. 바로 <초발심자경문>이다. 보조지눌 스님의 <계초심학인문>과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 야운 스님의 <자경문>으로 이뤄져 있는 <초발심자경문>은 우리나라 행자교육원의 필수과목이다. 이 세 권의 책에는 첫 마음을 내어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일깨우고 경계해야 하는지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김호성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는 <계초심학인문>을 <초발심자경문>에서 독립된 하나의 텍스트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님을 주된 독자로 삼아 씌여진 <발심수행장>과 <자경문>과는 달리 <계초심학인문>은 출가수행자 뿐만 아니라 재가수행자들에게도 읽혀져야 할 기본적인 교과서라는 것이 그 이유다.

<계초심학인문 새로읽기>는 보조 스님의 정혜결사 정신을 펴고자 <계초심학인문> 100회 강의를 발원한 지은이가 지난 1993년 발간한 책을 다시 펴낸 것이다. 보조선의 윤리적 입장이나 정혜결사에 대한 논문 2편을 삭제한 대신 원문에 대한 해설과 강의를 더욱 보강했다. 부록으로 원문 현토와 우리말 <계초심학인문>을 실었다.

알고보면 심오한 불교미술



사찰에서 만나는 불교미술
동국불교미술인회 엮음
대한불교진흥원 | 1만8천원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용어'의 생경함일 것이다. 전각의 종류가 대웅전, 대적광전, 극락전, 원통전 등으로 가지가지인데다 그 안에 모셔진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미륵불 등의 불상은 일반인들이 생김새만으로는 이름을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찰에서 만나는 불교미술>은 흔히 어렵게만 느끼는 불교미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불교미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이재순)가 펴낸 책이다. 1998년 발간된 초판의 내용을 더욱 보완하고 사진과 도판을 덧붙였다. 27명의 동국불교미술인회 회원들이 사찰의 의미와 불상 불화 전각 보살상 누각 탑 단청 등 사찰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불교미술을 설명하고 있다.

박현수 前 회장은 "불교미술은 불교의 사상과 문화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한 장르로 우리 전통미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책에서는 심오한 교리를 담고 있는 불교미술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한다. 풍부한 사진과 그림이 불교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하지만 올 컬러로 구성돼 책값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흠이다.

새로나온 책



■ **<신역 허응당집>**(이종찬 옮김, 도림 스님 펴냄, 불사리탑, 3만7천원)=조선불교를 중흥시킨 허응당(虛應堂) 보우(普雨) 스님의 시문집. 태균 스님이 보우 스님의 시, 법어 등을 모은 <허응당집>을 이종찬 교수가 우리말로 옮기고 도림 스님이 책으로 엮었다. 시와 편지 등을 통해 보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엿볼 수 있다.



■ **<아이고 부처님>**(학송 스님 지음, 바보새, 1만원)=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노동법을 강의하다 환갑이 지난 나이에 출가를 감행한 학송 스님의 에세이집. 수구암에서 정진 중인 스님이 <금강경>을 강의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들었던 예화와 생활 속의 수행이야기를 담고 있다. 효림 스님은 "이 책에는 학송 스님이 활공사 상가이자 금강행자로서 출가를 꿈꾸며 살아온 수행자로서의 이야기가 두루 들어있다"고 평했다.



■ **<틱낫한의 상생>**(틱낫한 지음, 진우기 옮김, 미토스, 8천9백원)=행복한 수행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틱낫한 스님이 프랑스 플럼빌리지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공동체 수행법을 정리, 소개한다. '소외의 치유' '분쟁을 해결하는 일곱 가지 방법' '가족의 마음을 살찌우기' 등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수행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용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2	오체투지	한 경 혜	반디미디어
3	입보리행론	샨티데바	하얀연꽃
4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5	영가천도	우룡 스님	효 림
6	붓다 그 삶과 사상	나카무라 하지메 외	무 우 수
7	도심 속의 도인 석주 큰스님	김 현 준	효 림
8	왜 사는가	무량 스님	열 림 원
9	한국의 선사들	김신곤 외	우리출판사
10	물 속을 걸어가는 달	김 진 태	학 고 재

도서 안내 : (02)737-0695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억겁의 체증을 통쾌하게 씻어주는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주)야단법석과 함께 할.... 모집합니다
· 수익사업을 생각하는 사찰
· 기금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신도회 불교단체
· 신행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갖고자 하는 불자
야단법석은...
● 운수사업부 -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봉축행사, 산사음악회 기획 연출
● 보현사업부 - 다음 생을 위한 법회, 사십구재보험

스님은 다비와 사십구재, 신도는 시다림과 사십구재
● 관음사업부 - 법회때마다 음향때문에 고생하셨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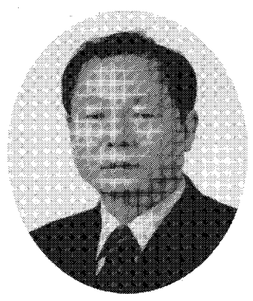
2005년 음향 임대 사업 시행
● 지장사업부 - 다비는 스님의 마지막 法門입니다.

충남 금산 서대산 일불사, 전북 정읍 용천사 지정 다비장 운영
문의 : 050-5244-0108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기존의 음향 시스템에서 스피커선 하나만 교체 하여도 음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 야단법석은 불기 2549(2005)년부터 음향시스템 임대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예산 때문에 제대로 된 음향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면 ㈜ 야단법석의 음향시스템을 임대하여 사용하십시오.
▌좋은 제품으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면 제품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목돈보다는 월 임대료로…
불사를 하다 보면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음향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여 법당장엄은 잘하고도 싼 음향 시스템을 설치하여 법회 때마다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관리를 해드립니다.
설치하고 몇 년 지나면 부품이 없어서 A/S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단법석은 책임지고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大吉)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건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424쪽 각권정가10,000 원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성명학-누구나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윤이상 선생이 생전에 자주 찾았던 베를린 집 근처 나루터. 선생은 호수를 보며 고향 통영의 기억을 되새겼다.

서거 10주년 맞는 윤이상의 삶과 음악세계



음악·불교·민족 선율에 평화로 회향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현대음악의 거장 윤이상 선생(1917~1995). 겨레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음표로 그어 올려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긴 그였지만, 그는 끝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독일에서 '상처입은 용'이 되어 승천했다.

2005년은 윤이상 선생이 서거한 지 10주기가 되는 해다. 그는 40년간 작품을 만들며 현대음악의 역사를 때때로 갈아치웠지만, 한국땅에서 쓰는 그에 관한 역사는 이제야 닻을 올린다. 이 땅의 문화예술인들, 세계의 지식인들, 그리고 생전 선생과 인연이 깊었던 각계의 뜻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 오는 3월 '윤이상 평화재단'의 이름으로 선생의 위업을 기리기로 한 것이다.

동양사상과 민족정신을 음악세계로 끌어올린 윤이상 선생의 음악과 불교, 민족 세 가지 테마를 통해 지금 우리 앞에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그를 조명해 본다.

"난무하는 음표속 정중동 느껴져"

3월 '윤이상 평화재단' 설립

▽ 음악-동양 정서에 서양 작곡법 빌린 양양성(兩洋性)

윤이상에 따르면 유럽의 음악은 '조립'되고 동아시아 음악은 '흐른다'고 한다. 서양음악에서는 하나의 음이 멜로디 속에서는 수평으로, 하모니 속에서는 수직으로 무리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동양음악은 다르다. 개개의 단음이 음악적 현상으로 고유의 생명력을 갖기 마련이다.

교향곡을 포함해 총 150여 곡을 남긴 윤이상의 음악에는 생동하는 단음이 거대한 사상의 깊이를 아우른다. 윤이상은 "내 작품은 어느 것이나 내 음악세계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작은 음형이라도 모두 작품 전체의 기본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것을 오선지에 그대로 옮겼다. 오페라 <심청>이 그러했듯 그의 작품 곳곳에 그 옛날 음악적 영감을 줬던 고향 통영의 앞바다가 스며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 같은 바탕 위에서 '동양적 의미성을 서양음악의 수법을 빌려 표현하는 양양성(兩洋性)'을 살렸다. 그는 불교, 도교 등의 동양적 정서에서 곡상(曲想)을 얻었지만, 서양 현대의 작곡기법과 악기의 도움을 빌어 음악화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동아시아 음의 관념이 살아있어 홍은미(서울대 음악대학) 교수는 "악보에 난무하는 수많은 음표들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단아함, 즉 정중동(靜中動)의 신비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 불교-<오 연꽃속의 진주여!> 대표곡, 불교식 장례 유언

윤이상 선생은 독실한 불교신자로 알려져 있다. 인천 용화사 송담 스님으로부터 청공이라는 법명을 받은 윤이상 선생은 자신을 지탱하는 동양적 사고의 핵심에 불교를 안치하고 그것을 작품세계에 투영시켜왔다.

<오 연꽃 속의 진주여!>(Om mani padme hum)는 그 대표적인 예다. '옴 마니 파트메 훔'은 산스크리트어로 관음보살을 염하는 말로, 윤이상 선생은 불경으로 된 가사에 곡을 붙였다. '연꽃' '고타마에게 묻는다' '갈증' '해탈' '열반' 총 5악장으로 되어 있는 이 곡은 소프라노인 제자가 스승에게 묻는 소리, 바리톤의 스승이 대답하는 소리, 합창이 찬동하는 '모든 살아있는 자'의 기도하는 소리로 구성돼 있다. 독일의 저명한 여류작가 루이제 린저와의 대담에서 "어릴 적 고향에서 들었던 스님의 불경소리와 목탁소리에서 음악적 영감을 얻었다"고 회고하는 그는 이 작품을 완성한 뒤 "나는 이 작품을 쓸 때 무척 행복했으며, 이 작품을 쓰는 일은 나에게 가장 친밀한 세계를 느끼게 해주었다"고 고백했다.

베를린라디오방송국에서 관현악곡의 작곡 위촉을 받아 작곡한 <바라>에서는 삼매의 고요함과 법열의 긴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바라'는 승무에 사용되는 악기 이름으로, 그는 동양 악기의 소리를 플루트의 장식음, 북의 연타 등 서양의 기법으로 완벽하게 복원해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도 불교전통음악인 범패를 소재로 만든 <나모> 등도 불교적인 정서가 녹아든 작품 가운데 하나다.



1995년 11월 윤이상 선생의 타계 당시 설정 스님이 베를린을 찾아 유족들과 유품을 태우고 있다.

그는 음악으로 메꿀 수 없었던 삶의 허기를 불교로 채우기도 했다. 노년에 병마와 싸우던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부처님께 기도"했고 송담 스님과의 전화통화로 심신을 추스렸다. 그리고 불교식 장례를 치뤄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1995년 78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했다.

▽ 민족-한국 음악계 학술대회·음악회 등 열어 관심 고조

윤이상 선생은 1967년 '동백림 간첩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세계적인 음악가와 지식인들이 이응노 화백, 천상병 시인 등 34명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에 항의하며 석방을 요구했고, 선생은 2년 뒤 다시 독일로 송환된다. 그리고 95년 눈을 감을 때까지 고국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래서 윤이상 작품에는 '민족'의 문제가 하나의 테마로 제시된다. 광주 민주화 투쟁을 배경으로 한 <광주여 영원히>, 분신을 주제로 삼은 그의 마지막 교향시 <화염에 싸인 천사> 등이 바로 그것이다. 독일의 언론이 보도한 대로 그는 현실문제를 껴안으면서도 정치적 선동으로 떨어지지 않았기에 음악적 순수성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범민족 통일 음악회'를 추진해 1990년 서울·평양·해외에서 성공리에 회향했으며, 음악을 통한 남북교류를 꿈꾸며 평양에 윤이상 음악연구소를 설립하고 윤이상 관현악단을 만들기도 했다. 특히 윤이상 음악연구소는 설립 이후 20년간 윤이상 음악회와 음악연구회를 이어오며 윤이상 연구의 성과들을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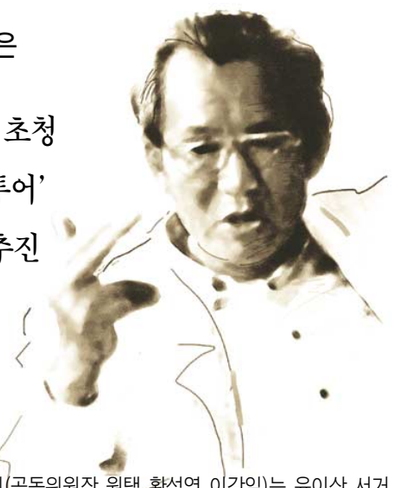
민족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한 그의 뜻은 한국 땅에서도 꽃을 피웠다. 그의 고향 경남 통영에서는 시 주최로 2000년 이래 윤이상을 기리는 통영음악제를 열고 있으며, 그를 계기로 한국 음악계에서도 윤이상 관련 학술대회 및 음악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 윤이상 평화재단은

'윤이상 관현악단' 초청

'평화콘서트 전국투어'

예술학교 건립 등 추진



윤이상 평화재단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원택 황석영 이강일)는 윤이상 서거 10주기를 맞아 1월 11일 대표발기인 모임을 갖고 3월쯤 재단을 공식 출범시키기로 결의했다.

98년 이후 조국평화통일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윤이상 명예회복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이어받아, 명예회복 운동은 물론 위대한 예술가이자 평화통일 운동가였던 선생의 생애를 조명하고 기리려는 목적에서다.

추진위는 일차적으로 루이제 린저와 윤이상과의 대담을 기록한 '상처입은 용'을 재발간하고 이를 영화로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윤이상 선생이 직접 설립한 평양의 '윤이상 관현악단' 초청 공연을 올해 중에 성사시킬 생각이다. 윤이상 작품을 주제로 하는 크로스오버 대중콘서트를 기획, '윤이상 평화콘서트 전국투어'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거 10주기를 기념해 국제 심포지엄과 독일-일본-한국 연주자들로 구성된 기념 음악회, 동백림 사건에 연루됐던 윤이상-이응노-천상병 3인 작품전 등을 기획했다. 이후 중장기 계획으로는 윤이상 작곡상 제정, 윤이상 장학사업회 설립, 윤이상 오페라 전곡 제작, 윤이상 예술학교 건립 등도 준비돼 있다.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법화 정법회.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 건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궁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17>



빈 처 (貧妻)

아주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바라나시국의 왕자가 부왕의 미움을 사서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부왕은 손톱만한 금붙이도 지니지 못하게 그야말로 발가벗겨서 아들 내외를 내쫓은 것입니다.

깊은 산 속으로 내몰린 왕자와 왕자비는 매일같이 산으로 들로 다니며 근근이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사냥하러 나갔다가 운 좋게도 큰 짐승 한 마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의기양양해 집으로 돌아와 포획물을 아내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수확이 아주 좋았소. 어서 불을 피우고 이 녀석을 삶구려."

아내도 모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서둘러 불을 피우고 솥에 사냥감을 넣었습니다. 한참을 삶다보니 자작자작하게 물이 졸아들었습니다.

'저런, 어서 가서 물을 길어와야겠다.'

아내는 남편이 요리를 지켜봐 주리라 생각하고는 물을 길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배가 너무나 고팠습니다. 슬쩍 솥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남편은 뚜껑을 열고 솥을 들여다보다 그만 유혹을 참지 못하고 채 익지도 않은 고기를 꺼내어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마침 아내도 자리를 비운 터에 배도 고팠고 모처럼 먹게 된 고깃덩이다보니 남편은 아내 몫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죄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야 물을 길어서 돌아온 아내.

그녀는 솥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예요? 솥 안의 고기가 어디로 사라진 거죠?"

아내는 짐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황당하여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나 본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대답을 좀 들어보십시오.

"어? 잘 모르겠는데…. 아! 맞다. 아까 보니 그 녀석이 되살아나서 솥뚜껑을 열고 제 발로 달아나버리더군. 숲 쪽으로 정신없이 도망치던 걸."

남편은 딱 잡아떼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추궁했지만 남편의 태도는 너무나 완강하였습니다. 남편의 그처럼 진실하지 못한 태도에 아내는 질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 일을 묻지 않았고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부왕이 세상을 떠나자 남편은 복권되어 신하들의 간청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연히 아내도 왕비가 되어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왕은 깊은 산 속에서 자신과 함께 고생해온 아내에게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선물하였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을 만큼 귀하디 귀한 보석을 받았건만 왕비는 조금도 기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물었지요.

"왕비여, 이 나라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비싼 보석이오. 그런데 당신의 얼굴을 보니 어째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소. 대체 무슨 속상한 일이라도 있는 것이오?"

그제서야 왕비는 오래 전 산 속에서 가난하게 지낼 때 자신을 속인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가를,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될 것을 딱 잡아뗀 그 진실치 못한 남편에게 얼마나 실망하였는가를 담담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때 비록 우리는 산 속으로 쫓겨난 신세였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서 두렵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견딜 수 있었고 산짐승의 위협도 당신이 있어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뒤 나는 산 속의 생활이 조금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고픈 유폐생활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도 더 이상 내게는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되지 못하였습니다."<불본행집경> 제12권

가난이 깊어져 마음마저 팍팍해질때 가장 가까운 이와 나누는 교감은 큰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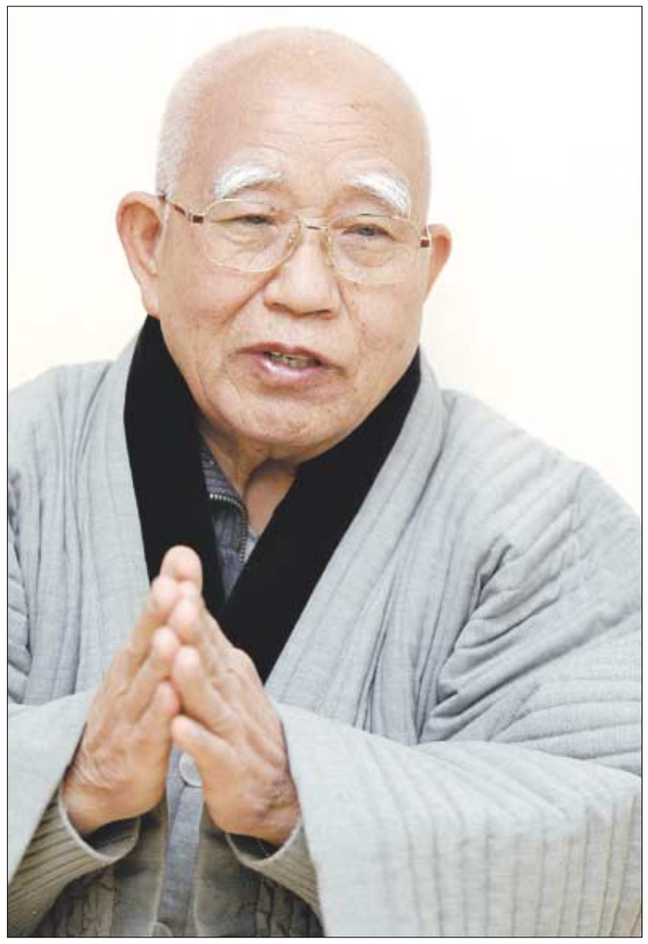
경전에서는 이 왕자가 바로 지금의 석가모니이고, 왕자비는 야소다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생의 일이 있었기에 야소다라는 싯다르타 태자가 값비싼 장식물을 아무리 많이 선물해도 반갑게 받아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난할 때 그 사람은 자기 본능에 가장 충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배고픔에 더 절실하고 자기변명에 더 매달리고 가까운 이에게 품는 서운한 감정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난한 이들이 무척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가난을 달래줄 수 있을까요? 야소다라의 전생 이야기에서 해답을 찾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솔직한 마음의 교감, 가난한 배우자를 향한 도탑고 변치 않는 배려…. 분명 이런 것들이 가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되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먼지 하나조차 본래 부처



수행자는 죽고사는 길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는 지옹스님. 스님은 청정계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본분이라고 말했다.



지상 백고좌

지옹 스님

(하동 칠불사 운상선원장)

평생 '선방수좌'로 살았다. 19살에 산문을 두드린 이후, 61년 동안 수좌로서의 본분을 한번도 잃지 않았다. 그 흔한 주지 소임도 맡지 않았다. 오직 화두만 들었다. 1970년에는 해남 대둔사 북암 옆에 손수 토굴을 짓고 13년간 몸과 마음을 혹독히 화두로 달궜다. '수도하다 죽으리라' 라는 일념(一念)으로 사무치게 수행했다.

지옹(智翁) 스님. 1월 19일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만난 스님은 법명처럼 '지혜로운 늙은이'의 모습이었다. 눈꺼풀을 가릴 만큼 자란 백미(白眉), 그리고 삭발 머리를 덮은 잔설(殘雪)이 그대로인 노사(老師)의 그것이었다.

뵙자마자 물었다. "수행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

다시 물었다. "평생 모범적인 수행자의 자세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행자가 갖춰야 할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수행자는 오로지 수행하는 사람이야. 그럼 왜 수행을 할까?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서지. 죽고 사는 문제는 일대사야. 수행자는 죽고 사는 길을 밝혀야 해. 그 길을 알려면, 청정계행을 굳건히 지켜야 해. 그렇지 않으면 수행할 수가 없어. 되지도 않아. 설사 금생에 수도를 마치지 못한다 해도, 내생에라도 수도를 마쳐야 해. 그때까지 딴 마음 먹지 않고 수행해 나가야 해. 이것이 수행자의 본분이야."

노사의 일침이었다. 으레 묻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뜨끔했다.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까?' 곧바로 여쭸다.

"수행하는데 참선이 가장 유익해. 그렇다면 선이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최초의 선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알아야겠지. 우주가 벌어지기 전에는 아무 것도 없었어. 그때는 막막하고 아득해 분별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지. 최초에 무엇이 벌어졌을까. 자연적 이치로 물기(水)가 갑자기 생기고, 그 다음에 바람(風)이 생겨 그 수분과 한 덩어리가 됐지. 그 다음에는 불기운(火)이 생겨 그 앞에 물, 바람 불기운과 한 덩어리가 됐어. 그리고 땅기운(地)이 생겨, 자연적 이치로 한 덩어리가 됐지. 사대가 한 덩어리가 된 것이야. 이 사대가 우주에 한 덩어리로 모여 밝은 '둥근 달'이 됐어. 실상도 헛된 상도 없고 유무의 관계하지 않는 '둥근 달'이지. 그대로 우주법계야. 이것이 선의 당체(當體)지. 그 당체는 사대가 뭉쳐서 화현됐고, 이것이 우주가 됐어. 선은 이 둥근 달을 관조하는 거야. 그것을 보는 것이 선이지.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선이 아니거든."

우주와 내 마음은 한덩어리

선뜩 이해가 되지 않았다. 스님이 말하는 '둥근 달'은 무슨 의미일까. 다시 여쭸다.

"사실 선을 알기는 힘들어. 선에는 말이 붙지 않아 그 모습을 제대로 보기 어렵거든. '우주가 한 덩어리'라는 당체를 알면 돼. 그러면 딴 길로 나가려고 해도 딴 길로 가지질 않아. 또 분별할 물질도 없게 돼. 즉 상대가 없어진다는 소리야. 그러다보면 병통도 없어져. 화두가 잘 되도 잘 된다는 생각이, 안 된다고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되거든. 오직 '그것뿐'이 돼."

선에는 우주도 세계도 상대도 벌어진 것이 없다는 스님. 그래서 취하려 해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처님도 역대 많은 조사들도 이렇게 깨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오늘날의 불교현실을 지적했다.

을유년 설맞이 건강용품 특별기획전

희담보료 구매고객에게 희담석 좌복 무료증정 (2월28일까지)

희담석 보료 한정 할인판매 (딱 10분께만 기회를 드립니다)



▮ 희담석 허리팩 + 어깨팩 세트 초특가 판매
· 정가 110,000원 → 88,000원



▮ 희담석 방석
· 198,000원 → 178,200원
· 크기 : 385mm X 355mm
· 색상 : 회색, 살구색



▮ 희담석 찜질팩(신형)
39,800원 → 38000원
· 기존제품의 두배반 이상의희담석원료 사용



▮ 희담석 지키미 20,000원
· 크기 : 65 X 65 X 10mm



▮ 희담석 좌복
· 360,000원 → 298,000원
· 크기 : 720mm X 390mm
· 색상 : 회색, 살구색
· 희담석의 뛰어난 생체 활성
메커니즘을일상생활에서 느껴보세요.

▮ 스님용 희담 보료(보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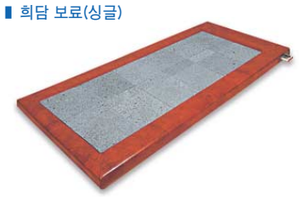


· 2,800,000 → 1,980,000

희답 원석 중 원적외선의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한 후, 수면시 자연스럽게 세포의 활력을 높이고 각종 지병 등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스님용 보료는 아담한 사이즈로 스님들의 좁은 수행처에 설치하기 적합합니다. 좌선등으로 활동 시간이 적어 신체대사가 원활치 못한 스님들의 신체 활성화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보료사이즈 : (900mm x 1,900mm x 100mm)
▶ 희담석사이즈 : (600mm x 1,500mm) → (300mm x 300mm x 16mm)
⇒ 10개 원석의 두께 : 1.6cm
▶ 보료의 외피 : 사무드 (고급 인조가죽)
▶ 온도조절기 : 특수 내장형 슬라이드 방식으로 보료 윗면의 전자파 완전 차단

▮ 희담 보료(싱글)



· 4,000,000 → 3,200,000

희답 침대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에너지 파장의 방사능력인데, 옥(玉)등 타 제품의 경우 상온(常溫)에서의 파장은 극히 미미한데 비해, 희담석은 파장의 투과력이 높아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그대로 투과하므로 상온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40˚C ~ 60˚C의 온도로 껌질도 할 수 있습니다.

▶ 보료사이즈 : (1,000mm x 2,200mm x 100mm)
▶ 희담석사이즈 : (700mm x 1,800mm)
원석의 두께 : 3cm(300mm x 300mm x 30mm) ⇒ 12개
(100mm x 300mm x 30mm) ⇒ 6개
▶ 보료의 외피 : 이태리 전연가죽
▶ 온도조절기 : 특수 내장형 슬라이드 방식으로 보료 윗면의 전자파 완전 차단

★ 행사기간동안 서울, 경인지역 설치비 무료, 그외 지역 10만원

마하몰에서 알뜰 쇼핑하세요!

1. 인터넷 마하몰에서 삼성,신한카드로 5만원이상 결제시 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2004. 2월 28일까지)
2. 5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불자달력을 드립니다. 10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불보살 캐릭터 액자를 드립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주문전화 02-732-1520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지금은 역대 조사와 선사들이 자기식으로 해석해 법문하다보니, 선이 어지러워졌어. 하근기들은 제대로 선을 배울 수가 없게 됐어. 그러니 요즘 사람들이 불법을 믿어도, '어떤 것을 믿어야 옳을까' 하고 불법의 정체를 못 잡아내고 있어. 역대 조사와 선사들이 지껄어댄 법문들이 불교를 망쳐놓았기 때문이야. 불교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오히려 불교를 망쳐 놨어."

그럼, 선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 스님은 '저울의 비유'를 들었다.

"저울에 근을 달 때는 한 쪽으로 기울지 않게 반듯이 달아야 해. 선수행도 마음을 잘 조절하면 돼. 너무 급하게도 늦게도 하면 안 돼. 마음만 조정하면 선수행을 순조롭게 하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선수행법에 대한 법문은 계속 이어졌다.

"그렇게 하다보면 마장이 어김없이 오게 돼. 그때는 망상을 가만히 놔둬. '선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분별심에도 치우치지마. 잘 돼도, 잘 못 돼도 그대로 놔둬. 가만히 마음만 들여다보면, 망상이 선과 한 덩어리가 되거든. 즉 '무자'든 '이뭣꼬'든 화두 들기 이전의 내 마음을 관하면, 망상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내 화두 '한 생각'만으로 걸어나가는 길이 와. 반드시 그 길은 오게 돼 있어. 안 오는 사람이 없지. 그러면 망상이 그대로 없어져. 화두 들고 나오는 '한 생각'만이 쭉 나오게 돼. 그때를 기멸(起滅)이 끊어졌다고 하지. 그런 경지에 도달하면 화두를 타파했다고 하는 거야. 깨달았다고 하는 거지."

禪 잘된다 안된다 분별 놓아야

스님은 '실상도 헛된 상도 없는 당체, 그 우연적인 사대(四大)가 한 덩어리로 뭉쳐 유무를 초월한 달이 됐다'는 화두를 들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멸을 끊었다는 화두 타파는 '유무를 초월한 달'을 관한 것이다. 여기서 '화두를 타파했다'는 것은 본래 있는 달을 봤다는 뜻으로, 이것이 바로 성불의 당체다.

달리 말하면, 달을 향해 바로 보라는 말이다. 가리키는 손가락은 필요 없다는 의미다. 기멸이 끊어진 데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만 의심이 없어지고, 우주법계가 자성체와 한 덩어리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자 화두가 이런 도리고, '이뭣꼬'가 이런 도리라는 것을 아는데 아무런 막힘이 없다. 이 때를 견성했다고 한다. 삼라만상은 물론 먼지 하나도 모두 다 부처라는 것을 보게 된다. 모두가 '본래성불'임을 견성해서 '바로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다.



"수시로 할수 있는 염불선 수행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좋지" 스님은 이 말을 당부하고 곧장 선방으로 돌아갔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 '아이고, 부처님 말씀이 필요 없는 것인데, 괜히 쓸데없이 고생했구나. 부처님이 나를 애 먹인 사람이 아닌가' 하고 말이야. 그렇다고 그 생각에 머물지는 않았어. 점검을 받았지. 화두를 바로 깨친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지."

스님은 75세 때 구례 화엄사에서 오도송을 짓고, 인천 용화사 송담 스님을 찾아가 점검을 받았다. 이후 안거 결제날에 맞춰 용화사로 찾아간 스님은 법문만 하고 나가는 송담 스님을 붙잡고 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도송을 얻른 내보였다.

'전하지 못하는 묘한 이치는(不傳之妙) / 모든 부처님도 알지 못했으나(諸佛不知) / 우주 만상 모두가 똑 같이 갖춰져 있어(萬相具足) / 봄날은 따뜻한데 꽃과 잎이 피었도다(春陽花草)'

"스님이 '됐다'고 하더군. 웃으시더군. 송담 스님과 인연은 30년 전에 용화사에서 함께 살면서부터야. 법거량도 많이 했었지."

스님은 이어 견성에 대해 말했다. 선수행을 마치는 것은 본래 자성을 보는 견성이고, 견성한 당체는 실상도 헛된 상도 없는 둥근 달이 화두임을 본 것이라고 했다. 선은 그것을 바로 보는 견성법이라는 것이다. 가령 돈오돈수의 뜻을 '본래 깨달아 있고 본래 닦을 것도 없는 근본 자리를 견성한다'는 것으로, 이를 보면 공부를 마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 견성한 다음에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스님은 그 다음 공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견성 이후 공부는 다생겁래 익힌 업장을 녹이고, 용무생사(用無生死:생사 없는 도리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 하는데 있어. 즉 깨달음 이후의 공부는 '뜻대로 모든 만법을 자유자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한 것'이야. 이것을 보임(保任)공부라 해. 만법을 뜻대로 자유자재로 해 막힘없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보임공부를 마친 것이고, 이 때를 부처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라고 하는 거야. 그 때를 불법을 다 공부한 단계라고 말하지."

마음 관하면 망상과 선도 하나

스님의 말끝에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간화선 수행법이 과연 현대인들에게 잘 맞을 수 있을지 궁금증이 일었다. 곧장 재가불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에 대해 여쭸다.

"물론 간화선 수행이 힘들어. 잘 되지를 않아. 그런데 염불선(念佛禪)은 재가불자들의 수행법으로 바람직해. 재가불자들의 생활방도로써, 염불선을 하루 한번 15~20분 정도, 아미타불을 간절히 불러. 일평생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선을 하는 거지. 이것이 염불선이라 하는 거야.

염불선은 이렇게 하면 돼. 첫번에는 고성지(高聲持)로 해야 해. 큰소리로 부르는 것야. 그렇게 익혀서 조금 힘을 얻게 되면 옆에 사람이 들을까 말까 하는 미성지(微聲持)로 하고, 그래서 힘을 얻어 나가면 혓바닥을 놀리지 않아도 되는 비동설지(非動舌持), 즉 혓바닥을 놀리지 않아도 저절로 염불이 나간다는 경지야. 자꾸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힘이 생겨. 그렇게 힘을 얻으면 금강지(金綱持)로 들어가게 돼. 금강지로 들어간다는 것은 염불할 것도 없고 선정할 것도 없고 하려고 할 것도 없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되는 경지야. 그게 염불선이야."

스님은 참선하다가 생멸이 끊어지면 견성하는 것처럼 금강지에 들어가면 아미타불을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아미타불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했다. 간화선은 처음에는 큰 것을 들고 나가는 것이지만, 염불선은 처음부터 자신의 업을 살살 녹여 금강지로 들어가 선의 이치를 알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쉽다고 말했다. 재가불자들은 물론 수좌들에게도 바른 수행방편이라고 당부했다.

글=김철우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기자가 뵌 지옹 스님

찰나의 알음알이도 허락않는 선가 전통 보여줘

스님은 인터뷰 내내 좀처럼 틈을 주지 않았다. 말끝에 의심이 일어나도 묻기 무섭게 자르셨다. '왜 그리고 어떻게'로 머릿속이 꽉 찬 기자의 물음들이 연신 겉돌았다. 대신 스님은 간화선과 염불선 수행법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주셨다. 문답에는 찰나의 알음알이도 허락하지 않는 선가의 전통을 몸소 보여줬다.

스님의 수행이력은 송담 스님과의 인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송담 스님이 "지옹 스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사람을 보니 늘 진실해보여 항상 오기를 기다렸다"고 했다고 한다. 또 송담 스님에게 오도송을 보였을 때도 "뭐 아는 사람끼리는 말할 필요가 없지. 이심전심이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스님의 수행은 선원 대중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까마득한 후학들과 함께 안거 때 방부를 들이고 흔들림 없는 수행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80회향 증도가'를 쓰고 전국 선방에 3천여 권을 법보시한 스님은 요즘 당찬 원력을 세웠다. 앞으로 100세까지 20년을 더 포교하겠다는 것. 전법도량을 지어, 사부대중을 가리지 않고 함께 공부하는 도량을 만들 생각이다. 이를 통해 부처를 만들어내는 선불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1925년 경북 울진에서 나서 44년 금강산 마하연에서 철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 47년 상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은 스님은 해인사, 통도사, 봉암사, 화엄사, 대둔사 북암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다.

지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효림 스님



모든 게 안개에 가린 듯 암담했다. 암담한 시절이었다. 그 안개를 걷어내고 새롭고 좋은 인연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여러 스님들이 뜻을 모았다.

종단은 자꾸만 피폐해져 가고 있었고, 이러다간 안 되겠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천년도 훨씬 넘게 이어져 온 한국불교가 지금 종단을 이끌고 있는 어리석고 탐욕에 찌든 모모한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의견들이었다.

천구백구십이년, 이러한 의견들이 수렴되어 여러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창립되었다.



그림 · 문병성

'선우도량' 스님들과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의논했고, 뜻을 같이 하기에 이르렀다.

효림 스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스스로 그야말로 총대를 메었다.

1994년,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선우도량 스님들은 조계종 총무원으로 들어가 집행부를 해체했다. 새로운 한국불교의 앞날을 위하여 그들은 모든 고통을 감수하며 소신껏 밀고 나갔으나 스님들의 앞에 놓인 벽은 너무나 두터웠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종단개혁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효림 스님은 많이 괴로워했다고 전해들었다.

효림 스님은 불교신문 사장을 맡아 일했다. 책을 좋아하고, 글을 좋아하는 스님은 진정한 불교언론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는 그렇게 지내다 총무원을 나와 독서와 저작에 몰두했다.

선우도량 도법 스님과 지선스님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청했고,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우리네 삶이 다 그러하듯 어디 마음대로 뜻대로 되기가 그리 쉬운가.

한참동안 그는 헤매다 평소 그가 늘 생각해 왔고 소망하던 글쓰기에 전념하며 평온을 되찾았다.

성남에 있는 봉국사에 머물며 그는 지친 심신을 추스르고 그간의 일들을 되돌아보는 그 나름의 전기를 마련했다. 집필은 또 다른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허나 그는 그 여러 가지 힘든 역경을 이겨내면서 스스로를 키워나갔다.

<힘든 세상, 도나 닦지>이런 제목으로 펼쳐낸 그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부끄러워했다.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행로(行路)를 아프게 걸어왔고, 또한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지를 느꼈기 때문이다.

새벽의 산중. 물안개가 조금씩 피어 올라오는 산중에 앉아 효림 스님의 책을 읽으면서 무안한 감회에 젖는다.

사람은 늘 오고 가지만, 시절도 무상하여 그렇게 오고 가지만, 한 사람의 생애는 그의 모든 행로로 판가름나게 마련이다.

효림 스님, 그의 순수 무구한 웃음소리가 듣고 싶어지는 이 추운 겨울밤에 감히 붓을 들어 이런 이야기를 펼친다.

그를 본 지 한참 지난 어느 때. 나는 그가 파주에 있는 보광사 주지를 맡아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그곳에서 또 다른 여러 책을 펴낸 걸로 알고 있다. 스님에게 있어 이제 집필과 저작은 하나의 숙명처럼 그의 곁에 자리 잡은 듯하다.

1992년 '실천승가회' 창립 앞장
'실천불교' 이사 맡아 실무 복귀

효림 스님은 1968년에 인천 보각사에서 소천 스님을 은사로 하여 사미계를 수지했다. 이후 봉암사 선원과 해인사, 송광사 등에서 안거하며 두루 납자들과 교류했다. 그런 그가 나서길 꺼려하는 총무원의 그 어려운 역할을 어찌하여 자임하고 나섰을까? 그것은 우직한 그 나름의 소신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요즘 도반들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를 재편하여 '사단법인 실천불교'를 새롭게 창립했다. 지선 스님을 대표로 하여 새롭게 태어난 실천불교는 앞으로의 우리 종단을 여러모로 신선하게 살펴나갈 것이다. 효림 스님도 이사를 맡아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들었다. 그의 우직함과 당당함이 소신껏 펼쳐지길 기대한다.

한편 청화 스님은 <실천불교>지에 축시를 보내 모두를 격려했다.

첫눈이 내리는 밤에는
바람이 없는 바다다.
…
캄캄한 밤바다
멀리 누군지 잠 안자고
불 밝히는 섬을 향하여…

■ 봉화 청량사 주지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효능이 좋다고 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멎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일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만삼달인 물(만삼생즙 10kg · 참기 · 잔대 · 삼지구엽초 · 생강 · 대추 · 감초)
● 1Box(60포 =20만원) ● 2Box(120포 =3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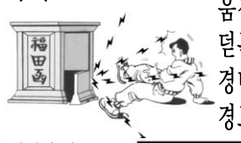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시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최 고 의 선 물

2005年新/製/品

스님用 滿行靴

본 제품은 수제화로 특수 제작되었습니다.

• 상표등록출원 제 29556호
• 의장등록출원 제 35872호



■ 색상 : 회 색
■ 규격 : 215~290(mm)
■ 보급가 ₩60,000
■ 불자용 색상은 보라색, 흑색
■ 만행화(滿行靴)털신 특징
① 발, 볼, 등 갑안 스님 치수에 맞도록 수제화로 제작하였습니다.
② 겨울 동절기에 냉기를 차단하는 특수 바닥창 논스립 우레탄 소재.
③ 외부소재 극세사 천연 방수 원단으로 내부에는 특수털로 내장 제작.

※ 스님, 도반님께 선물용으로 참 좋습니다.

만행화 www.manhaenghwa.co.kr

주문전화 TEL : (02) 927-5715 H.P : 011-9000-5715

농협 063-12-250427 예금주 : 구자민

산사에서 설날 맞을까



음력 1월 1일 0시가 되는 순간 시작되는 범종 타종식.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시간, 촛불을 밝히고 경건한 마음으로 새해소원을 발원한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동심으로 돌아가 고구마를 구워먹고 있는 모습.

"설날을 사찰에서 보내고 싶다."

이번 설날은 연휴 기간 앞 뒤로 1~2일의 추가 휴무를 보태 최대 6~9일간의 긴 연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긴 설 연휴기간 동안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설날 맞이 템플스테이 행사가 펼쳐진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탁 트인 바다와 마주하고 있는 사찰, 혹은 울창한 숲속 고요한 사찰에서 새해를 설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질적인 연휴 시작일인 7~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이뤄져 있다.

설 연휴 8곳서 내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 개최

동해안의 관음 기도처로 이름 높은 낙산사에서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지나간 한해에 대한 소감과 새로운 다짐을 쓰는 시간을 갖는다. 더불어 전통음식 만들기(만두 빚기)와 전통놀이(성불도 놀이)를 하며 가족들과의 우애를 다질 수도 있다.

음력 정월 초하루가 시작되는 순간, 웅장하게 울리는 범종소리를 들으며 떠오르는 해를 기다릴 수도 있다. 고양시 흥국사는 북한산 등반과 설맞이 타종식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있으며, 공주시 갑사에서는 계룡산 삼불봉을 올라 정초 해맞이를 하는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자광사, 강화국제연등회관, 골굴사는 설을 맞아도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외국인 및 해외입양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설날 아침 합동차례를 지내거나, 스님과의 따뜻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설날'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아예 가족단위로 접수를 받는 사찰도 있다. 해인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료로 모시고 설날 아침 세배와 새해 덕담을 듣는 시간을 준비했다. (02)732-9927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일정

사찰명	인원	참가비	날짜	프로그램	연락처
강화 국제연등회관	30명 (외국인 20명, 한국인 10명)	1박2일 4만원, 2박3일 6만원	2월 5일~10일	좌선, 예불, 다도	(032)937-1033
흥국사	20명	2만원	2월 6일~5일	탑돌이, 명상, 북한산 등반, 타종식	(02)381-7970
해인사	10가족(선착순 접수)	2월 8~9일	가족 당 10만원(할머니, 할아버지는 무료)	설날 세배, 새해 덕담	(055)934-3110
갑사	30명	6만원	2월 7~9일(2박3일)	민속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상품시상, 설맞이 정초 해맞이(계룡산 삼불봉)	(041)857-8981
자광사	20명 (외국인, 해외입양인)	자유보시	2월 8일~10일	설날 아침 합동차례, 계룡산 등반, 스님과의 대화(자신의 정체성 찾기-해외입양인)	(042)822-9220
미황사	30명	3만원(1박2일)	2월 4일~13일	참선, 다도, 스님과의 대화	(061)533-3521
낙산사	50명	10만원	2월 8일~10일 (2박3일)	만두 만들기, 참선, 다도, 요가, 반야심경 사경, 소감문 쓰기, 윷놀이(성불도 놀이)	(033)672-2448
골굴사	100명	2월 7일~10일	내국인 3만원, 외국인 4만8천원	선무도 수련, 다도, 좌선	(054)744-1689

전시

군밤 까먹고 나무 곤충 만들고

청주한국공예관 겨울공예 페스티벌 2월 19일까지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 딱지 등의 민속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겨울공예 페스티벌.

"아빠, 엄마와 함께 전시회도 보고 공예품도 만들어요."

온 가족이 작품 감상도 하고 다양한 공예체험과 다도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청주한국공예관(관장 유인기)은 올해 첫 프로젝트 '따뜻한 겨울, 행복한 공예 페스티벌'을 1월 28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 달간 개최할 예정이다.

1층에서는 가족과 함께 다도사범에게 차 마시는 법을 배우고, 화롯불 옆에서 군밤을 까먹고 지역 도예가의 지도로 토우 등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고향답게 직지를 문화상품으로 가공한 공예품을 10~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2층에서는 '겨울이야기'라는 테마로 옛 아낙네들의 겨울철 삶을 엿볼 수 있는 규방공예품과 민예품을 구경할 수 있으며, 4층 공예교실에선 한지공예품 만들기, 나무 곤충 만들기, 리본공예 등 다양한 공예체험을 즐길 수 있다.

청주한국공예관 유인기 관장은 "앞으로도 전시 위주의 행사가 아닌, 오감체험형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43)268-0255

이은비 기자

한국 전통사경 뉴욕 첫 전시

김경호씨 뉴욕 한국문화원서 초대전



자지금니 길상팔보도.

마음을 붓끝에 모아 경전글귀를 한 자 한 자 옮긴다. 매순간 일념으로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참선 못지않은 수행 방편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장엄하는 공덕으로도 중시돼 왔다.

한국 전통사경의 길을 개척해온 한국사경연구회장 김경호씨가 2월 4~11일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전통사경 초대전을 갖는다. 전통사경 10점, 보살도 · 비천상 등을 사경과 접목시킨 불교미술 응용사경 20점, 탁본 · 인경한 작품 위에 사경한 응용사경 10점 등 총 40점을 공개하는 자리로, 미국 뉴욕에서 전통사경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예 및 사경 소개 퍼포먼스, 전통사경 슬라이드 강연 등의 전시이벤트(2월 8일 오후 6시 30분), 사경과 관련한 김경호씨의 사찰 순회 강연(뉴욕 정명사, 뉴저지주 원적사, 한국문화원)도 예정돼 있다.

김경호 회장은 "이번 뉴욕초대전을 기점으로 인쇄문화를 촉발시킨 사경의 예술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뉴욕 한국문화원 (212)759-9550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희담석 찜질팩 세트

올 설에는 근육통과 오십견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께 희담석 어깨 · 허리 찜질팩 세트를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몸에 좋은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희담석 찜질팩의 정가는 11만원이지만 현재 마하몰에서 8만8천원으로 세일하고 있다. 표피: 무독성 PVC sheet (항균 99.9%의 금가루 첨가), 내용물 : 희담석 가루, 물, 수지 (02)732-1520



게시판

영남불교대학 방생법회 영남불교대학은 2월 14일 경남 마애사, 운흥사에서 정초 방생기도를 봉행한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일주일 전까지 전화로 신청해야하며 동참금은 2만 5천원이다. 출발은 대구 고등학교 앞에서 오전 8시까지. (053)475-8226

무료 피부 · 비뇨기과 진료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피부 및 비뇨기과 진료를 실시한다. 문의 및 접수는 1층 건강상담실로 하면 된다. (02)804-4058

참선 강좌 우곡부산선원은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참선교육 강좌를 진행한다. 매주 화, 목요일마다 참선에 대한 개괄적인 이론과 좌선, 호흡법, 선-참 품세, 선 기공법, 실상관법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051)740-6288~9



양정청소년 수련관 단기특강 양정청소년 수련관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일반인 및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단기특강을 마련했다. 발마사지, 살사댄스(사진), 영상촬영 및 편집기술, 애니메이션 만들기, 만화그리기 등 다양한 강좌를 듣고자 하는 지역 청소년 및 주민은 14일전까지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일반인 2만5천원, 청소년 2만원. (051)868-0750

20면 상식 퍼즐 정답

성	조	기		곤		
도		권	리	장	전	
재			스		봇	
일	기				대	어
	모		교			부
	노	고	지	리		지
		래		콜	금	리

극장가



그때 그사람들 / 미스테리 / 110분
개봉예정일: 2월 3일
감독: 임상수
출연: 한석규, 백윤식 등
등급: 15세 이상
명령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충직한 부하 영조와 순박한 준형, 경비원 원태 그리고 해병대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목된 운전수 상욱까지. 영문도 모른채 주 과장(한석규 분)의 명령에 따라 각자 위치에서 대기중인 부하들은 김 부장(백윤식 분)의 총소리를 기다리는데…



B형 남자친구 / 로맨스 / 100분
개봉예정일: 2월 3일
감독: 최석원
출연: 이동건, 한지혜 등
등급: 12세 이상
뒤늦게 하미(한지혜 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영빈(이동건 분)은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노력하지만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만다. 'A형' 여자와 'B형' 남자, 최악의 조합인 이 둘의 만남은 어느날 영빈이 선배 경준의 제안에 응하면서 어긋나기 시작하는데….



클로저 / 드라마 / 98분
개봉예정일: 2월 3일
감독: 마이크 니콜스
출연: 줄리아 로버츠, 주드로 등
등급: 15세 이상
뉴욕에서 앨리스(나탈리 포트만 분)와 함께 지내기로 한 댄은 그녀의 인생을 소재로 글을 써서 소설가로 데뷔한다. 그러나 책 표지 사진을 찍기 위해 만난 사진작가 안나(줄리아 로버츠 분)와 첫눈에 반하고 만다. 또 다른 강렬한 사랑의 시작, 댄은 물론 안나, 앨리스 모두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데….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서울 FM 101.9 MHZ / 부산 FM 89.9 MHZ / 광주 FM 89.7 MHZ / 대구 FM 94.5 MHZ / 청주 FM 96.7 MHZ / 춘천 FM 100.1 MHZ

31일 14:05 음악의 마을
1일 17:10 무명을 밝히고
2일 18:15 뉴스 파노라마
3일 10:05 BBS신행상담실
4일 20: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5일 12:10 황승환의 뮤직펀치
6일 07:40 참선이야기

Btn 불교TV —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31일 09:20 자비수관
1일 07:50 참선요가
2일 23:40 한국의 명찰
3일 12:00 산중대담 선지식을 찾아서
4일 17:30 우리시대의 장인
5일 16:40 부처님경전이야기
6일 21:50 혜정정사의 밀교수행강좌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2월 4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영어법문 〈디스커버링 부디즘〉(2월 4일 오후 10:30~11:10) 티베트에서 수행, 포교를 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의 영어법문을 쉽고 과학적인 접근방식으로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 불자가 아닌 이들도 관심을 갖고 불교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제10회 신행수기 입상작
특별상(태고종 총무원장상)

기도에 관한 몇가지 소고 (상)

서경자 (서울시 은평구 불광1동)



그림 · 문병성

내 몸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공부 안하면 물러나지 않으리…

99년 28살의 늦은 나이로 대학입학시험을 치르면서 두 가지 서원을 세웠었다. 하나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3000배를 하는 것이었다.

원하던 대학에선 합격통지서가 오지 않았다. 다만 채플이 필수과목이며, 입구의 커다란 십자가가 내 어깨를 짓누르던 기독교 대학에 입학금을 접수해 놓았을 뿐이었다.

절 하러 대구로 떠나면서 다짐했다. 다니겠노라고. 열심히 배워 거듭나겠노라고.

3000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던 어머니가 먼저 건넨 건 인사말이 아니었다. "네가 원하던 대학에서 전화 왔어. 등록금 가지고 9시까지 입학사무처로 오래."

작년 여름, 해인사 수련회에 참가하러 가면서 베갯머리에서 기도를 올렸었다.

마음에 두고 있던 남자를 해인사로 보내달라고. 그가 만약 현명하고 일에 협조적이고 예절바르고 총명한 동반자라면 기꺼이 그의 리어카를 끌어 줄 터이니 그를 내게 보내달라고.

행동의 제약이 많았던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경 후에 찾은 해우소 앞에서 나는 놀랍게도 그와 마주할 수 있었다. 그의 여자와 함께. 작년, 나는 내가 일하던 유치원의 '재위탁평가'를 앞두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탈락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경력 10년차인 베테랑 교사로서의 자존심은 차치하고서라도 부처님 하시는 일이 여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무렵 다라니 독경을 하였는데 마음이 모아지질 않았다. 기도의 첫 번째 자세는 하심(下心)이요, 마음을 비우는 것인데 당시 그러하질 못하였다. 여러 가지 욕심이 마음 곳곳을 뛰어 다녔다.

불교사회복지재단에서 우리를 놓았을 무렵 재단에서 집 가까운 불교유치원으로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제안해 왔을 때 나는 흐느끼며 재단을 떠나왔다. 원장님이 떠나신 자릴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그 구질구질하던 동네의 아이들 모습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데 나는 3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이다.

올해 초 골수 기독교 신자인 새 원장님이 부임해 오셨을 때 하루의 일과를 브리핑하며 신임 원장님을 도우려는 결심은 원장님과 의견충돌을 겪으면서 대립하기 시작했다.

만자 반지에 옴자 목걸이를 하고 단주를 손목에 차고 원장실에 들어갈 때면 원장님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난감해 하셨다.

주임요청을 거절하고 영아반을 배정받았을 때 영아반 주임까지 거론하는 원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아반 전문'인데 영아반으로 내려가는 것이 강등처럼 느껴져 싫었다.

교사들의 중재로 사직서는 반려되고 나는 영아반 교사가 되었다. 불만족스러웠지만, 돌이켜보면 홀가분하고 가벼운 시간이 찾아왔다. 모든 세력과 기득권을 내놓고 일에서 멀어지고 마음도 비우니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원장님께 과잉 충성하느라 아이들을 동원할 필요도 없었고 혹시 밤새 불이라도 날까 3층까지 시설점검을 다니며 코드를 뽑던 열정도 없어졌다.

그러나 꼼꼼하고 독실한 현 원장님은 그 어느 원장보다도 유치원을 청렴하게 운영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불교가 하지 못한 일을 기독교가 한다면 그 또한 법이지 아니한가? 내가 걸어온 길이 부끄럽지 않았으매 당신 또한 그러하리라.

영아반은 교실 당 교사가 2인인 덕분에 휴가를 편하게 쓸 수 있었다. 덕분에 나는 그 전부터 하고 싶었던 기도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아비라 기도였다. '아비라'는 나의 숙생에 풀어야 할 업(業)이라. 몇 해 전 여름,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갔던 암자에선 광목으로 법복을 해 입고 땀 흘리며 법신진언을 외우는 수승한 신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어머니에게는 진풍경이었지만 그날 이후 내게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되었다.

의사는 인대가 끊어진 다리 때문에 '절을 해선 안 된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아비라 기도를 젊을 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무리한 휴가를 내어서 가야산으로 올라갔다.

그 곳에는 뜻밖의 고수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하루 전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적광전, 관음전에 모두 사람이 차서 정념당에 짐을 풀었다. 정념당에선 주로 대구, 부산의 나이 지긋하신 여신도들이 수행을 하고 있었다.

고심원에서 성철대종사와 같은 큰 스님을 생전에 뵙지 못하고 입적에 드신 후에나 찾아뵙는 것이 못내 서러워 어린애처럼 앙앙거리며 울었는데 밖에서 그 광경을 보고 측은하셨는지 조계사 불교대학출신이라던 보살님이 한마디 하셨다.

"'북 진제, 남 송담'이라고 공부하고 싶으면 큰 스님들 찾아다니며 공부해 봐."

어느 신도에게 물었다.

"아기를 낳겠느냐? 아니면 아비라 기도를 하겠느냐?"

여신도는 대답했다.

"차라리 아기를 낳겠습니다."

아비라 기도는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만큼이나 힘들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겁이 덜컥 났지만 법복 하나에 배낭 하나 덜렁 메고 온 초심자를 모두 반겨주셨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3월 2일, 16일, 30일 **649,000원**

야호 野好 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FAX(02)725-7923
E-Mail: yahotour21@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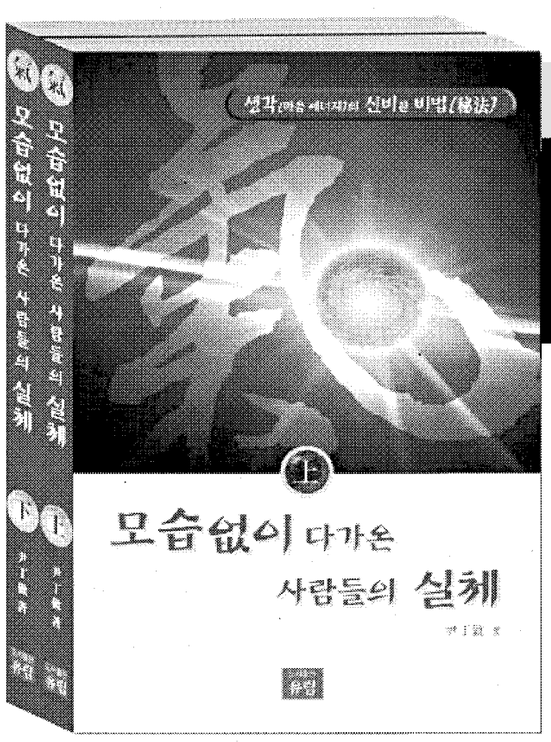
날짜	장소	교통편	시간	세부일정	식사
제 1일 (수)	인천 남경 구화산	OZ359	10:00 12:10 13:25	인천국제공항 3층 B~C 카운터 7번 테이블 집결 인천국제공항 출발 남경도착후 구화산 이동(4시간 30분 소요) 구화산 도착, 석식 및 호텔 투숙 HOTEL : 구화산장(3성)	중:기내식 석:현지식
제 2일 (목)	구화산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후 구화산 순례 천대정정(케이블카 이용), 지장동, 고배경대, 육신보전, 화성사 및 문물전시관 등 전일 순례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 구화산장(3성)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제 3일 (금)	구화산 황산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후 백세궁(케이블카) 참배 후 출발 황산 도착(2시간 30분소요) 후 케이블카로 등정 서해 배운정, 시신봉, 관음봉 및 청량대 등 조망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 사림(4성)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제 4일 (토)	황산 남경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황산 풍경구 관광후 케이블카 하산 중식 후 남경으로 이동(6시간 소요)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신세기(4성)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제 5일 (일)	남경 인천	OZ350	14:40 17:45	호텔 조식 후 중산령, 남경대학살, 장강대교 관광 남경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조:호텔식 중:현지식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 함 사 항 : 항공, 호텔 2인 1실 기준(4성), 일정상의 식사, 차량, 관광지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 불포함사항 :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일정상외의 비용 및 가이드팁 &기사팁, 여권 및 비자수수료
- 신 청 방 법 : 전화 예약 후 은행 송금

www.jinryeo.com

우리 곁에서 영가천도를 1~2초에 원격(遠隔)으로 하고 있는
고차원의 영적(靈的)초능력자 윤정주 원장의 체험이야기!



우리 생각의 묘법(妙法)과 신비(神秘)를 밝힌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육체를 통해서 창조되는 기(氣:마음 에너지)와 영혼과의 관계

모습없이 다가온 사람들의 실체

저 자 : 尹丁做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 사람들의 인체(人體)에서 만들어 내는 기(氣 : 마음 에너지)와 죽은 영혼(靈魂)들과의 영원 불멸의 관계를 밝힌 「모습없이 다가온 사람들의 실체」는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상사의 크고 작은 아픔과 우환들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죽은 영혼들의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정보능력에 의한 의식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체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혀놓았다.

이 책을 통하여 진여(眞如)수련원 윤정주 원장의 신비(神秘)로운 기(氣 : 마음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느껴 보시고 체험해 보신다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 광고는 여주 송영수氏의 배려로 게재 됩니다.

도서출판 유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팩스 : 02-736-7148

'동다송' 기반은 실학과 불이선 사상

선서화 · 선시 · 다도 등 예술에 나타난 선사상 강연

박동춘씨 '한·중·일 선다 비교' 발표



"초의 스님은 손수 차를 따고 만들고 연구하면서 중국 다서에 나온 채다(采茶) 시기와 우리나라의 채다 시기가 다름을 지적하는 등 실제적인 연구와 체험을 기반으로 <동다송>을 저술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초의 스님이 전문 다서의 연구와 고증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려 했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이 차를 연구하는 태도로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예술의전당이 개최하는 '3일간의 동안거-선(禪)과 예술' 둘째 날인 1월 26일.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4층 문화사랑방에는 강의를 듣기 위해 모인 100여 명의 사람들로 가득했다. '3일간의 동안거'는 선서화와 선필, 선시, 다도 등 예술에 나타나는 선사상을 주제로 한 연속 강연회로, 이날 특강에서는 박동춘 소장(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 사진)이 '한 · 중 · 일 선다문화 비교'를 발표했다.

박 소장은 이날 차와 불교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차문화가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를 초의 스님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박 소장은 "초의 스님의 <동다송>은 조선 후기 실학과 불이선(不二禪) 사상 사상을 기반으로 저술된 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선종의 차 통한 깨우침 강조…차문화 부흥 중요 계기

박 소장은 중국와 일본, 우리나라 차문화의 흐름을 짚은 뒤 "차와 선종의 융합은 차 문화사에 있어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가야나 백제, 신라 때부터 이미 차가 있었지만 일정한 형식을 갖춘 차문화는 선종의 유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 이르러 과도한 음다 행사와 백성들에 지워진 세 부담, 숭유억불 정책 등으로 차문화는 일부 사원의 수행자와 이들과 교유하던 문사들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필된 초의 스님의 <동다송>은 우리나라 차문화를 다시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 박 소장의 주장이다. 박 소장은 "초의 스님은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 등의 유학자들과 교유하며 고증학과 실사구시를 통한 이용후생(利用厚生) 정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며 "따라서 <동다송>은 단순히 초의 스님 한 사람의 다도사상이 아니라 당시 지식인들의 한국 차문화에 대한 자각이자 자신감의 발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박 소장은 "<동다송>에는 '부처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관계이며 선 자체의 우열과 등급을 둘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일미선(一味禪)' 사상과 '차와 물, 체(體)와 신(神)을 나누어 보지 말라'는 '불이선' 사상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차가 물의 신(神)이 되고 물이 차의 체(體)가 되어 한 잔의 조화로운 차로 완성되었을 때 그 우려낸 찻물을 본체로 보았으며, 그 중정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다도가 완성된다는 것이 초의 스님의 다도사상이라는 것이다.

"초의 스님은 <동다송>에서 박학과 고증을 통해 우리나라 차문화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한국 차의 특색을 갖춘 고유한 제다법을 완성했으며 우리의 풍토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차의 기운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님은 차를 깨우침의 방편으로 삼았으며 자연과의 합일, 평상심이 바로 도(道)라는 다도사상을 펼쳤다는 점에서 우리 차문화 부흥의 중요한 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글=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초의 스님이 쓴 <동다송>과(사진위) 조선 말기에 제작된 스님의 진영(사진 아래). 공인박물관 소장.



김해 '장군차' 제다공장 설립

대량생산 터전 마련

경남 김해시가 지역특산물인 '장군차(將軍茶)'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해 장군차영농조합(조합장 김종국)은 1월 15일 김해시 상동면 매리 소감마을에 지상 2층, 연면적 165㎡ 규모의 김해장군차 제다공장을 설립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김해 장군차 영농조합이 지난해 11월 6천 여 만원을 들여 건립한 이 공장에는 장군차 가공에 필요한 채엽기, 비빔기, 건조기, 덖음솥 등의 생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오는 4~5월경 장군차가 수확되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해 지역은 서기 48년 가야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허황후가 인도에서 시집올 때 차씨앗을 가져와 차가 재배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김해 차나무가 '장군차'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고려 충렬왕이 왜구 정벌을 위해 이곳에 들렀다가 차의 맛과 향이 뛰어나다고 해 '장군차'라고 명명한 것이라는 기록(<신증동국여지승람>)이 전한다.

매년 5천여 통(통당 100g)의 장군차를 생산할 계획인 김해시는 "장군차는 잎이 타원형으로 쓴 맛이 적고 탄닌과 비타민 C, B1, B2 등이 다른 녹차에 비해 많이 함유되어 있다"며 "제다공장 설립으로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 장군차를 전국유통망을 통해 알려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 99년부터 대동면과 상동면 등지의 50여 농가에 150여만 그루를 보급한데 이어 오는 2007년까지 100만주를 추가 보급키로 하는 등 장군차 복원에 앞장 설 예정이다.

녹차, 캡슐로 먹어야 흡수 빠르다

美 헤닝 박사 연구보고서 발표

녹차는 음료로 마시는 것보다 추출물을 캡슐에 넣어 직접 복용하는 것이 항산화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수전 헤닝 박사는 영양학 전문지 <임상영약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녹차를 물에 타서 마셨을 때 보다 추출물을 캡슐에 넣어 먹었을 때 녹차의 항산화물질인 플라보노이드의 체내 흡수량이 많아진다"고 주장했다.

헤닝 박사는 30명에게 한번은 녹차를, 또 한번은 같은 용량의 녹차추출물을 캡슐에 넣어 먹게 한 뒤 각각 8시간에 걸쳐 혈액샘플을 채취, 분석한 결과 후자의 경우에 혈중 항산화성분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고려 다촌 형성 - 茶 개인 판매금지 중국

고려시대 ④

고려의 왕실이 어느 때보다 안정되면서 왕실과 사찰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계층이 사람들이 차를 마시게 된다. 팔관회나 연등회가 자주 열렸고 행사 때 마다 송에서 온 용봉단 같은 고급 차를 올렸으니, 이는 사신들이 가져온 것 외에 상인들이 가지고 오는 것도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사찰에서는 직접 생산해 쓰는데도 많았지만 대찰에서는 다촌(茶村)이라는 차 생산 마을을 두어 매년 차를 만들어 절에 바치도록 했다.

중국에서도 다마(茶馬)무역이 절정기를 이루어 국가에서 각다법과 다마법을 고쳐 전매(專賣)하고 개인들이 사고 팔지 못하게 하여 나라 재정으로 흡수했다. 수많은 다서가 쓰여진 연고차의 융성기였다.

① 의천은 왕이 다약을 하사함에 상소를 올렸다. <대각국사 문집>

② 이자현은 후에 예종 때 차를 하사받고 수차 왕의 부름을 받아 차를 마시고 하사품을 받았다.

③ 은으로 된 기명들을 송나라에 보낼 정도면 다기 또한 금은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④ 문종 32년 송나라 사신 안도와 진목이 여러 물품과 용봉차 열 근을 보냈다.

⑤ 매요신(梅堯臣, 1002~1060): 송대 시인으로 차를 좋아해서 <남유가명부>를 썼고 <왕릉선생집>에 다시들을 남겼다.

인종(仁宗, 재위 1022~1063): 다법을 많이 고치고 사다법(射茶法)과 각다법(榷茶法)을 파(罷)했다.

⑥ 송자안: 송대의 차학자. <동계시다록>을 저술했다.

⑦ 왕안석(1021~1086): 송대 문학가로 차를 마셨으며 특히 양선차를 많이 마셨다. 각다법을 파하게 했다.

사마광(1019~1086): 송대 사학가로 <자치통감>을 찬수하고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다시가 많다.

⑧ 소식(1037~1101) 송대 문인으로 수많은 다시를 남겼다. 특히 '엽가전(葉嘉傳)'이 유명하다.

황정견(1045~1105): 송대 시인으로 많은 다시가 애창되고 있다.

진관(1049~1100): 송대 문인으로 '오백나한도기' '만정방' 등에 차 얘기를 남겼다.

⑨ 황유: 송대 차인으로 <품다요록(品茶要錄)>을 저술했다.

시대별 연표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고려시대	송대	혜이안 시대
1053 국왕(문종) 문덕전에서 보살계 흥국사에서 팔관회 개최	@ 매요신, 인종이 활동 ⑤	1052 우치평등원(宇治平等院)
1056 의천(義天)이 차를 하사 받고 상소 ①	1059 차전매제 폐지	
1061 이자현(李資賢)의 출생 ②		
1066 해린에게 차 하사	1064 송자안(宋子安) ⑥	
1067 흥국사에서 5주 동안 연등회 개최 의천을 승통으로	1067 왕안석(王安石) 사마광(司馬光) 활동 ⑦	
1071 송(宋)과 국교회복	1069 청묘법 시행	
1072 송에 은기명(銀器皿) 보냄 ③	@ 다마무역이 성행함	
1073 회경전에서 5일 동안 반야도량	@ 소식, 황정견, 진관 등의 활동 ⑧	
1074 내전에서 백고좌를 열다.		
김양감이 송에서 도서 수집	1074 차 수출, 정부 독점	1072 성심(成尋)이 송에서 다회를 보다
1076 왕이 보살계를 받다	1075 황유의 활동 ⑨	
1077 금자(金字) 화엄경을 만듬		1078 다사기록(茶事記錄)이 전함
1078 송나라 사신이 용봉차를 가져옴 ④		
1079 송에서 의약서를 가져옴	1079 일부지역 납차통상 허용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02)737-0695 Fax:02)737-0696 www.yosiamun.com
여시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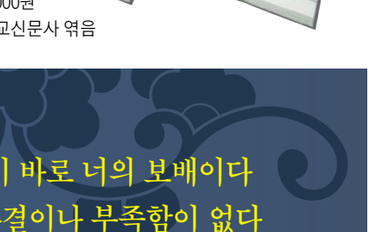
모든 감정을 탁 놔버려라!

올 초 조계사에서 3개월간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대법회'에서 11명의 선사들이 펼친 법문을 모았다. 선의 본질과 의미, 화두 두는 법, 선 수행의 요체 등을 주제로 선의 정수와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 중앙일보

'마음 공부 제대로 해서 행복하게 살자' 라는 공통된 메시지로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추상 같은 엄격함으로 자신들의 수십 년 수행 경험을 청중들에게 전했던 지난봄 조계사 선원장 대법회 법문 내용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 조선일보

지난봄 매주 3천여 명 이상이 동참하는 뜨거운 열기로 이어진 선원장 법회의 내용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 매일신문

禪 너는 누구나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선원장 스님들의 사자후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 고우 스님-선의 본질과 의미 ■ 무여 스님-화두 드는 법 ■ 대원 스님-선과 깨달음 ■ 함주 스님-마음은 무엇인가 ■ 현산 스님-비우고 쉬는 공부가 선 ■ 영진 스님-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 지환 스님-선 수행의 요체 ■ 혜국 스님-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사는 법 ■ 현응 스님-한국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 도현 스님-선 스스로 만드는 행복 ■ 설정 스님-단박 깨침이란 무엇인가 ■ 특별법문·법장 스님-경허 · 만공 선사의 가르침

화제의 책
주제가 있는 '禪' 이야기
선어삼백칙
(禪語三百則)



신국판 / 420쪽 / 차차석 譯解 값 10,000원 / 여시아문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자, 이것이 바로 너의 보배이다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조금의 흠결이나 부족함이 없다

'선어삼백칙 – 주제가 있는 선 이야기 삼백 가지'는 역대 선지식들의 수행담과 득도를 향한 열정이 담긴 핵심적인 어록을 모은 책이다. 이 책은 '스스로 불성을 지니고 있다', '문득 깨달아 부처가 된다', '한 올도 걸리지 않는다' 등 주제별로 선수행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 무조건 '어렵다' 고만 느껴온 선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02)737-0695 Fax:02)737-0696 www.yosiamun.com
여시아문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마음공부 해서 마음을 뛰어 넘으세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자리에 하게 된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가 와서 여러분이 안 오실 줄 알았더니 가죽 속에 물이 들어갈 리가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오신 것을 생각하면 감개무량합니다. 정말 산천초목과 더불어 우주 전체가 한마음으로써 둥글릴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신 것 같습니다. 참 감개무량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비하고는 관계없는 말이지마는, 어느 집에 초상이 났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은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당에 갔을 거야.' 그러고,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집은 '뭐 보나마나 지옥 갔을 거야. 잘 죽었어.' 하고 쑤군대거든요. 그게 무슨 까닭일까요? 우리가 한 죌 살면서 부드러운 행, 정직한 마음, 포괄적인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조건없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 상대와 부딪치지 그렇지 않다면 부딪칠 리가 있나. 그러니 모두 내 탓이지 하고 돌릴 수 있는 마음. 우주법계에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두루 하기 때문에 조건없이 사랑을 줄 수도 있는가 하면 조건없이 일체제불의 마음의 능력이 각자 여러분 앞에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서 이 세상에 모습을 버리고 떠났다 하더라도 영원히 세세생생에 여래의 집에 뜻을 같이 하고 우주 전체에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불바퀴의 생산처가 되기 때문에 한 마음 법을 배우는 여러분은 정신계와 물질계가 한데 합쳐서 중용으로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일체 생활 속에서 도를 구하는 거지, 내가 아니고 생활이 아니라면 도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무술하는 사람들이 신검을 만들 때도 그렇고,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훌륭한 기술자가 되려면 혼을 쏟아서 포괄적인 마음으로서 정성을 다해야만이 기술자가 되고 신검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신검은 모든 사람을 건지고 살리는 데 쓰이는 신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신검으로써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우주 전체를 받칠 수 있고, 또는 우주 전체를 굴릴 수 있는 대의적인 지혜로운 자비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자비의 칼인 것입니다.

첫째는 나의 무명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두번째는 세상만사 모두 같이 돌아가는 둘 아닌 법을 알기 위함이요, 셋째는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같이 사랑하면서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그 이치를 터득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처럼 눈 달리고 코 달리고 입 달리고 귀 달린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으면 그 몸뚱이 자체가 영원하다는 걸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몸뚱이가 사대로 흩어져서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오기 위한 방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모두 한데 합쳐서 서로서로 통하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불바퀴입니다. 혼자는 할 수 없듯이 모두 한데 합쳐서 둘이 아니게, 빗방울이 바다에 들어가면 바닷물이지 어찌 개개의 빗방울이겠습니까. 그리고 각각의 물방울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 그 소용돌이가 바로 불바퀴이며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랙홀이라는 것은 생산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모습을 변화해서 다시 태어나 발전이 되고 진화되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용돌이를 불바퀴의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한번 올렸다 하면 생산이 되곤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꾸자꾸 바퀴어 재현이 되고 생산이 돼서 영원히 그칠 바가 없이, 즉 태어난다 멸한다 할 것이 없이 영원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하게 돌아가는 그 섭리를 내 몸속에서 모두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주고, 여러분이 망하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말입니다, 우주의 광대한 섭리를 알아보고 산하대지에 모든 일체 생명들이 두루두루 공생하는 그 자체를 알려면 내 몸부터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산다고 이러시지만 모두 공동체입니다. 왜 공동체냐 하면 몸속에도 여러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시발점이 종점이요, 종점이 시발점이라고 한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억겁 전 미생물로부터 수없는 진화를 거듭거듭 해서 인간까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간까지 진화돼서 온 이 모습이 자기를 진화시켜서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속에 어떠한 자기가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까? 이 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미생물에서부터 미생물 하나가 수없는 알을 낳아서, 즉 마음의 씨를 낳아서 내 몸뚱이를 진화시키고 크게 만들었으니 그 집합소에 마음의 씨가 바로 여러분 몸뚱이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시발점에서는 미생물이었는데 종점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을 종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몸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몸속도 종점이 아닙니다. 연방 모였다가 불덩이가 한번 탁 날아서 툭 터지고 쓰러지고 또 툭 터지고 쓰러지고 이것이 우주 섭리의 작용입니다. 태양도 그렇고 모든 자체가 상대와 상대가 작용하는 겁니다. 사대가 툭 터져서 보면 마음의 씨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 알의 석류 안에 씨앗이 많이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석류 안에 많은 씨가 들었지만 그냥 석류라고 하듯 우리 사람도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그 개개인의 모습과 의식 또는 생명을 따로따로 이름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빗방울이 다 모여서 바다로 들어가면 바닷물이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몸뚱이 속에 그렇게 자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사과를 하나 먹어도 혼자 먹는 게 없습니다. 수십억의 생명들이 먹고 있습니다. 생명 속에 또 생명이 있고….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죽는다 해도 사대가 그냥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의 씨를 많이 해놓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익이 없고 생산이 없으면 생명들의 모습을 형성시켜서 이렇게 해놓진 않았을 겁니다. 이 우주의 섭리에서 모든 생산을 해서 점점 불어나가게끔 한 자체가 바로 마음의 씨입니다.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쥘래야 쥘 수도 없는 마음의 씨 하나가 악업 선업의 씨를 그렇게 많이 내 몸뚱이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었다고 하지만 내가 먹은 게 어딨습니까. 그 수십억의 생명들, 모습들, 의식들이 하나가 들어가면 서로 먹고 사는데 입을 빌리고 손을 빌리고 눈을 빌리고 귀를 빌리고 코를 빌리고 이 몸뚱이 전체를 빌려서 그 생명들의 집 노릇을 하고 집합소 노릇을 하고 심부름꾼이 되고 관리인이 되어서 그걸 기릅니다. 아니 기르기보다도 그것이 바로 즉 자기입니다. 시발점의 미생물이 종점에 가서도 또 미생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은 위대하다고 하죠.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깨달아서 내 자생중생들이 모두 진화되고 창조가 되고 화신이 되고 응신이 돼서 천백억 화신으로 바뀌어 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바로 미생물을 벗어나서 부처도 되고 법신도 되고 일체가 다 되는 법입니다. 그때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 반면 전체 모두가 부처이고 약사이고 의사이고 한마음 안에서 모두가 출현을 해서 응신으로 나투게 됩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우리가 왔음을 여러분의 몸속을 보면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억겁 광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 몸속을 보면 바로 자기가 미생물에서 왔다는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왔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해서 애를 낳으면 물주머니 속에서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또 물주머니의 어항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이 무슨 탁 틔어진 허공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어항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몸속에서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사는 여러분이나 몸뚱이가 어항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은 내 자유껏 누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바로 마음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자생중생들 틀에서 내 마음이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항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거기서 마음이 벗어나야 내 몸 어항 속에서 사는 이 몸뚱이도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날 좀 살려달라고 빌면서 기복으로 돌아친다면 더욱 자기 마음은 업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항 속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첫째 내 업식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둘째 물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셋째 허공, 즉 불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소립니다. 얼른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느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그건 증명이 될 수 있는 사실이지마는 과학으로도 증명 못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무의 세계, 즉 정신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물에도 소용돌이가 있고, 허공 바람 속에서도 소용돌이가 있고, 마음의 불 속에도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를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을 넘어서야만이 우리가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시지만 우리 생활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떠나서는 도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개인들이 다 내가 없다는 이런 도리를 알아야 자유인이 될 겁니다. 내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십시오. 내 몸속에 있는 생명들이, 모습들이, 의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깐 망하게 하는 놈도 그놈들이요, 돈을 많이 벌게 하는 놈도 그놈들이요, 먹는 것도 그놈들과 같이 먹는 것이니 하나도 혼자 하는 게 없어요. 공동체로서 공동작업을 하면서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에게 뭐를 줬다고 하더라도 조건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줬다고 하지만 내가 줬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수십억의 내가 있는데. 어떤 거를 줬는데 내가 혼자 줬습니까? 내가 줬다 하지도 말고 내가 안 줬다 하지도 말고 내가 먹었다 하지도 말고 내가 안 먹었다 하지도 마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운데에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나쁜 거 좋은 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안되고 되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누(累)가 되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참 자랑스럽게 잘한 거다 하는 것도 알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좋나좋나 내가 되는 거죠. 아버지 노릇 할 때 내가 한 거고 남편 노릇 할 때 내가 한 거고 '내가 내가' 하다 보니 내가 너무 많아서 무심이에요. 나는 무심입니다. 행도 이걸 했다, 저걸 했다 하니까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남편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요? 나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금방 " 아버지!" 하고 자식이 들어오면 아버지가 되고 "아무개야!" 하고 부모님이 부르면 아들이 되는데요, 이렇게 광대한 천차만별의 묘법은 아마 마음 떠나서는 없을 겁니다. 이 마음의 도리를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구나. 너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묘법인가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해서 마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도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다면 이건 모습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신족통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집에 가 보십시오. 안방에는 뭐가 있고 마루 올라가는 데는 뭐가 있고 신발장은 어디 있다는 걸 다 아시죠? 마음은 이렇게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눈으로 보아 온 것이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마음공부를 한다면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어디서 온 거를 알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그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저런 산천초목들도 서로서로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사랑을 하고 열매를 맺고 가을이 오면 주고 받는 마음으로 속삭이면서 임을 기다리듯 내년 봄을 기다리며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말을 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말로써 서로 통하는데 조금만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사랑이 그만 변하게 됩니다. 권태로 돌아가고 증오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권태가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바로 이웃집하고도 가설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마음의 가설입니다. 보이는 데 물질적인 가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의 가설.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어떡하든지 일어서야 되겠지.' 한다면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설이 돼 있어서 불이 들어오니깐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하지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자식지간이나 마음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맡겨 놓으면 바로 스위치를 올려놓은 거와 같아요. 그래서 그 쪽에도 불이 들어오고 이쪽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불 들어오는 전력은 똑같거든요. 불 들어오는 건 다 마찬가지니까 서로가 밝게 살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이거를 잘 알아들으시고 실험하고 체험들 하세요. 이것이 바로 관법입니다. 내가 스위치를 탁 올려놓고서 지켜보는 똥안이 실험이요, '아, 저런 것이로구나.' 하고 알았을 때 체험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49년 설해서 가르쳐 주신 길은 바로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야 내 골수, 내 마음까지도 알 수 있고 일체 만물만생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나니, 마음을 알 수 있는 까닭에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니 공덕의 이치를 알 수 있느니라.' 하신 겁니다.

공덕과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복'은 남이 농사지어 놓은 것을 한 솔박 주시오 하고 얻어먹는 것이고 '공덕'은 전체가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빈 데를 도와주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집는 거하고 열 손가락을 한데 합쳐서 드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모릅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 즉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돌아가는 법계를 한 손으로 들 수가 있는 것이 공덕이고 이 섭리를 하나도 모르고 급박해서 목마르면 '물 한 그릇 주시오.' '옷 한벌 주시오.' 하고 비는 것은 기복입니다. 빌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목마르면 물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똥마려우면 똥을 누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자유스런 사람으로서 살라고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자유인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놓고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름만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굴레에서 벗어나야 만물의 영장이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는 혼자만의 국한된 자기가 부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됐다 남편이 되고, 형님이 되고 아우가 되고 친구가 되고 이렇게 스스로 자동적으로 걸림 없음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고 "여보!" 하면 남편이 되는데 어디 걸림이 있습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걸림이 없이 자유스럽게 살라고 했는데,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해놓고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장, 관세음, 문수, 보현, 칠성, 용신, 지신, 산신, 독성, 신중 이 모두가 한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릇을 안 하고 사십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해치는 것을 보면 그냥 덤벼들어서 모두 말리지 않습니까. 그게 신장입니다. 금방 자기가 신장이 된 거죠.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저건 너무 잘못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생각을 내는 것이 법신입니다. 몸뚱이로 움직여서 확연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화신입니다. 보신이면서 화신이며, 보현이면서 화신입니다. 화신은 바로 바뀌는 그 시점을 말하고 다 바꾼 것을 보현이라고 그럽니다.

컵을 드는 과정과 물을 뜨는 과정, 그리고 물을 마시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신통이란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천안통을 했다 하더라도,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을 했다 하더라도 했단 말을 하지 말라. 무슨 뜻인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남의 속을 잘 알고 남이 어디서 온 거를 알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 하더라도 이건 도가 아니니라 하신 겁니다. 컵을 들고 물을 뜬다 하더라도, 물을 떴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을 떴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 이겁니다.

심안으로 보고 심안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무효고 보이지 않는 데 오고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무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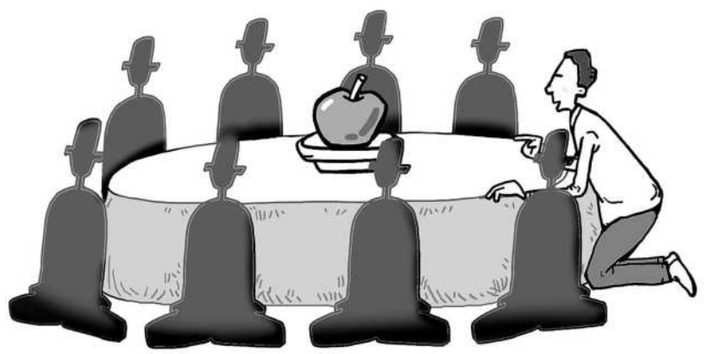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의 생활을 떠나서는 道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30면으로 계속

☞29면에서 계속

내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예요. 남의 속을 다 알고 과거에 어디서 살다 온 거를 알아도 무효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내가 먹고 줄 수 없다면 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른데 물을 떠서 줄 수 없고 떠서 먹을 수 없다면 도가 아니라 이런 소리예요. 목이 마른데 물을 뜨려고 컵을 들고 물을 떴다 해도 먹을 줄 모른다면 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증을 면할 수가 없으니까요. 먹지 못하면 갈증을 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주지 못하고 자기도 먹지 못하니 이건 무효입니다.

모두들 그저 어떡하든지 돈 벌어서 살 궁리만 하시는데…. 그럼 먹고살아야지 않습니까 이러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을 게 지금 없잖아. 먹을 게 있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나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 입을 빌려서 심부름해줄 뿐이지.' 얼른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야 된다 이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입시생들이 시험 볼 때가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내 한생각이라고 할 때 '한' 하면 전체가 들어가는 거고 한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인공을 믿고 '심부름을 하려면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거기 말기라고 하십시오. 자기 마음의 씨는 보이지도 않고 쥘 수도 없지마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푸르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십시오. 알고 이해가 가야 자기를 진짜로 믿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 나무와 뿌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면은 된다더라 이러고는 '주인공! 되게 해주시오. 주인공! 합격되게 해주시오.' 한다면 그것도 기복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해 가지곤 도저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를 지금 누가 끌고 다닙니까. 자기 운전수가 없으면 차는 그만입니다. 한 부분만 고장이 나서 파워를 일으켜도 자기 육신은 쓰러져요.

그런데 뭘 그렇게 자기라고 내세울 게 있습니까. 아니, 간장공장에서만 파워를 일으켜도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뭘 자기라고 그럴 게 있느냐구요. 간장공장만 그런 게 아니라 에너지공장에서도 고장이 나면 백혈병이라 그럽디다. 그러니까 모든 병 자체가 파워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업식 속에서 파워를 일으키기 때문에 업식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고 또 모든 건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니까 뿌리에서 흡수해서 나무로 올려보내는 거와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자기의 뿌리인 고로 반드시 '너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하고 진실히 그렇게 믿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사람' 하는 거는 '부처님' 하는 거와 같아서 전체 한데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있는 게 사람이 아니고 한데 모여서 구성된, 형성된 것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든 일이 침체돼서 돌아가거나 사랑이 변해서 증오가 되거나 자식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자식지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달이 돼서 의합하게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화목해지는 법입니다. 마음을 잡아야 육체도 잡아지는 법입니다.

자기 스위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살림을 해 나가면서 도를 구합시다. 도를 구하는 건 마음으로서 그렇게 실천을 해 나가는 데에 있는 것이고 또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켠다고 해서 말을 막하고 악을 쓰고 신경질을 내고 속을 북북 긁고, 또는 자식들이 나가서 만약에 자고 들어온다거나 공부를 안 한다거나 하더라도 너 '이놈의 자식,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겼다고 해서 도로 뛰쳐나가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겨 놓고 스스로 '모든 게 내 탓이로다. 내가 인연을 맺었고 인연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부딪침이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어찌 인연이 됐겠나. 나쁘게 안되도록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말겨 놓고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행을 해주면서 미움 갖지 말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행한다면 그쪽까지도 불이 들어와서 자식들도 마음이 바뀌어서 아주 출중한 효자 효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떠나서 부처님 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없이 부처님이 어디 있으며 생활 없이 어떻게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처고, 부처님도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마음이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더불어 마음이 합한 것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처님이지만 자기 몸속에 들은 자생중생들을 다스리질 못하기 때문에 중생이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와 중생은 같이 있습니다. 이만하고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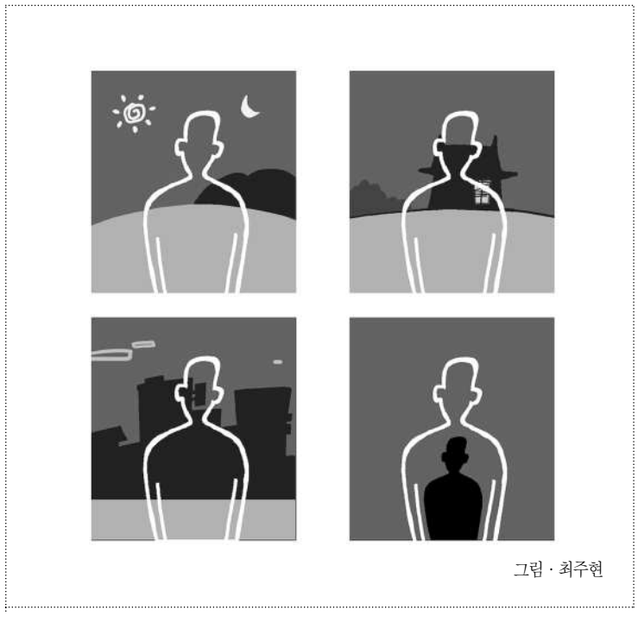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1: 스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오는 모든 경계를 주인공에 믿고 놓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저희는 사회의 온갖 경쟁 속에서 분 초를 다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 입찰이나 공매 등 이권이 있을 적에 내가 이득을 취하면 상대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데 자리이타의 행위에 어긋날 수도 있으며, 주인공에 믿고 놓아 욕심을 내지 않자니 사회활동에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며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수행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법 활용에 대하여 설하여 주십시오.

▲스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다 놓으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욕심도 부려야 하는데 어떻게 다 놓겠습니까 하는 소리 같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몸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데 나 혼자 한다고 합니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몸속의 생명들을 끌어낸 겁니다. 보세요. 혼자 한 겁니까? 돈을 버는 것도 그 생명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심부름하는 겁니다. 돈을 못 벌게 해서 굶주리게 하는 것도 돈을 잘 벌어서 잘 먹이게 하는 것도 그 자리인데 어떻게 자기 혼자 한 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착하게 그냥 목석처럼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하되 함이 없이 하라. 네가 한 게 아니라 진짜 네가 한 거니라. 개별적인 네가 한 게 아니라 포괄적인 네가 한 거다 이 소립니다. 혼자 먹고 혼자 누리려고 한 게 아니고 공동으로서 포괄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하지 말고 한마음 주인공이 하는 거니까 나는 심부름만 해준다 한다면 아주 악의적으로 사기질 하지 않을 것이요, 또는 버리지도 않을 것이요, 규모 있게 말하자면 중도에서 잘 이끌어 나갈 겁니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주인공은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알아듣지 못하시겠습니까. 물 한 모금 마셔도 혼자 마시는 게 어딨습니까. 내가 먹어서 똥 누고 오줌 누면 다들 먹고 또 내놓으면 수증기가 되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먹기 때문에 항상 먹으면 나오고, 나오면 서로 다 같이 먹습니다.

▲질문자2: 저는 부산에서 올라올 때만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무장을 좀 해서 스님께 질문을 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무의미해졌다는 걸 지금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무신론자로서 절은 오늘 처음 와봅니다. 스님을 보고도 앞에서는 '스님' 했고 돌아서서는 '중'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선원에 나가시는 분들이 사시는데 제가 거기서 감동을 느낀 게 회장으로 계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몸으로 실천합디다. 불쌍한 애를 데려다 키우는 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그동안 쪽 절에 다녔는데 절을 자꾸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남편 돈 잘 벌고 우리 집, 우리 집이더라구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종교의 의의가 뭐냐. 종교라는 거는 정치가고 교육자고 구제 못하는 마지막 커버할 영역이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종교적인 회의가 왔습니다. 저는 함장하는 법도 잘 몰랐고 사월 초파일날 애들 따라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오기는 했는데 사실 들어가서 절도 한번 못해 봤어요.

저는 언론사 생활을 20년 넘게 한 사람입니다. 하기 때문에 의심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완벽주의자입니다. 종교인도 완벽해야 되고 더욱이 스님은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속에 사는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은 인정해 줘야 하지만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교회에 나갔었는데 찬송가는 따라서 불렀지만 염불 같은 것은 굉장히 저항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도 그랬습니다. 저는 성불한다 뭐 이런 욕심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오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밑져 봐야 본전 아닙니까. 손해 보는 거 없거든요. 가산 전부 다 가지고 어디다 갖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나 학교나 사회교육에서 폐기된 부분이 여기 와 보니까 좋더란 말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깐요. 제가 다른 사람 구제는 못해도 혼자 스스로 나쁜 짓은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관광도 가는데 이왕이면 공기 좋은 여기 와서 한 번 들어보고 감동을 느끼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법회 참석의 의의는 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널리 전국에 구석구석 도둑질해먹는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들었으면 합니다. 저는 성불도 모르고 할 생각도 안 하지만 단, 내가 우리 이웃을 보니까 그 얼굴이 참 편안해 보여서 저 정도만 되면 된다 한 겁니다.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한테 욕 안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는데 마침 제가 앉은 좌석이 제일 뒷칸이어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 집사람한테 '니만 가라. 나 내릴란다' 하고 신경질을 냈습니다. 사실은 터미널이 어디 가까운 데 있으면 다른 차 타고 내려가 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종교는 하나 갖긴 가져야 되겠는데 갈 때부터 나하고 인연이 안 맞는갑다. 그래서 차라리 가톨릭이나 한번 믿어볼까 하니까 뭔가 속에 두려움이 있더라구예.

▲스님: 차에서 안 내리신 게 다행입니다. 밀천은 뺏으니깐요. 아주 철두철미한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에누리가 조금도 없어요. 자기가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다가오는 그 자체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한 번 잘 쓰면은 구덩이에서 나오기도 하고 마음 한번 잘못 쓰면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말이 있죠.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한 가지 약속할 것은 진짜로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면 반드시 이 마음공부를 하세요. 이 마음은 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됐다, 저게 됐다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아신다면 그대로 실천을 하세요. 가정 빼놓고 내 몸 빼놓고 무슨 종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병고가 없고 애고가 없어야만 나도 편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한다고 집을 비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 우리 가정 빼놓고 종교가 어딨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는데 좀더 너그럽고 애고가 없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마음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71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氣 당어리 복 당어리 항금당어리 氣 가막힌 복이틀어와 항금운으로 변합니다.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겹틀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 대진 합장

온 식구 마음 모아 독경하듯 읽으세요

설날, 축원문·발원문 어떻게 쓰고 읽나요?



그림 · 이준석

불교식 축원문 · 발원문

축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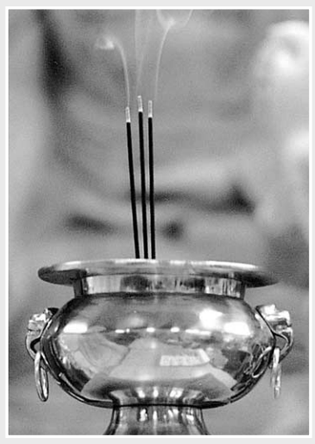
저희들 우러러 일심 기울여서 대원적 ○○○을 생각하올 때 천품이 어질고 밝으시옴고 성인의 크신 뜻을 받드셨어라. 덕성은 온 이웃에 널리 떨쳤고 정행은 불보살을 본받으시니 온천지가 받드는 덕본이시라.
세간의 인연이 다하시오매 무상의 소리 없이 찾아들으니 번뇌몸 집착 없이 시원히 벗고 극락국 구품연대 이르소서.
저희들 후손들은 눈물 삼키며 크신 은덕 새기며 감격하여서 자용을 우러러 망극합니다.
저희들이 불보살님 크신 성호를 일심정성 기울여서 봉송하오며 미성다한 진수다과 올리옵나니 해탈식 법식으로 거둬 주시사 대보리 연화좌에 좌재하소서.

(반배)

발원문

(할아버지 할머니 평안하소서)
삼가 조상의 영전에 향사르며 우리 후손들 모두가 배례하나니 할아버지 할머니 평안하소서.
저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리며 이렇게 발원합니다.
당신들이 생전에 남기신 뜻은 크고 훌륭하며 자손들은 대대로 받아 지녀 사회와 겨레를 위해 그 뜻을 펴고 있으니 할아버지 할머니 부디 기뻐하소서. 그리고 후손들을 기특히 여기소서.
아득한 예부터 닦아온 이 땅에는 수많은 선조들의 지혜가 숨 쉬고 오늘은 저희들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배달민족들의 핏줄은 반드시 이어져야 하고 그 기세를 만방에 떨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로는 부처님 말씀을 받아 겨레에게 전하고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고자 인욕과 정진의 길을 닦고 있으니 이 또한 부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위대하십니다. 세존의 말씀이시여.
당신들의 크나큰 뜻 깊이 받들어 오늘 이처럼 배례하오니 섭수하소서 세존이시여,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평안하소서.
우리 함께 자리하여 공양 올리나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한국 불교장례문화연구회 제공

가족 함께 삼보에 귀의하고 의미도 알아야
한글 '반야심경' '금강경' 등 참조 내용 작성
축원문 · 발원문 다 함께 낭독해야 바람직

설날 온 가족이 차례 상 앞에 모여 절할 때, 제주(祭主)가 축문을 읽는 동안 앞에 엎드린 가족의 발뒤꿈치를 훔쳐보며 킥킥거리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축문의 내용이 제사 지내는 이들의 마음속에 와 닿지 않고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온 일가친척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문을 읽으며 돌아가신 조상님의 음덕을 기리는 것은 새해를 진정 뜻 깊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갈수록 형식적으로 축문만 읽고 부랴부랴 끝내기 일쑤인데다 더욱이 요즘 아이들에겐 한문 일색의 축문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 공염불처럼 들리기만 한다.

불자가정이라면 불교적인 의미를 담아 축문을 써보는 것은 어떨까. <불교의식의 이해와 바람직한 집전방법>을 펴낸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의 영석 스님(포교연구실 사무국장)은 "불교식 제사는 영혼을 위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가로 하여금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극락왕생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의미를 둔다"며 "온 가족이 빠짐없이 동참하여 불교축문을 쓰면 효도의 근본을 배우는 동시에 깨달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막연하고 어려운 한문으로 축문을 쓰는 대신, 한글로 쓴다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성무 스님(수원 용주사 교무국장)은 말한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행하는 모든 불공 · 시식 등의 의례문은 불경의 핵심사상과 역대 선조사 스님의 경책 말씀, 진언 등으로 구성돼 향훈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거의 한문으로 돼 있어 의미 전달이 쉽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똑같은 내용도 입으로만 중얼거리며 외울게 아니라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그 의미를 확연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런 점에서 축문 내용은 사찰에서 조석으로 읽는 한글로 된 <반야심경>이나 <아미타경> <금강경> 등의 경전과 선어록에 적혀 있는 선사들의 말씀을 참고하여 만드는 게 좋다고 성무 스님은 조언한다.

또 내용에는 단순히 조상님께 차린 음식을 권고하는 유교적인 축문이 아니라 해탈에 대한 구체적 서원을 세우는 등의 불교적인 의미가 담기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영석 스님도 "축원이란 자기 가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시방 삼세 부처님과 일체 모든 중생들이 결국에는 모두 해탈하도록 서원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축문을 쓸 때도 '어떻게 부처님 법을 만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연 지어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 봉녕사 신혜스님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한다. "다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영가가 '좋은 인연 맺으시고 불법 안에서 모두 해탈을 얻으시길'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차례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법이지요."

신혜 스님에 따르면 "삼보에 먼저 귀의한 후 영가를 부른후 공양을 올리고 나서 축문을 읽는 것이 바른 순서"라고 한다. 축문을 읽을 때는 대중이 다 함께 독경식으로 낭송하며, 만일 대중이 함께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주가 혼자 낭송하고 대중이 경청하여도 무방하지만 가급적이면 대중이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스님은 설명한다.

이번 설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해 한글로 된 불교식 축문으로 차례를 지내보자.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과학 · 종교 · 철학 어우러진 통학문

지난 회에는 주로 티베트의학의 전체 성격과 질병관, 그리고 약재나 약성에 관한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티베트의학에는 그런의 · 약학 본질적인 특성 외에도 사회경제적으로 기대되는 의 · 약학 외적 부수효과 또한 적지 않다.

8) 약값이 싼 저비용 의학이다

티베트의약은 대부분 지역에 분포한 동 · 식물종을 쓰고, 생산에 특별히 고가의 장비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때문에 약값이 매우 싸서 가난한 사람도 별 부담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보석류가 들어가는 약들은 물론 조금 비싸다. 그러나 그런 약은 보통 난치성 질환과 불치병에 쓰이기 때문에 따져보면 결국 경제적으로 실익이 더 크다.

9) 환경을 보호 한다

티베트 의약재들은 대부분 산이나 들판에서 채취한다. 그래서 티베트 의사들은 약재의 보고인 산과 들을 정성으로 돌보며 가꾼다. 공기 좋고 물 맑은 무공해 환경이야말로 티베트의학 천혜의 자산이자 기본 요건인 것이다.

10) 제조공정이 단순하고 수익은 공동으로 분배 한다

약의 제조에 어떤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해 쓴다. 제약공장이 있기도 하나 첨단 기술이나 장비가 거의 쓰이지 않는다. 역효과나 부작용만 없애 먹기 좋고 소화 · 흡수가 쉬우며 효능이 높고 보존이 편하도록 마무리하면 그만이다. 약제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수익을 나누어 생계를 꾸려간다.

11) 적극적인 건강을 강조 한다

티베트의학은 치료에 있어서도 예방의학적 성격이 강하다. 티베트 전통의사들 역시 다른 의학에서와 같이 병든 환자를 치료하게 된다. 그러나 티베트의학의 주된 목표는 병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보존 · 증진하는 것이다. 티베트 고전의서에는 밤 · 낮 절기별로 지켜야 할 다양한 양생법과 생활수칙들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다.

12) 식이(diet)를 중시한다

건강을 유지하고 병을 예방하기 위해 티베트의학에서는 음식을 중시한다. 식습관이 바르면 약을 많이 쓰지 않고도 병이 치유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제 아무리 명약을 써도 별다른 효험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티베트 전통의사들은 약과 함께 섭취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의 종류를 꼭 같이 처방한다.

13) 소우주와 대우주 상호 의존적 인체관

티베트의학은 인체를 대우주의 축소판으로 생각한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삼라만상이 사람에게서도 일어나고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진언(mantras)이나 주문의 위력(효험)과 비의가 숨어있는 것이다.

14) 업(karma)에 대한 믿음

불교는 과거 전생과 사후 내생의 존재를 믿는다. 전생의 행업은 그 생에서 일부 소멸되고, 전생에 쌓은 업(karma)이라는 행업의 일부는 현생으로 이월되어 난치성 질환과 불치병을 일으키게 된다고 믿는다. 그런 병에 걸린 환자는 통상적인 치료법으로는 별 효험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종교 의식 같은 특수한 치료법을 처방한다.

15) 과학, 철학 및 종교의 일원화

마지막으로, 티베트 전통의학은 과학 철학 종교가 한데 어우러진 통학문의 체계이다. 세 분야 중 어느 한 부분만 빠져도 다른 두 분야가 완전성에 흠을 입게 된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종교적 신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종교는 불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나 환자 모두 각자 자신이 믿는 종교에 따라 종교적인 삶을 꾸려가야 한다.

지금까지 티베트의학의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여러 면에서 다른 전승의학과 공유하는 특징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의학이 지닌 독특한 가치는 역시 불교와 절묘하게 유합된 점이다. 특히 업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학의 목표와 지평을 영적 건강성으로까지 격상시킨 안목이야말로 어느 전승의학에도 유래가 없는 티베트의학만의 수승한 경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당하당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쪼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숯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쪼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쪼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물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쪼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실크 · 금낭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T,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신도용 쪼끼, 바지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쑥뜸을 하면 무병장수한다
- 오행 쑥뜸기 좌훈기 전통 좌훈요법 첨단기술 접목 -
- 여성 항문 질환, 산후 질 팽창과 요실금 등 -
- 연기, 화상 위험이 없는 쑥뜸기, 쑥좌훈기 출시 -
오행 쑥뜸기
적용혈자리 : 중완혈, 신궐혈, 관원혈, 천추혈
(이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기미, 복부비만,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자궁근종, 위염, 장염, 변비, 성기능개선, 불면증, 당뇨개선, 고혈압
오행 좌훈기
음양 쑥뜸기(무릎관절용)
적용혈자리 : 회음혈
(이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변비, 치질, 생리통, 냉대하, 전립선염, 성기능개선, 신경성과민대장염, 갱년기 장애
적용혈자리 : 백회혈, 견정혈, 대추혈, 명문혈, 독비혈, 족삼리
(이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무릎 관절염, 오십견, 요통, 두통
- 제품의 특징 -
*연기가 100% 실외로 배출된다. *타이머가 장착되어 편리하다.
*ISO9001 인증제품-쑥뜸기, 좌훈기 *쑥뜸 시 화상위험이 없다.
제품 구입시 쑥 한달분 무료 증정
대리점 · 쑥뜸방 모집중
D.M.I 산업
모사포유 www.moxa4u.com
대구한의대학교
한방 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주문 및 상담전화 : 02-598-9834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35) 계룡산 갑사


우뚝하게 서 있는 계룡산 문필봉.


종각 옆에는 수령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살구나무가 묵묵하게 서 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쇠박새는 스님들의 눈에 매우 익숙하다(사진 아래).



물과 숲 어우러진 아홉계곡 '포근'

주변 숲 노령화 상당히 진척, 대체 수종 필요
종각옆 살구나무 · 대자암 모과나무 눈길 끌어

가을보리씨를 봄에 심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겨울을 참고 견딘 보리만이 봄에 열매를 낼 수 있다. 어디 보리뿐이겠는가. 숲들도 시련의 겨울과 함께 숲이다. 절기의 징검다리를 딛고 계룡 갑사(甲寺)의 겨울 숲을 찾아 나선다.

갑사 들머리 드넓은 계룡 저수지 위에 계룡산 문필봉, 연천봉, 삼불봉이 수석처럼 떠 있다. 계룡산 능선에 우뚝 솟은 암봉들이 모두 계룡의 닭볏이다. 이 닭볏들이 수식(水蝕)에 살아남아 높이 솟은 석영반암(石英班岩) 모나드노크(Monadnock)이다. 계룡산의 골기(骨氣)도 이런 지형에서 비롯된다.

갑사 숲은 예로부터 소문난 숲이다. 관광지로 개발되어 시설지구가 들어서는 바람에 많이 훼손되었지만, 예전에는 저 아래쪽까지 숲 띠가 이어져 있었다고 노스님들은 말한다.

불교는 숲의 종교이다. 부처님의 일생이 숲과 함께했기 때문이다. 불교가 명상과 자비의 종교가 된 것도 숲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1600년 한국불교도 숲을 떠나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명산대찰이 모두 숲과 함께하고 있는 사실이 그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절로 가는 길은 어디나 숲길이었다. 그 숲길은 번잡(煩雜)의 세계에서 명상의 세계를 이어주는 길이요, 세간(世間)에서 출세간(出世間)으로 가는 길이다.

갑사 숲은 각종 활엽수들이 이루는 화엄세계이다. 소나무도 간간이 보이지만, 거의가 활엽수들이다. 흔히 '춘마곡(春摩谷), 추갑사(秋甲寺)' 할 때, 추갑사의 아름다운 단풍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바로 이 활엽수들이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후계목들이 임상에서 자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숲의 노령화가 이미 상당히 진척되어 앞으로 이 숲을 어떤 수종으로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그때 '추갑사'는 하나의 지표가 될 터이다.

이 숲의 화엄세계에서 노거수로는 말채나무가 가장 눈에 띈다. 겨울에는 나뭇잎이 없어서 나무의 껍질(樹皮)을 보고 나무이름을 알아내는데, 말채나무는 그물처럼 갈라터진 껍질이 특징이다. 가느다란 가지가 낭창낭창해 말채찍으로 좋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채찍에 쓰이지는 않는다. 원산지는 우리나라와 중국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중국에서 이 나무를 '조선송양(朝鮮松楊)'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고향인 것 같다. 생장은 더디지만, 사찰 조경에 잘 어울린다. 봄에 파종하여 묘목을 얻는다.

종각 옆으로 수령을 짐작할 수 없는 큰 살구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살구나무는 서울 은평구의 것이 유일하다. 갑사에서도 충청남도 보호수로 신청해서 보호해야 할 것이다.

살구나무를 '행림(杏林)'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 오나라 고사에서 비롯되었다. 동봉(董奉)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만년에 산속에 은둔하며 살구씨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며 살았다는 고사가 있다. 의사를 행림이라고 부르게 된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표충원은 임진왜란 때 구국에 나선 승장들의 사당이다. 주변에 이대 군락이 있다. 이대는 '신이대' '시누대'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분류도감에 따르면 서로 다른 나무이다. 이대는 키가 2미터 이상 자라고, 신이대는 1미터 미만이다. 이대는 주로 한강 이남에서 자라지만, 조선시대에는 화살을 만들기 위해 전국 곳곳에 심었다. 이대는 표충원의 역사적 의미와 잘 어울리는 식물이다.

대웅전을 나와 대적전을 찾아가다보면 곡지지형을 따라 형성된 이 계류가 있다. 이 계류를 따라 갑사구곡(九曲)이 펼쳐져 있다. 계류 옆에 있는 공우탑은 절에서 부리던 소가 계류를 건너다 실족하여 금계암 아래쪽 소에 빠져 죽자 스님들이 소의 공덕을 가상히 여겨 세운 탑이라고 한다.

절에는 어딜 가나 동(動)과 정(靜)이 함께 공존한다. 갑사에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대웅전 영역이 동적 공간이라면, 별당처럼 따로 떨어져 호젓함이 머무는 대적전 공간은 정적인 공간이다. 그리고, '정(靜)'은 '적(寂)'과 상통하는 데가 있다.

대적전에서 철당간지주를 지나 달문택-백룡강-이일천으로 이어지는 갑사구곡은 물과 숲이 어울어져 겨울에도 걷기 좋은 개울숲길이다. 굳이 비경이랄 것까지는 없으나, 풍광이 아기자기하고 생태적인 느낌이 있는 곳이다. 플라타너스로 불리는 양버즘나무 몇 그루도 느낌 있는 숲길을 만들어주는 생태적 요소이다.

이 지역은 햇볕이 비교적 좋아서 갑사 지역에서는 봄의 약동을 맨 먼저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풀과 나무들이 다양하고, 곤충과 물고기와 새들이 즐겨 모이는 곳이다. 여름이면 반딧불이가 날고, 밤이 깊어지면 너구리가 마실 다니는 곳이다.

주변에서 관찰되는 새들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다. 흔치 않은 까막딱다구리까지 그 특유한 울음소리를 내며 드나든다. 조사기간 중에는 팔상전 뒤 활엽수림에서 관찰되었다.

쇠박새는 박새와 비슷하지만, 마치 베레모 모자를 쓴 것처럼 검은색이 뒷목까지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가슴과 배는 밝은 회색이다. 박새와는 달리 날개에 흰 줄이 없고, 가슴에 검은 선이 없다. 울음소리가 밝고 사람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서 스님들의 눈에 아주 익숙한 새이다.

갑사에서 대자암(大慈庵)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이다. 갑사에서 대자암에 이르는 구간은 노송들이 조금 혼재된 활엽수림이다. 굴참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참회나무, 굴피나무, 서어나무, 다릅나무, 개옻나무, 때죽나무…. 떨어진 낙엽들이 솜이불처럼 임상을 포근하게 덮어주고 있다.

흔히 낙엽을 인생무상, 삶의 회의, 조락(凋落)의 죽음 등등에 비유하지만, 낙엽에서 다시 생명이 시작된다는 생태적 사실을 사람들은 곧잘 잊어버린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거름이 된다'고 노래한 만해 선사가 아니더라도 낙엽이 가는 길은 영원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재생(再生)의 길이다.

대자암 석축 아래 수령을 짐작도 할 수 없는 늙은 모과나무가 있다. 모과는 울퉁불퉁 제멋대로 생긴 외모에다 맛도 시금털털하지만, 향기 하나는 은은하니 매혹적이다. 원산지가 중국이라, 아마 신라나 고려 때 중국으로부터 스님들이 약용으로 들여온 것이 아니겠는가 싶다. 대자암 모과나무는 높이가 10미터에 이르는 노거수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509호 '무등산 증신사' 편에 명기된 '산은줄표범나비'를 '암끝검은표범나비'로 정정합니다.

